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1월 28일(음력 10월 19일) 수요일 (주간) | 제655 호

법회와 문화콘텐츠가 만나면?

조계종 포교원 '다문화시대 법회' 주제 연찬회
디지털·음악·미술·요가 등 다양한 형태 모색

불자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다문화시대에는 법회도 이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다문화시대, 법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다문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법회 형태와 이웃종교 사례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다문화시대, 법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표한 김성철 교수(동국대)는 "양질의 영상물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요즘, 수행용 영상물을 활용할 경우 법회 효과가 무척클 것"이라며 "불교플래시를 활용하는 '디지털 법회'는 우리 불교는 물론이고 세계불교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교수행과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플래시영상물을 법당에 비치해 놓고, 법회 때마다 적절한 불교플래시 영상물을 상영한 후 그와 관련된 법문을 하거나, <반야심경> · 예불문 봉독할 때 뜻풀이가 담긴 플래시영상물을 상영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덕문 스님(의왕 용화사 주지)은 "용화사에서는 테마식 교양법회로 월요일은 경전 스터디, 화요일은 찬불가 배우기, 수요일은 요가 · 오카리나 배우기, 토요일은 복지관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법회를 실시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사례를 밝혔다.

대만의 음악법회 사례를 발표한 윤소희 동국대 강사는 "대만의 염불류 범패와 북치며 흥겹게 노래하는 구산인(鼓山音) 노래는 열흘 혹은 한 달간 지속되는 긴 법회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도 하고, 신명을 돋우기도 한다"며 "한국의 불교음악은 어렵고 고답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며, 노래의 뜻이나 의식도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불교음악을 의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화법회를 오래전부터 실시해 포교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사찰도 적지 않다.

2006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LMB 싱어즈와 함께 음악법회를 열고 있는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장)은 "찬불가를 통해 불교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자는 뜻에서 음악법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매주 토요일 불교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어린이 영어담마스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자우 스님은 "새로운 시도에는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 시행착오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나아갈 때 부처님의 대기설법처럼, 대중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음악법회를 열고 있는 안산 천수사 주지 지허 스님도 문화법회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

지허 스님은 "처음 음악법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신성한 법당에서 기타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곱지않은 우려의 시선이 많았었다"며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법회 인원도 늘어나고 신도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음악법회라고 1~2시간동안 노래만 부른다면 그것은 법회가 아니라 단순한 공연에 지나지 않다"며 "초청 가수법사들이 가사에 담긴 의미와 불교이야기를 함께 해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그동안의 경험을 덧붙여 설명했다.

군법당인 원주 법웅사도 최근들어 문화법회를 활성화시켜 법당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늘어났다. 요가와 명상, 노래교실 등 신도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문화포교 전략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범주 스님(선문화예술원장)이 주지로 있는 달마선원도 비정기적이지만 달마도를 주제로 한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범주 스님이 달마도 시연과 그림 지도를 하며 선화 포교를 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관심있는 불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현상에 대해 고상현 포교연구실 주임은 "최근 법회 참가자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음악 ·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입체적인 법회프로그램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연찬회 등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포교 전략중의 하나일 것 "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 여수령 기자



'세계일화'로 피어나소서

한국불교 세계화의 선구자인 숭산당 행원 대종사(1927~2004)의 열반 3주기를 맞아 11월 20~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전시장에서 기념전이 열렸다. 숭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들이 직접 준비한 전시에서는 숭산 스님의 일생을 담은 사진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출간된 스님의 법문집 등이 선보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숭산 스님의 제자인 대봉 스님(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조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社告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보안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강의: 2007년 9월 16~27일(10일)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교재: 함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법공양 刊, 2만5000원)
◆구입문의: 02-2004-8200, 2004-8279.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에이치비엠씨)

※100부 한정 보급,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社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마감 : 2007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문의전화 : (02)2004-8282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우수상(본사 사장상)/특별상

'반쪽 토론회' 그친 대선후보 초청 토론

이명박·이회창 후보 불참

제17대 대통령 후보들의 불교 관련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11월 21일 열린 '2007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후보들의 급작스런 불참 통보로 '반쪽 토론회'로 진행됐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토론회 당일 토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사 시작 3시간 전에야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오전까지도 성사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던 토론회는 결국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한 정동영, 문국현 후보 역시 불교계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눈에 띄는 불교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패널들의 질문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보다는 원칙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7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준비위원회는 토론회 직후 성명서를 발표해 불참한 두 후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여수령 기자

<관련기사 7면>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3일 조계사 부주지에 토진 스님을 임명하고 前 주지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종책특보로 임명했다. 이로써 조계사 주지 인사 관련 신도회와 총무원 간의 대립국면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사 주지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정진을 하던 노현 스님은 총무원의 조치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령 기자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성불조각원 www.sungbu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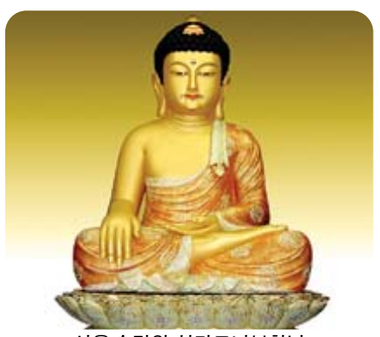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치 않고 짜맞춤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 / 경남지사 011-588-8317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탱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폐,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흥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온양 수암사 지장 목탱화



자비와 채찍 보인 곳을 알고자 한다면 화두에 들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세존께 어떤 외도가 물었습니다.

"유언(有言)으로도 묻지 않고 무언(無言)으로도 묻지 않겠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바를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 '양구(良久)' 하였습니다.

이에 외도가 찬탄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의 큰 자비로 모든 미망의 구름을 걷어주시어 깨달음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외도가 떠나간 뒤에 아난이 물었습니다.

"외도는 무엇을 증득했기에 깨달음에 들게 했다고 하였습니까?"

이에 세존께서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세존께서 자비를 내리시고 채찍을 보이신 곳을 알고자 한다면 오로지 화두를 간절하게 드는 일뿐입니다.

결제대중들은 세존이 '양구'한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채찍을 든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존이 '양구'할 때가 세존이 채찍을 든 곳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화두를 타파하여 이러한 도리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천하의 모든 종사들이 외도와 도반이 되겠지만 만일 서로가 인증(印證)할 수 없다면 동토의 납자라고 할지라도 서천의 외도보다도 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우사체도수미 藕絲掣倒須彌하고

개자곤번뇌전 芥子輥飜雷電이로다

연뿌리 속의 실로써 수미산을 끌어 넘어뜨리고 겨자씨가 우레와 번개를 흔들어 일으킨다.

施恩 헛되이 소비말고 참학하라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상략) 생각으로써 생각 없는 곳에 옛 부처 나기 전 진소식을 금일 덕숭산 정진대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喝)을 거듭 두번 하시고 이르시길,

白雲折盡 靑山秀 백운절진 청산수 靑山路轉 白雲迎 청산노전 백운영 石女捧轉 泥牛鼻 석녀예전 니우비 夜半金烏 海底耕 야반금오 해저경

흰구름 사라져 다한 곳에 푸른 산 우뚝하여라 그 청산 굽은 길에 흰 구름 맞으니 석녀는 소 고삐 끌려 하는데 금오는 야반에 바다 밑 바닥을 갈다.

무시겁래(無始劫來)로 이어져 온 덕숭산의 가풍을 좇아 결제에 임하는 덕숭총림의 납자들이여!

대중들의 정진은 무엇을 위함인가?

대중들이 정진을 잘하여 자기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밝히는 일은 자기 생사(生死)를 영단(永斷)하는 길이요,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는 길이며, 일체 중생을 건지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며 온 인류의 참된 평화를 위하는 길인 것이다.

대중들이여! 부디 시은(施恩)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금년 삼동(三冬) 결제에 결단코 참학(參學)하는 일을 마치도록 하라.

공부(工夫)와 일은 둘이 아니니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우리가 오늘 결제(結制)하는 도장(道場)은 송광사(松廣寺) 삼일암(三日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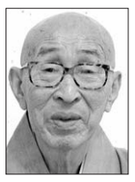
옛날부터 대상(垈上)은 삼일암(三日庵)이라 하여 공부인(工夫人)이 정진(精進)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요즘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한국중은 시간이 많고 일본중은 돈이 많다고 또 한국중과 한국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便)한 사람이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린가. 한국중은 공부(工夫)도 안하고 일도 안한다는 말이다.

우리 송광사 대중은 최소한 이런 중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인(古人)의 말씀에 공부(工夫)와 일은 둘이 아니라고 했다. 중국 백장(百丈) 스님은 하루를 놀면 하루를 굶는다고 하셨고 용성(龍城)스님과 학명(鶴鳴)스님은 선농(禪農)을 병행(竝行)하셨다. 우리 송광사 대중은 시물(施物)을 수용(受用)하고 살면서 한가하게 놀다가 죽어서 소되는 일은 없기 바라는 바이다.

고정된 인식·상대적 관념 타파해야



지종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상략)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수행자는 더욱 정진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잠재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은 유위(有爲), 무위(無爲)를 떠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유위적(有爲的)인 세계입니다.

유위(有爲)란 상대적인 관념(觀念)입니다.

곧,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생기는 것(心生卽種種法生)이요. 마음을 없애면 상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心滅卽種種法滅)

우리 중생은 업(業)에 의해 살아갑니다.

업은 마음의 파장으로 나타난 상대적인 현상입니다. 즉, 분별(分別)된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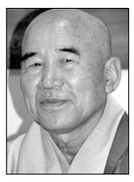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선(善)과 복(福)을 짓는다 해도 복과 선은 화(禍)와 악(惡)을 의지해서 동시(同時)에 만들어지는 한계(限界)가 있습니다.

복과 선이 최선의 수단이기는 하나, 고통을 영원히 없애는 궁극의 결과는 되지 못합니다. 유위(有爲)의 세계 즉, 상대적인 업을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두선은 이 양변(兩邊)을 없애고 생과 사를 동시에 끊어내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상대적인 고정관념(固定觀念)만 녹여 없앤다면 여여부동(如如不動)하고 자유자재(自由自在)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략)

은산철벽 나타날 때까지 매진하라



원명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古今空寂如如處에
水碧山深是道通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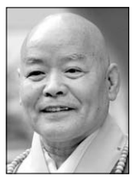
예와 이제에 공적하여 여여한 곳에 물이 푸르고 산이 깊으니 이것이 도통이로다.

道火不能燒却口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불이야 ~ 불이야 ~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입은 뜨겁지 않다는 말입니다. 수행자가 입으로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해도 실다운 행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가에서 흔히 말합니다. 공부를 함에 은산철벽을 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산철벽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우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은산철벽이 나타날 때까지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한 번 용맹심을 내어야겠지요. (하략)

분심 내어 一大事因緣 이루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태고총림 방장

秋山綠水元依舊(추산녹수원의구)
明月淸淸共一家(명월청청공일가)
白雲高處飛金烏(백운고처비금오)
碧波江上踊玉兎(벽파강상용옥토)

가을산 맑은 물은 볼래가 의구하고, 밝은 달이 청청하여 삼라만상 비추네. 흰 구름 높은 곳에 금가마귀 오르내리고, 푸른 파도 강물위에 옥토끼가 춤을 추네.

대자연의 질서는 이처럼 여연(如然)한데 세월은 유수하여 인걸(人傑)들은 늙히고 있습니다.

하안거(夏安居) 결재를 마친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동안거(冬安居)가 시작되어 그 동안 해이(解弛)해진 도심(道心)을 추스르고 다짐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략)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02-2004-8279)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중앙승가대학교 200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 "나"군> 신입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입니다.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 열	학 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등)	비 고
인문	불 교 학 과	21	2	
	역 경 학 과	21		
사회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 계(명)		84	2	86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②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60% (600점)	100% (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 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③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2007. 12. 10(월) ~ 2007. 12. 24(월)
◇ 접수기간 : 2007. 12. 20(목) ~ 2007. 12. 24(월 16:00까지)
※ 단, 토 ·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1 부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 1 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08년 졸업예정자 포함) ..... 1 부
4) 승적증명서 1부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1 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1 부
6)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cm) ..... 5 매 5매 제출 (2매 원서 / 3매 별도)
-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 외 타 종단 스님에 한함)

⑤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형료 : 60,000원

⑥ 전형일정
◇ 예비소집 : 2008. 1. 16(수) 12:30 ~ 13:00
◇ 면접 및 인성검사 : 2008. 1. 16(수) 13:0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⑦ 기 타
- '08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입생모집요강

①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 년	학점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 · 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 교 학 과	00명
		23	역 경 학 과	00명
		33	포교사회학과	00명
		43	사회복지학과	00명
	3학년 (학사편입)	14	전 학 과	00명

②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08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8년 3월에 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인 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 가능

③ 전형방법 및 일정
-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④ 기 타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중 2008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를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중앙승가대학교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 (031)980-7713~6

태고종 안정사 이전불사 '제동'

주민 반발·문화재청 지표조사 재요구로 추진 불투명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천년고찰 안정사(현 청련사)가 조계종과 태고종의 소유권 분쟁 끝에 아파트용지로 매각돼 태고종측이 이전불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실시 통보로 빨간불이 켜졌다.

분규사찰인 안정사가 세인의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0월. 안정사 조계종측 관리인 박 모 스님이 조계종 소유로 돼 있는 대웅전 등 사찰토지 730평을 판 것이 계기였다. 이어 태고종측은 법당 등이 매각돼 안정사 보존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 2005년 안정사 일대 토지 1900평을 조계종측이 매각한 동일 회사 에덴건설에 팔았다. 안정사의 정통성과 맥을 유지하는 것은 사찰이전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태고종측은 1976년 현 대중스님들의 모금으로 서울시로부터 불하받은 법당 부지 외 부지를 처분해(대금 110억) 현재 경기도 양주시 장흥리에 토지 3만8000평을 매입해 불사가 80%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설영주씨 등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천년고찰 안정사 보존 및 무학 대사 기념비 발굴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반발과 상급기관에의 진정으로 안정사 이전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안정사의 매각 취소와 보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올 2월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이 2개월 동안 지표조사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방 등의 이전을 권고한다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에 이전 불사가 순풍을 타는가 싶더니 국정감사 질의와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로 불사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문화재급 사찰로써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엄격히 적용하고 문화유산보조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중히 했어야 했지만 아파트 허가가 났다"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안정사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발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안정사 주지 백우 스님은 "사찰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불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찰 보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이전 불사 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비대위측에서 현실에 맞는 대안만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비대위는 그냥 보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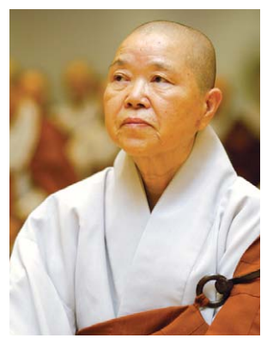
또한 백우 스님은 "이미 올해 초 서울시에서 안정사 일대를 조사한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왓장 하나 나온 것이 없었다"며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또다시 문화재청에서 지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태고종 안정사 신도 500여 명은 11월 19일 대웅전에서 안정사 이전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서를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9대 회장 명성 스님

제6차 비구니회 총회서 만장일치 재선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9대 회장에 명성 스님(사진)이 재추대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2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륭사 3층 강당에서 제6차 총회를 열고 명성 스님(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원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4년이다.

명성 스님은 1952년 합천 해인사서 신행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8년 승주 선암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0년 청도 운문사 강사로 취임한 뒤 운문사 승가대학장과 승가대학원장을 맡아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8대 비구니회장을 맡아왔다.

한편 비구니회는 이날 총회에서 ▲원로회의 신설 ▲임원의 임기와 선임 ▲운영위원회 구성 ▲벌칙방법 ▲임원 자격 등 회칙을 개정했다. 특히 임원 자격 중 원로는 승납 50세, 법계 명덕, 세납 72세 이상이어야 추대하도록 했다. 회장은 승납 40세, 법계 명덕, 세납 65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김주일 기자

선암사 내분 '일단락'

총무원·재적승간 내달 새 주지 선출 합의

주지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태고종 순천 선암사가 내달 새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11월 21일 선암사 재적승들로 구성된 선암사 전산대회(총회)를 열어 새 주지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고종 측이 임명한 승조 스님과 선암사 재적승들이 선출한 설운 스님을 놓고 팽팽히 맞서 지난해 8월부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21일 양측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새 주지 선출에 합의하며 선암사 내분이 일단락됐다.

선암사의 한 스님은 "올해 안으로 새 주지를 선출하기 위한 전산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선암사 사태'는 지난해 8월 태고종 총무원이 승조 스님을 주지로 발령냈으나 당시 주지인 금용 스님이 이를 거부하자 승조 스님 측이 같은 해 10월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선암사 종무소를 장악했고 한 달 뒤인 11월 금용 스님 측이 신도 등을 동원, 다시 종무소를 탈환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이후 수습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양측이 대화를 거부하며 냉각기를 거쳤다. 지난 1월 사태 해결을 위해 양측은 주지 선출 및 운영에 관한 문제는 선암사 수습대책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지만 투표 자격을 놓고 또 다시 이견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에는 선암사 재적승들이 총무원 측의 전산대회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대회를 강행해 설운 스님을 새 주지로 선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주일 기자

성철스님 '백일법문' 대중강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12월 3일부터 10회에 걸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대중강좌를 연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1967년 하안거에 매일 설법한 것을 교계에서 정리해 펴낸 책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과 함께 선(禪)과 교(敎)의 융합을 강조한다. 원택 스님의 '불교의 본질'을 시작으로, 해인사 백련암 일묵 스님의 '중도 · 원시불교사상', 불교학연구소 서재영 박사의 '중관 · 유식 · 천태 · 화엄사상', 前 해인사 강사 원철 스님의 '선종사상'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장소는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이며 오후 7~9시 진행된다. 동참비는 15만원.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02)733-7275

김강진 기자

어린이 포교 활성화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이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1박 2일간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2007 어린이포교지도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어린이 포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어린이포교 현황과 과제' 등의 강의와 토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위사찰 의견수렴, 현장에 맞는 어린이포교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교원의 2008년 어린이포교방향 발표와 우수 어린이지도자 활동지원금 수여식도 진행된다. (02)2011-1902

김강진 기자

고창군사회복지관 문 '활짝'

지역민·노인 위한 프로그램 다채

조계종 제24교구 고창 선운사에서 수탁운영하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이 11월 29일 개관식을 거행한다.

고창군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역주민과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복지관으로 건립됐다. 고창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적극 반영한 셈이다. 프로그램실로는 노래방 · 목욕탕 · 이미용실 · 체력단련실은 물론 대강당 · 소강당 · 장기바둑실까지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해 서예 · 육아 · 영어를, 노인을 위해서는 한지공예 · 다도 · 장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본 건물 오른쪽에는 1층 건물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이는 노인이용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센터는 가정봉사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직원은 24명으로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생활지도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063)561-1185

김강진 기자

I Love Buddha / 귀 기울이기

용정운(www.zentoon.com)



본지 '사람이 희망이다' 불기협 기획부문 수상

본지의 창간 13주년 특집 기획기사 '사람이 희망이다'가 2007 한국불교기자협회상 기획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 이하 불기협)는 11월 21일 한국불교기자협회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불기협 대상(선원빈 기자상)'에 주간불교 유응오 · 신중일 기자의 '신정아 사건 연계 기사', 기획부문에 현대불교 공동취재단의 '사람이 희망이다', 보도부문에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성북구청장 교동협 백지화'를 각각 선정했다.

본지가 지난 10월 17일자로 발행한 창간 13주년 특집호에 게재한 '사람이 희망이다'는 불교계 인재불사의 필요성과 현황을 짚은 기획기사. 심사위원단은 "인재불사의 시급성을 알리는 중요한 의제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시상은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열리는 '한국불교언론인의 밤'에서 이뤄진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봉 ☸ 제39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축

---- 초청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발전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을 모시고
『제39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07)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황 일 면
대한민국 군불교 후원회장 정 인 악 합 장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법사 일동

1부
제39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 총무원장 스님 법어
- 유공자 포상

2부
축하공연
- 초청 가수 (강진)
- 국방부 타악연주팀 등





▶ 일 시 : 불기 2551('07)년 11월 30일(금) 오후6시
▶ 장 소 : 하림각(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
▶ 문 의 : 군종교구 종무실 전화 02-749-8646, 전송 02-796-0221
▶ 홈페이지 : www.gunindra.com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국군장병에게 부처님의 손길을 전하는 고귀한 불사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 제일은행 325-20-203673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후원금은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군포교 일선에 전달됩니다.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절에서 만나는 '신기한 과학세상'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복지재단 '참좋은어린이집' 과학축제 개최





'비밀의 방'에서 물속에서도 타는 불에 눈을 떼지 못하는 어린이(왼쪽), 화려한 제2관문의 모습. <사진제공=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왕후의 자리를 내놓으시지요!"

TV 속 광고 얘기가 아니다.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복지재단 부설 참좋은어린이집이 11월 17일 마련한 축제에서 선보인 관문의 이름이다.

참좋은어린이집이 개최한 축제의 주제는 바로 '과학'. 어렵고 생소한 과학을 유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참좋은어린이집은 '과학축제'에서 그 비법을 공개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과학, 지구의 비밀, 우주과학까지 다양한 과학의 세계가 어린이집에 펼쳐졌다.

그 축제의 현장을 따라가 보자.

제1관문은 '비밀의 방'. 이곳에 들어선 어린이들은 '고기 낚는 어부'가 되거나 '수영하는 건포도'를 만날 수 있다. 코너마다 실험순서와 실험 속 과학 원리를 설명해놓았지만 어린이들에게 설명은 뒷전. 바로 실험에 도전한다.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기한 불 앞에서는 눈을 떼지 못한다.

'왕후의 자리를 내놓으시지요!' 제2관문은 제목부터 화려하다. 왕후의 자리를 넘겨받기 위해 어린이들은 형형색색 비누와 예쁜 양초 만들기에 도전한다. 천연 스킨과 치약도 어린이들 손에서 뚝딱.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따끈따끈 손난로도 척척 만들어낸다.

'분홍돼지의 토이스토리'로 꾸며진 제3관문에선 야쿠르트병을 이용한 열쇠고리를, 제4관문 '장금이의 꿈'에서는 폭신폭신 달콤한 머시멜로우가 듬뿍 든 초코파이도 직접 구워냈다. 톡톡 터지는 팝콘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만들기 바쁘게 입안으로 쏘옥 들어간다. 부모들에게 추억의 먹을거리인 달고나와 뽑기, 톡톡 쏘는 레몬사이다 만들기도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신비한 우주의 세계가 펼쳐진 제5관문 '오즈의 나라'에서 최고 인기는 '나는야 우주인'. 어린이들은 은빛 우주복을 입고 우주인으로 변신했다. 제6관문 '별들에게 물어봐'는 별자리탐험 동영상으로 신비한 별들의 세계로 떠났다. 줄타기 삐에로와 곤충의 눈 체험이 기다리는 제1복도와 먹이사슬 토네이도 천둥 등 자연현상을 접할 수 있는 제2복도가 마지막 관문이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어린이들은 즉석 솜사탕을 비롯해 푸짐한 선물도 받았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축제는 마감 예정 시간인 오후 3시를 훌쩍 넘기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실험 한 번으로 충족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이 두 번, 세 번 재실험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한편 참좋은유치원은 11월 15일부터 만4세반(2003년 3월 1일~2004년 2월 28일 출생), 만5세반(2002년 3월 1일~2003년 2월 28일 출생 및 취학유예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입학상담을 하고 있다. (053)476-6767

강지연 기자

"인재불사의 요람 만들 것"

부산불교신도회관불사추진 이욱태 본부장



"부산불교신도회관을 인재불사의 요람이자 대중불교의 원동력이 되는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11월 28일 부산불교신도회관이 개관됐다. 부산불교신도회관불사추진본부 이욱태 본부장(부산 해동중 교법사·사진)은 "부산불교신도회관은 부산불교신도회 출범 40년 만에 오직 재가불자들의 서원만으로 추진한 불사"라며 "연면적 2700㎡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70억의 재원을 들여 건립한 부산불교신도회관은 재가자들의 힘을 모아 도심 한복판에 이룬 한국불교 최초의 불사"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신도회관은 5층 교육관 진여원, 6층 법당 법계정사, 7층 소법당 불지원으로 구성돼있다.

"법계는 우주만법 중생들이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세계를 맑고 청정하게 하는 중심도량으로 가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진여원은 우리의 본성, 불성을 깨닫고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자세입니다. 불지원은 부처님의 세계를 증득한다는 뜻입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 뜻에 어긋남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이욱태 본부장은 앞으로 부산불교신도회관을 터전으로 일반청년 및 대학생 지도자 육성, 각 사찰의 종무원 보수 특화교육, 부산불교전문강원 운영 등 대중불교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세부계획도 잡혔다. 일반 청년 및 대학생 지도자 육성은 대불청 부산지구, 청년불자 산악회와 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종무원 보수 특화교육은 컴퓨터 교육, 조직운영기법 교육을 주로 한다.

부산불교전문강원은 은해사 승가대학 원장 지안 스님을 원장으로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 범어사 강주 무비 스님 등이 강사로 포진했다. 총 9년 과정으로 불전반 3년, 논전반 3년, 사상반 3년으로 나뉜다. 스님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재가불자는 포교사나 신도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이번 불사는 부산불교의 오랜 염원이며 결집"이라는 이욱태 본부장은 "새벽 6시에 모여 회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실무자들과 (재)불심홍법원 하도명화 前 이사장, 류진수 회장님, 공병수 회장님, 그리고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이 이 불사의 기둥"이라고 불사를 완공한 기쁨을 도반들의 공로로 돌렸다.

하성미 기자

행복한 '지각 결혼식'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저소득층 무료 결혼식 지원

부산 부암동 김극수(44)·백영미(38) 부부에게 11월 16일은 특별한 날이다.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못 올린 결혼식을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정여)의 도움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11월 16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4층 교육관에서 부산진구 관내 저소득층 무료결혼식을 거행했다.

주례로 그들의 삶을 축복한 정여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 이룬 가정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부부를 격려했다.

신랑 김극수씨는 "그동안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결혼식으로 우리 부부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내 울음을 터뜨린 신부 백영미씨는 "그동안 쌓인 가슴속 응어리가 풀려 나간 자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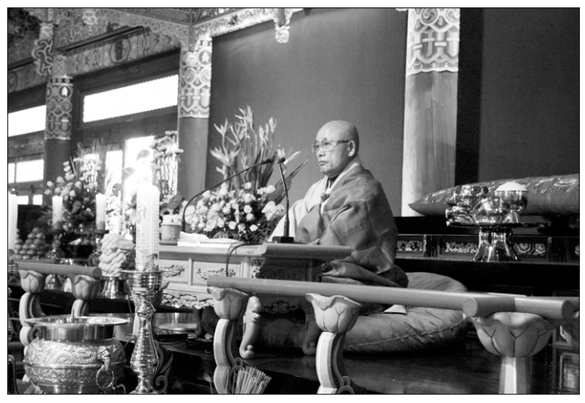
이번 결혼식은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가족들의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한복은 금실한복 박인숙씨가, 드레스는 복지관 김덕춘 총무가 각각 후원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

30일→53일로 연장…내년 1월 7일 지관 스님 법문으로 회향



대중들에게 깨침의 도리를 설하는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차가운 초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통도사 설법전은 구법 열기로 뜨거웠다.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가 화엄산림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11월 16일 열린 법회는 매년 한 달 동안 진행됐던 화엄산림법회를 53일로 기간을 연장해 그 의미가 깊다. 2008년 1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문으로 화엄산림대법회를 회향한다.

통도사화엄산림대법회는 30여 년 전인 1975년 동짓달 초하루에 시작됐다. 당시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은 "사람의 얼굴에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 눈 두 개, 귀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리고 입 하나이다. 이게 바로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이 이치를 바로 알면 <화엄경>의 참뜻을 아는 것"이라고 설법했다. 통도사 창건주 자장 율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설한 스님이다. 통도사의 이름도 <화엄경>의 뜻인 '통만법귀일심(通萬法歸一心)'을 나타내는 말이다.

입재식에서 주지 정우 스님은 "어린 선재동자를 구법의 길로 보낸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덕목을 나누고 싶었다"며 "화엄산림 대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설법전에 모신 영가는 49일 동안 화엄법문을 듣는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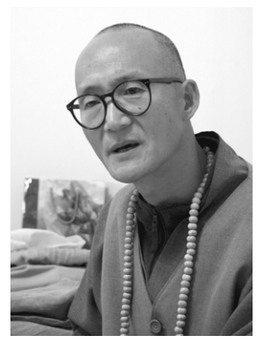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한 마음 깨닫고 나면 깨침이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깨닫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부처님이요, 들리는 소리도 다 좋은 소리이다. 그러니 보고 듣고 말하고 목마른 것을 아는 것이 <대방광불화엄경>이다. 1, 2, 3, 4, 5, 6, 7이 <대방광불화엄경>이다"고 설법했다.

화엄산림대법회 기간 동안 석가여래와 자장 율사의 금란가사 친견 자리도 마련된다. 그동안 금란가사는 통도사 박물관에서 보관했으며 일 년에 한번 개산대재 행사 중에 공개됐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청정 '보리심' 중요성 강조

관음사 천일기도 2주년 법회에서 청전 스님 법문



"허공계가 다하고 단 한 명의 중생이 남을 때까지 저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을지어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제10장 회향품 55절이다.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에서 만난 청전 스님(사진)은 보리심에 관해 설법하며 "달라이 라마께서 노벨평화상을 받고 이 기도문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11월 19일 관음사 천일기도 2주년 및 동안거 백일기도 입재기념 법회 자리에서다.

"보림의 뿌리는 현상계의 인과응보가 아닌 내생에 사라지지 않을 뿌리가 된다"고 지적한 청전 스님은 "보리심의 전제 조건은 청정하게 사는 것이며 보리심을 발원하고 남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전 스님은 티베트에서 기본으로 수업하는 <입보리행론>을 설명하며 보리심을 재차 강조했다. 인도의 불교학자 샨티데바가 쓴 산스크리트 원전 <입보리행론>은 시로 쓰여 후기 대승불교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

스님은 "<입보리행론>은 '보살행의 실천에 들어가는 길'이란 뜻으로 육바라밀을 기본으로 한다"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6명의 티베트스님과 한국을 순례 중인 청전 스님은 "문명으로 가득 찬 한국이 자살률, 낙태율이 1등인 것을 생각하면 씁쓸하다"며 "문명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기에 조금 춥고 배고픔 속에서 너무 안 넘치도록 지혜롭게 수행하여 동안거를 맞으시길 바란다"고 한국불자들에게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초의차문화연구원 충북지부 가침다도회

제1기 졸업생 8명 배출

초의차문화연구원 충북지부 가침다도회가 제1기 졸업생 8명을 배출했다. 11월 15일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초의차문화연구원 여연 스님(일지암 주지), 광주문화원 성화자씨 등 100명이 참석했다.

가침다도회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화장사에서 다신전강의, 다도예법, 행다법 등을 공부해왔다.

여연 스님은 "다도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고 가침다도회가 초의차문화연구원 충북지부의 주춧돌이 됐다"고 격려했다.

초의차문화연구원은 1993년 4월, 해남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에 의해 창립됐다. 다성(茶聖) 초의 스님이 40년간 주석하셨던 일지암에 총본부를 둔 초의차문화연구원은 서울, 광주, 대전지부에 이어 청주 화장사에 충북지부를 두고 있다. (043)255-5758

혜철 충청지사장

반야심경 독경대회

청주교도소서 개최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지사장 혜철)가 제2회 청주교도소 <반야심경> 독경대회를 11월 20일 개최했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독경대회에서는 앞서 치러진 예선 통과 8개 팀이 참가해 독경솜씨를 뽐냈다.

자세, 음률, 이해 등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박시하 청주불교방송총괄국장, 혜전 스님(석문사 주지), 충청지역 신문사 문화부 기자 등이 엄중한 심사를 했다.

이날 독경대회에서는 불보상에 조 모씨, 법보상에 최 모씨, 승보상에 주 모씨가 수상했다.

혜철 스님은 "염불은 대중들이 함께 동음창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음을 담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법문했다.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라면과 석문사 신도회에서 떡을 보시했다.



괘불 앞에서 독경삼매에 빠져든 재소자.

혜철 충청지사장

청주불교방송 명사초청 강연

청주불교방송이 11월 26일~12월 7일 '명사초청강연회-네 꿈을 펼쳐라' 특집 방송을 한다. 청주고, 금천고, 충주여고, 제천고, 오창고 등 충북도내 5개 고교에서 진행될 방송강연회에는 충북대 임동철 총장, 충주대 안병우 총장, 현대백화점 경청호 사장, 서경대 서길수 교수, 산악인 허용호씨 등이 강사로 나선다.

청주불교방송은 "대입수능을 마친 고3학생을 비롯해 자신의 인생관 정립을 위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방송강연회를 기획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043)211-2090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 제현사 시비제막식 봉행

종교초월한 28기 詩 새겨

대구 제현사(주지 법륭)가 11월 21일 준공법회와 더불어 시비제막식을 봉행했다.

제현사가 여느 사찰과 달리 특별한 것은 종교를 초월한 각종 시들을 새겨넣은 28기의 시비동산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도동측백수림과 마주한 도동시비동산에는 공자 정몽주 신사임당 이순신 등 역사 속 인물에서부터 한용운 조지훈 박목월 고은 해월 스님 등의 시를 새긴 28기의 시비가 건립됐다.

법륭 스님은 "충효사상을 투철하게 지켜온 분들의 마음을 관조한 옥고를 시비로 모시게 된 것은 한국문인협회 회원들의 큰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며 "태국 다마몽콜 프라야차나 주지스님으로부터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 세과를 봉안한 다보탑 성지인 제현사와 함께 시비가 건립된 것은 우주만물의 이치"라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생명 구하는 ‘나눔’에 동참하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의 날’ 행사

“생명나눔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월 22일 ‘생명나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은 보건복지부 지정 불교계 장기이식결연기관인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서 생명나눔에 동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인 날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이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증자들에 대한 표창과 난치병 환우들에 대한 지원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생명나눔 회원들과 한국불교에술인연합회 전원주 회장, 가수 최백호씨 등이 참석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설립했다. 설립자인 법장 스님의 법구가 2004년 열반 당시 동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되면서 불자들 사이에서 ‘생명나눔’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그런데 ‘생명나눔’이라는 말은 일반인에게 아직 낯선 단어다.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는 했으나 생명나눔실천본부라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길이 있어 행복합니다.” ‘2007년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는 후원자·회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 생명나눔의 의미를 함께 새겼다.

장기기증결연·헌혈증지원 등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무엇을 하나요?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기본사업으로 장기기증결연사업, 헌혈증지원 및 혈소판공여사업, 난치병환자돕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기증결연사업은 사후(死後)기증과 생체기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사후기증으로는 시신 · 각막 · 장기 등은 물론 뼈 · 연골 · 피부 · 인대 · 혈관 등의 인체조직까지 기증할 수 있다. 올해(10월 현재)는 사후기증은 시신기증 13건, 뇌사기증이 1건 있었다.

헌혈증 지원 및 혈소판 공여사업은 생체기증의 일환으로, 백혈병 등의 난치병 환자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헌혈증 지원 600매, 혈소판공여 기증 1건이 있었다.

또한 난치병환자돕기사업은 매월 생활환경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를 선정, 모금을 통해 치료비 ·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기지원, 특별지원 등 모두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모금액이 환우들을 위해 쓰였다.

이런 기본 사업 외에도 해마다 특별 사업을 실시한다.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으로는 뇌사 · 조직기증희망자 등록 및 릴레이, 장기이식 인식전환 세미나 등을 펼치고 있다.

이중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은 특히 중요한 사업이다. 난치병 환자의 경우 피를 재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이식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는 가족 외에 거의 없기 때문이다. 타인에게서 조혈모세포를 찾을 경우 그 조직이 맞을 확률은 수만분의 일에 불과하다. 샘플이 많을수록 난치병 환자에게 맞는 조직을 찾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조혈모세포기증자들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3085명의 등록자를 받았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총 등록인원은 1만1585명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나 아직 ‘생명나눔’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 것은 아니다. 이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자주 문의가 오는 오해 몇 가지를 통해 더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박스 참조>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을

#생명나눔에 동참하려면?

‘생명나눔’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자주 하는 ‘헌혈’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생명나눔이기 때문이다.

다만 좀 더 의지를 갖고 생명나눔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생명나눔실천본부(02-734-8050)에 연락해보자. 요즘 한창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3㎖만 채혈하면 유전자 정보가 등록 돼 필요한 환자에게 공여가 가능해진다. 단,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은 만18세이상 55세이하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 박용희 홍보팀장은 “얼마 전 탤런트 최강희씨가 골수를 기증했다는 기사가 나간 후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며 “ 불교계에서는 스님들께서 나서주시면 불자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라고 스님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김강진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
전신마취 없이
2~4시간 헌혈하듯

생명나눔은 ‘죽어서만’ 할 수 있다?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생체이식도 가능하다. 생존시 장기이식으로는 신장 · 간이식 등이 있고 헌혈 · 혈소판 공여, 골수 · 조혈모세포 기증도 생체이식의 범주에 포함된다.

골수기증(조혈모세포 기증)은 ‘아픔’을 동반한다?

예전에는 골수를 직접 골반에서 뽑아냈다. 지금도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는 있다. 골반뼈에서 직접 뽑는 경우 기증자는 1~2시간 동안 전신마취 상태이며 천천히 채취하게 된다. 이 경우 채취부위에 3~4일간 뻐근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요즘 새롭게 각광받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채취는 기증자에게 채취 5일전부터 ‘과립구 집락촉진 인자’라는 약제를 매일 주사한다. 이후 전신마취 없이 헌혈하듯 채취한다. 소요시간은 2~4시간이며 통증은 거의 없다.

골수기증을 하면 몸이 안 좋아 진다?

간단히 말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골수를 뽑을 때 맞게 되는 마취제나 촉진 주사 등에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각 채취가 중단되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사와 식물인간을 헛갈려한다. 뇌사자는 손상부위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고 심박동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있지만 식물인간은 손상부위가 대뇌 일부이고 기능적으로도 기억 · 사고 등 대뇌장애만 있을 뿐이다. 또 뇌사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지만 식물인간은 가능하다.

뇌사의 경우 뇌사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정되며, 뇌사 판정 이후에는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들어는 봤으나 아리송한 생명나눔용어

◆조혈모세포: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 골수나 말초혈, 제대혈 속에 포함되어 있다. 백혈구와 적혈구 · 혈소판 등을 만들어낸다.

◆골수: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뼛속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혈액성분을 통상적으로 골수라고 부르고 있다.

◆제대혈: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 조혈모세포는 물론 연골과 뼈 · 근육 · 신경 등을 만드는 세포도 갖고 있어 의료가치가 높다.

◆말초혈: 일반 혈액검사를 위해 피부를 통해 채취하는 혈액과 같이 전신을 순환하고 있는 혈액.



⑤ 조계사 장애인포교단체 원심회 김장경 회장

각 대학에 ‘손짓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아리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수화(手話) 동아리다. 사람들은 손짓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동경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화의 본질은 청각장애인과 대화하는데 있다. 그 본질을 지키면서 불교 색채를 덧입힌 것이 불교수화다. 아직은 낯설고 많이 보급되지도 않은 불교수화.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바로 지금도 불교수화를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 조계사 장애인포교단체 원심회 김장경 회장(40)이 그런 사람이다.

“손짓 언어로 부처님 말씀 전파”



20년간 불교수화 연구·교육 앞장
‘찬불가 수화 CD’ 제작 무료 배포도

“수화는 청각장애인과 대화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실망하기 십상이죠.”

수화는 언어와 똑같다. 단어가 생기기도 사장(死藏)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외래어도 받아들인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 불교에 대해 설명하려면 당연히 기존 수화에서 불교와 연관된 손짓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김 회장에 따르면 ‘부처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단다. 그런 과정을 거쳐 비로자나불의 수인(手印)이 ‘부처님’으로 확정됐다.

김 회장은 원심회 1기도 아닌 ‘0기’로 출발했고 원심회가 생긴 것은 1988년이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불교수화를 연구하고 가르쳐왔다. 거기다 원심회 수장. 이래저래 임무가 막중해 “책임감만 늘어간다”고 토로한다.

그가 이렇게 ‘책임있는 사람’이 된 까닭은 장애인 법회, 불교수화 등에 불자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예전에는 한 기수당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심회에 가입했으나 지금은 광고를 내도 한 두 명 가입할까 말까다. 후원회원도 이전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이다. 김 회장은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몇 달 배운 사람이 강의에 나가야 할 지경”이라며 한숨을 쉰다.

“스님들께서 수화를 배우시지 않는 게 가장 서운하죠. 스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장애인 포교가 수월하겠죠.”

2006년 정부에서 <표준수화사전>을 편찬했을 때, 이웃 종교에 비해 빈약한 불교수화를 보며 부끄러웠단다. 그런 감정 속에서 올해 드디어 만들어낸 것이 ‘찬불가 수화 CD’. 현재 원심회에서 무료배포 중이다.

“고작 서른 곡 남짓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아니면 누구도 못한다는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어요.”

걱정은 많아도 그는 ‘원심회’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 김 회장의 끊임없는 애정과 자부심이 아니었다면 원심회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원심회 법당에서 진행하는 청각장애인법회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그의 ‘수화’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난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강하기 마련이니까.

“앞으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건물 보다는 조계사에 거점을 만들어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강진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www.njutcm.edu.cn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성철 스님은 왜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을 강조했을까?

백련문화재단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성철 스님이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을 강조했던 것은 기복이 아닌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실천하라는 간절한 당부"였음을 학문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성철 스님의 일상의례와 선: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밝히다'를 주제로 성철 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열었다.

석길암(한국불교연구원),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씨는 '현대 한국불교 의례에서 능엄주 독송이 갖는 의미'와 '성철 스님 일상참법의 연원과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성철 스님이 강조한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은 자력불교, 실천불교의 일상 수행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 "능엄주 독송은 선문의 강렬한 종파의식 발현"

석길암씨는 발표문에서 "한국불교를 일컫는 회통불교는 무색무취한 종합불교를 뜻하는 것"이라며 "성철 스님은 종합불교가 아닌 선문으로서의 강렬한 종파의식 강조를 위해 능엄주 독송을 강조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선종에서 능엄주 독송의 연원에 대해 석씨는 영명연수의 <종경록>에서 <능엄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예로 "<능엄경>이 교선(敎禪)을 두루 통섭하고 있음과 동시에 선문의 돈오주의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때문에 <칙수백장청규> 등 선문의례에서 능엄주 독송이 유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는 고려 말 간행으로 추정되는 <대불정다라니>와 '승려가 되려는 자는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여 <반야심경>, <금강경>, 능엄주의 송경으로 시험한 후에 예조에 보고해 정전을 받고 도첩을 주라'는 <세조실록>의 내용을 근거로 "고려 말~조선 초를 기점으로 능엄주 독송이 확산됐다"고 발표했다.

봉암사 결사를 통한 의례개혁에 주목한 그는 ▲법당 안 신앙대상 정리 ▲불공(佛供) 정비 ▲<천수경>을 배제한 능엄주 독송 강조 ▲신중단 예불 <반야심경> 독송으로 대체 ▲일상생활의 의례화 진행 ▲삼배, 일천배, 삼천배 관행 시작으로 정리했다. 특히 성철 스님이 관음신앙으로 표현되는 <천수경> 대신 능엄주를 독송하도록 한 것에 대해 "관세음보살을 통한 현세구원의 기복적이고 의타적인 <천수경>보다 보현행원의 실천 불교로 능엄주를 강조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능엄경> 제7권의 능엄주 수지를 위한 궤칙이 유독 청정한 계행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음을 들어 "당시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들이 유행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보였다.



'현대한국불교의례에서…'를 발표한 석길암(가운데)씨와 논평자 서재영(오른쪽), 사회자 황순일 교수.

석길암 선종의 강렬한 종파의식 강조위한 것
최원섭 매일 예참 통한 생활 속 깨침의 실천

봉암사 결사가 "선종으로서의 강렬한 자각을 가진 수행결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것은 봉암사 결사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학설, 즉 간화선 선풍의 발현이라는 김광식 교수(부천대)의 주장과 율 중심의 결사였다는 김호성 교수(동국대)의 주장 가운데 김 교수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

"봉암사 결사의 초석이 된 공주규약은 간화선 바탕의 실천불교로의 개혁이다. 성철 스님이 중국 총림법을 한국 실정에 맞춘 것"이라는 석씨는 "공주규약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의례인만큼 봉암사 결사를 계율 결사로 한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백팔 예참은 생활 속 깨침의 실천"

최원섭 연구원은 "백팔예참은 부처님에 대한 자기 참회가 아닌 매일의 예참을 통한 생활 속 깨침의 실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성철 스님이 절하기를 강조한 것은 업장을 녹이는 자기 수행을 넘어 깨달은 자의 행위를 펼치라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다.

성철 스님이 생전에 당신을 만나기 전 3000배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스님이 아닌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의미고 절을 통해 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최 연구원은 "절하기는 절을 통해 변화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살도록 가르친 방편"이라고 역설했다.

<예불대참회문>의 연원이 <선문일송>에 있다고 밝힌 최 연구원은 <선문일송>에 실린 <예불참회문>이 현행 <예불대참회문>과 거의 일치하다는 증거를 보였다.

또 1969년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품>이 원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예불대참회문>은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품>에서 보현행원품 번역 부분만 빠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같다.

이것을 근거로 그는 "성철 스님이 강조하는 예참의 사상적 배경이 보현행원"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성철 스님은 수행의 본령을 간화선에 두고 있지만 중생을 향한 실천의 입장에서는 보현행원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주장이다.

□ "불탄법어는 성철 스님 깨달음의 정수"

한편 박진생 원장(정신과 전문의 · 박진생 신경정신과의원)은 '성철 스님 불탄법어 독송의 정신치유 효과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불탄법어 독송법을 소개했다. 불탄법어는 성철 스님이 1981년 종정 취임 이후 열반하신 1993년까지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발표한 짧은 메시지를 모은 것이다.

박 원장은 "짧은 불탄법어에는 성철 스님의 깨달음의 진수가 녹아있다"며 직접 독송 시범을 보이며 대중들에게 불탄법어 독송을 권했다. 불탄법어 독송으로 불안증에 시달리던 수험생, 부부간 불화로 이혼위기를 맞은 부부, 동료들과의 불화로 직장생활이 어렵던 교사 등을 치료한 임상사례를 근거로 "본인 뿐 아니라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불탄법어 독송법은 'Word of Blessing'이라는 제목으로 영역, 2005년 국제정신치료학회에 소개돼 국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원효의 화쟁사상은 존재론적 혁명

천태종 관문사 제10회 천태국제학술대회 개최

"원효의 화쟁사상은 사회적 소유관계를 자연적 존재관계로 치환시키는 마음의 혁명이며, 이것이 인류가 미래에 펼쳐야 할 복락의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17일 천태종 관문사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화(和)사상'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천태국제학술대회에서 김형효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가 주장한 내용이다.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과 그 철학적 함의'를 발표한 그는 인류의 발전을 세상의 물질적 편리를 도모하고자한 경제기술혁명과 정신적 선함을 도모한 사회도덕혁명으로 나누었다. "경제기술혁명과 사회도덕혁명 모두 기술이성과 도덕이성으로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소유론적 사고방식"이라 했다. 그 결과 인류는 물질적 편리에 중독되고, 자가성에 매몰된 독선과 배타에 물들게 돼 불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김 명예교수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제시했다. <신심명>의 '유즉시무 무즉시유(有卽是無 無卽是有)'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을 예로 들었다. "<신심명>의 유 · 무와 <반야심경>의 색 · 공이 같으며 이러한 존재론적 사유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해결의 답이다. 원효의 화쟁사상도 이를 다른 각도에서 풀이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상생과 상극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공존하는 자연적 화쟁의 존재방식을 소개했다. 태풍으로 바다의 생명들이 위협받지만 동시에 바다를 정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나 비행기가 뜨는 것이 공기의 부력 때문이지만 결국 부력은 공기저항이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상생과 상극이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닌 상관적 관계로 공존함을 피력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같음(同)과 다름(異)을 이중적 구조로 읽고 동일(一)과 비동일(非一)을 상호 상응하는 구조로 본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만사가 모두 상관적 차이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철학이며, 존재의 상관적 차이는 실상 진여(眞如)인 공성(空性)의 표현을 아는 것으로 규정한 그는 이를 '존재론적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론적 혁명은 세상을 장악해서 개조하려고 하며 분별과 선택을 강조하지만 존재론적 혁명은 이중적 대대법(待對法)으로 대긍정의 길로 가게 한다"며 마음을 비우려는 회심(回心)을 주문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과 일본, 독일의 학자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념, 종교, 인종간 대립 갈등이 인류 불행의 원인이고, 불교의 화(和)사상이 이의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였다.

한편 이시이 코세이 교수(일본 구마자와대학원)는 '쇼토쿠 태자의 작(作)으로 전하는 '헌법17조'의 화(和)의 원류'를 발표했다. 일본 불교의 중흥조로 알려진 쇼토쿠(聖德) 태자가 만든 '헌법17조'를 소개한 그는 '헌법17조'의 전반에 걸친 '화를 존중하고 중시해야 한다(以和爲貴)'는 구절을 근거로 '화(和)'는 일본의 전통사상이며 불교 사상이라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학술단신

■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

인도철학회(회장 법산)는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과 대중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달라이 라마와 20년째 수행>의 주인공 청전 스님 특강과 김호성 교수(동국대)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02)2260-3130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12월 6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농협408-01-086128
(예금주 : 임병국)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수료후 미국최면의과대학 편입학 가능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1577~1276 일오칠칠~심리치유



❶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스님과 재가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❷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영국 종책특보, 박광서 교수, 현각 스님(사진 왼쪽부터). ❸이날 토론회는 불교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정동영 · 문국현

대불교정책 제안 "대부분 수용"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열려

시방세계는 지금 대선 열기로 가득하다. 대선후보들은 지역을 돌며 '유세 전쟁'을 벌이는가 하면 각계 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대선후보들의 불교관련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 토론회'가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만 참석했다. 사회는 박상병 불교TV 시사토론 진행자가 맡았고, 패널로는 현각 스님(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서 교수(서강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영국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불교와 관련해 불교관계법, 문화·문화재, 환경, 사회복지, 종교정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질의가 이뤄졌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사회자 이번 대선의 시대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국현 경제를 살리되 전혀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사람을 중시하고 일자리 늘릴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또한 부패 없는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이 시대적인 의미다.

정동영 대통령이 되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도록 하겠다. 또한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팀장이 되어 부처 장관들과 함께 캐나다 인도 동유럽 등으로 가서 기업인들과 만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불교관계법 분야

김영국 후보들의 근본적인 문화유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동영 사찰의 중첩규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문화유산부'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교문화재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면 되고,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 장관급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교계 어른들과 잘 의논하겠다.

문국현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문화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다. 문화재 예산을 1.5퍼센트까지 증액하고, 사찰 주변 넓은 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

김영국 문화유산 관리는 불교계에 자율로 맡기고 불교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불교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생각은 없나?

문국현 전체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유산이다. 인사추천 시 불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불교계에 전문가도 많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꼭 인사에 반영할 것이다.

정동영 사찰과 불교문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절차에 관련하는 위원회에 불교계 추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유산 관리, 국립공원 관리에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각 스님 문화재 예산 증액을 말했는데 구체적인 예산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국현 내년 우리나라 예산은 258조고 그 액수 중 10퍼센트 정도가 건설부패로 소요된다. 이렇게 줄인 25조를 교육 양육 무상교육 지역대학 등에 지원할 것이다.

정동영 템플스테이 예산이 내년도 165억원 책정됐는데, 최근 신정아건 등으로 100억으로 삭감됐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이 165억으로 되살리는 정책을 내 놓았다.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 봐 달라.

#문화·문화재 분야

박광서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문화대국으로 일으켜 세울 계획은 무엇인가?

문국현 정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이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동영 다음 정부는 문화정부, 문화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분야에 일하는 젊은이가 10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 그 문화콘텐츠의 뿌리는 불교에 있다.

현각 스님 불국사 <무구정광다라니경>과 오대산 판본, 조선왕실의궤 등은 제자리 찾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오대산 판본은 선조들이 사대 서고에 보관한 것 아닌가.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 없다. 문화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국가나 정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국현 원소유자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세계적인 추세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도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 단계 나아가 훼손된 문화재들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문화재로만 보지 말고 문화자원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복원해야 한다.

#환경·생태 분야

현각 스님 가야산과 지리산, 경주권역은 역사·문화·종교·환경 가치가 우수한 복합유산이다. 복합유산의 보존방법, 어떤 것이 있나?

문국현 지금 문화재 보호법은 공간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의 주변까지 같이 관리해야 한다. 사찰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안 되던 것을 완화하고 도시와 산촌, 그 안에 불교가 같이 갈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동영 복합문화유산으로서 설악산과 지리산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수원 용주사 옆에 대형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고 전통사찰 주변으로 송전철탑 들어선다. 공사의 효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마인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

박광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사회적 집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정책으로 펼 수 있을까?

정동영 현대인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다. 절에 가보면 없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낀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자연이고 사찰이다. 템플스테이 등 정신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문국현 템플스테이만으로는 안 된다. 산림체험이나 숲 해설 등과 함께하는 이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불교문화유적지가 불교신자나 어르신들만 찾는 곳이 아니라 미래세대인 학생들까지 함께 찾는 곳이 될 것이다.

김영국 불교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적으로 키우면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동영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국가권력과 정부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보존을 정부가 지원하고 제일 잘 아는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국현 통합적 관리기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만 본다. 문화재의 주변도 고려해야 한다. 국립공원이나 산림청하고도 협력하고, 환경부와도 관련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에 문화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종교정책 분야

김영국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나?

정동영 정교분리는 당연하다. 국민이 믿는 종교를 내가 믿는 종교처럼 받들겠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종교편향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문국현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지도층이 대체로 지키지 않는다. 법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품성이 바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박광서 교육부 등이 벌칙조항이 없어 일부 종교사학 문제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정동영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근거조항이 없다면 만들겠다.

문국현 초중등교육 관련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택권 없이 학교에 진학했는데 종교를 강요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

사회자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문국현 귀중한 시간 함께해준 불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진정한 경제성장과 문화 환경 여성 교육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번 대선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정동영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을 현실정치에 옮겨 도덕적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외교 대통령이 되겠다.

정리=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 소장 영가용 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분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일 주 문



국제포교사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2회 국제포교사 자격 품수식을 봉행하고 28명을 국제포교사로 품수했다.



홍보마케팅 워크숍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은 '홍보마케팅 워크숍'을 11월 30일 복지재단 교육실에서 개최한다.(02)723-5101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김흥국장학재단 김흥국 이사장은 11월 17일 강남구 신사동 자비원에서 정유진(번동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외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홈커밍데이 개최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11월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동문 초청 홈커밍데이 행사인 'Come together with the 108Project'를 개최했다.

서예전 연 월서 스님 수익 7160만원 전달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서예전'을 개최한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11월 19일 수익금 716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서예전은 11월 1~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지관 스님에게 기증증서를 전달한 월서 스님은 "부족한 솜씨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총무원 사회부 직원들이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월서 스님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원로스님의 자비로 이토록 뜻 깊은 일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감사한다"는 인사를 건넸다.

조계종 총무원은 수익금을 북한동포 돕기와 이주노동자 돕기에 50%씩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인사

■ **진각종 통리원** △총무국장 효심 정사 △기획국장 정효 정사 △관재국장 서원 정사 △포교국장 신혜 정사 △문화사회국장 원암 정사 △건설국장 원혜 정사 △교육원 교법국장 법경 정사 △교육국장 관명 정사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추진팀 건설담당 원주 정사

"불교학의 르네상스 이룰 터"

한국불교학회 신임 회장 김선근 교수



"정법불교의 보편화, 불교 교단을 빛내는 학회,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통해 불교학의 르네상스를 이루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4회 한국불교학회 정기평의원 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선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당선 소감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개울물도, 강물도, 바닷물도 된다"는 <우파니샤드>의 구절에서 인용했던 김 교수는 초기불교 전공자답게 학계를 비롯한 불교계 전체가 부처님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학회장 소임을 평생 입은 불은(佛恩)에 보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김 교수는 성철 스님, 청담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으로부터 불교를 배웠다. 박성철 교수, 김용정 교수, 박상국 문화재전문위원 등 불교학계의 기라성들이 그와 봉은사 대학생 수도원에서 동문수학한 도반이다. 이렇게 불교를 배우고 초기불교를 전공한 탓에 정법에 대한 갈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김 교수는 기복(祈福)이 아닌 수복(修福)을 강조하면서 실천을 위한 학문을 역설했다. 그 점에서 그는 "임기 동안 학자들이 교단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영문 저널 발간 계획도 밝혔다. 불교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모은 영문도서를 출간해 외국학자들에게 그들을 소개하고 한국 불교의 활동영역을 세계로 넓히겠다는 것이 사업의 요지다.

이런 비전 실현을 위해 그는 인수인계부터 회원간 합의기구를 두어 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학회를, 또 회칙 · 정관 등을 정비해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 임기는 2년이며 2008년 불교학결집대회가 끝나는 5월 이후 시작된다. 매일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에게 차를 올리며 <법화경> 사경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김 교수의 원력으로 한국불교학회의 미래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봉은사에 김교각상 봉안"

중국종교국 예샤오원 국장 방한



"김교각 지장왕보살 입상을 한국에 봉안하게 된 것을 계기로 양국의 불교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지장왕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의 입상을 국내에 봉안하기 위해 예샤오원(葉小文) 중국국가종교국장이 11월 21일 방한했다.

김교각 지장왕보살 입상은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고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조성해 한국에 기증한 것이다. 김교각 지장왕보살 봉안법회 봉행위원회는 20일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서 점안법회를 봉안한 입상을 국내로 이운해와 23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안식을 봉행했다. 높이 2m 가량의 입상은 경주 동국대 정각원으로 옮겨져 봉안될 예정이다.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예샤오원 국장은 "보살상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며 "보살상은 대만 노송나무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사오원 국장은 "중국과 한국 불자들 모두 김교각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보살상 봉안은 양국의 문화교류사에 기록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각 스님은 7세기 말 신라 왕자로 출생해 출가했으며, 20대에 당나라로 건너가 구화산에서 수행했다. 99세에 열반에 든 후 중국인들로부터 '지장왕보살'로 추앙 받았다. **여수령 기자**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관 만들 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능인 스님



"모든 직원 · 봉사자들이 하나로 뭉쳐 어르신들을 모셔왔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능인 스님이 11월 14일 '2007 노인복지관 전국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님의 수상은 일산노인복지관이 이용어르신, 담당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등에게 폭넓게 다가간 것을 인정받은 결과다.

올해로 8년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말씨,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자'는 관훈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

사단법인 보리 조채희 국장



사단법인 보리의 조채희 사무국장이 제6회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1월 20일 "불교시민단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단법인 보리와 사찰생태연구소 등에서 19년 동안 한길을 걸어 온 것이 불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조채희 국장은 보리방송모니터회(1990년), 두레문화기행(1991년), 사찰생태연구소(2002년)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각 단체에서 실무를 맡으며 불교언론 · 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3시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중앙승가대 후원회 출범식



다수동참 · 소액동참 · 지속동참을 표방하는 중앙승가대(총장 종범) 후원회가 출범했다. 11월 20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승가 교육불사를 다짐하는 중앙승가대 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종단 원로스님과 동문스님들이 동참했다. 종범 스님은 "승가교육 동참은 복과 도를 한꺼번에 담는 것"이라며 대중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금강선원 단합대법회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이홍표)은 11월 17일 제천 모산동(구)장엄포교원 부지에서 제3회 전국 단합대법회 및 금강선원 법당 개원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 이사장 이홍표 법사, 안영근 장로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활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故 이동성 법사님의 큰 원력을 받들어 여성 불자 교육 및 비구니 양성을 위한 별도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02)969-2410

이주노동자 위한 의료 · 법률 봉사



서울 대각사 행복한이주민센터는 11월 11일 고려대학교의료원불자회(회장 김우주)와 함께 오산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은행 · 법률 상담서비스를 펼쳤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법당 개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법당 개원법회가 11월 16일 안암병원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쌍계사 승가대 교수 월호 스님, 개운사 주지 공운 스님, 건대병원법당 지도법사 법경 스님, 삼성병원 불교실 혜철 스님 등 병원 지도법사스님들과 고대불자회, 환우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능인정사 법당 개원 및 자비의 쌀 나누기



서울 능인정사(주지 법경)는 11월 21일 광진구 능인정사 법당 이전법회 및 '어려운 이웃과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진구 · 성동구 각 100가구씩 독거가족, 차상위계층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각 20㎏ 쌀 한 포대가 전달됐다.

공 고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종회 법인설립

대한불교 선종의 종지종풍을 함양하여 불교중흥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로부터 2007년 11월 9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음을 공고합니다.

종단임원 소개		교구 임원	
종 정 : 효 담 박호영		경주교구	포항교구
원로의장 : 공석(미발령)	종무원장	지 법	일 우
종회의장 : 성 철 윤주봉	총무국장	보 성	진 설
총무원장 : 정 관 박수학	교무국장	수 명	범 열
총무부장 : 성 해	재무국장	화 수	일 웅
교무부장 : 혜 종	사회국장	선 광	혜 문
재무부장 : 일 성	감찰국장		지 명
포교부장 : 효 은		울산교구	영천교구
사회부장 : 선 광	종무원장	무 초	범인성
사서실장 : 일 웅	총무국장	청 명	
기획실장 : 일 우			
종회의원	지법, 무초, 일웅, 지명, 청명, 일우, 일령, 효은, 자인, 일소, 혜진.....		

■ 총본산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오봉산 대원사 ☎ 054)261-7777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남산 천선사 ☎ 054)748-0462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관리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여,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사전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 부러진 뼈와 수술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가능 합니다.
- 따주기로 사주와 무관하게 숙명과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 간단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이웃 건강관리(병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 학생지도 및 신도 포교에 최적입니다.
- 따주기 사회봉사로 많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위급시 비상처치법으로 활용합니다.

특 전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한번 수강으로 이론 · 실습 모두 완료함(비법 전수)
- 교재 및 따주기 도구 지급

강좌일 (선착순 각 20명)
- 광주교육장 : 2007. 12. 1(토) ~ 2(일)
- 부산교육장 : 2007. 12. 8(토) ~ 9(일)
- 대구교육장 : 2007. 12. 15(토) ~ 16(일)
- 대전교육장 : 2007. 12. 22(토) ~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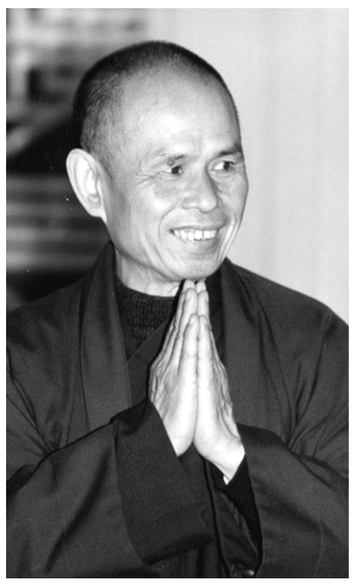
☞ 강좌 문의 : 041)944-2237 (010-3234-2237)
(문의시 세부 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림)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어떤 이론·사상도 맹신하지 말라"

-틱낫한 선사가 제시하는 참여불교의 14가지 계율

e 해외불교칼럼



틱낫한(釋一行 · 사진) 스님은 베트남 출신 평화운동가, 시인, 저술가로 현재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를 중심으로 국제난민구호 등 홍법활동 중이다.

월남전 당시 청년사회봉사학원을 설립, 구호 및 교육활동 이후 미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 코넬대 · 컬럼비아대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미국의 월남전 중단을 촉구했다.

반전운동의 동료이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를 노벨 평화상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월남전종식 파리평화회의에 불교대표로 참석했다.

좌익불교, 인간불교, 입세불교로도 번역되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란 신조어를 만든 그는 사회, 정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중생구제가 수행의 일부라 주장, 80년대 가톨릭 내에 논란이 있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과 대비된다.

참여불교는 세계불교평화협의회,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 등의 초석이 됐다. 그는 저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계율들을 제시하고 있다.

1. 어떠한 교의나 이론, 사상도 우상화하여 맹신하지 말라. 불교 또한 하나의 지침이자 방편이되 절대 진리는 아니다.
2. 지식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생각하지 말라. 진리란 지식개념이 아니라 생존현실이다. 편견을 버리고 집착 없는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맞으라.
3. 권위, 위협, 금전, 선전, 세뇌교육 등으로 자신의 견해를 강제주입하려 말라. 또한 진실한 대화로써 우리 이웃의 광신적 언동과 편협을 버리도록 도우라.
4.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찾아가 만나고 수단방법을 다해 고통을 함께 하라.
5. 명성, 축재, 육체적 향락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여유를 힘든 이웃들과 나누라.
6. 분노와 증오에 배어들지 말며, 나의 의식 속에 어른대는 그 그림자마저 닦아내라.
7. 당면 정황과 혼돈 가운데 자기상실의 위험을 경계하라. 참선수행에 정진하여 나의 안팎을 치유할 요소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8. 불협화음이나 집단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상호차이의 화해 및 갈등해결을 위해 진력하라.
9. 이웃을 기만하며 자기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불확실한 정보의 유포와 허튼 비방을 말라. 단, 불의를 보면 자기안전에 개의치 말고 과감히 성토하라.
10. 불교계를 사리사욕에 오남용하거나 정치집단화 말라. 탄압과 불의에 저항하는 불교인의 사명감을 견지하되, 정치적 개입을 초월하여 상황변화를 모색하라.
11. 인간과 자연에 유해한 생업, 타인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자비공덕을 실현하는 방편의 생업을 찾으라.
12. 나도 살생을 말고 이웃의 살생도 방치하지 말라. 생명존중과 전쟁방지에 있는 힘을 다하라.
13. 이웃의 소유를 바르게 인정하라. 단 지구촌의 어떠한 생명체에도 고통을 가하여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14. 내 몸을 고이 여겨 함부로 말라. 재가불자들은 사랑과 새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성적 표현을 말며, 남의 행복을 바랄진대 남의 권리와 의무 또한 존중하라.

출처 : 저서 '더불어 있음 Interbeing'

편역: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This man stole nothing from me

—이 사람은 나한테서 훔쳐간 것이 없소

A jolly good teacher

A thief with a sharp knife sneaked into an old monk's room and whispered, "Money or life?" The monk murmured, "Don't disturb me! Take the money out of that drawer." And he kept reciting the sutra, which made the thief deadly startled. While he was doing his business anyway, the monk muttered, "Leave some for me to pay my taxes tomorrow."

"Ah, sure, venerable." The thief hurried to leave and suddenly the monk shouted, "You take my money, and do not even thank me! That's not polite!" The thief was caught soon and taken to the monks for witness, who said, "This man stole nothing from me. I gave him some expense, and he even thanked me for it." Upon his release from prison, he became a disciple of the monk and years later, attained the Enlightenment.

쌈빡하고 멋진 스승님

날카로운 칼을 든 도둑이 노스님 방에 기어들어 낮게 속닥였다. "돈 내놀래? 죽을래?"스님이 중얼댔다. "귀찮게 말고 서랍에서 꺼내가라." 그리곤 줄곧 염불만 외우니 도둑은 놀라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제 볼 일을 보는데 스님이 구시렁댔다. "몇 푼 남겨둬. 내일 세금 내야 돼."

"아, 예, 스님." 도둑이 허겁지겁 튀려는데 스님이 퍽 호통을 쳤다. "내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단 말도 안 하냐? 이 매너 없는 놈아!" 이내 붙잡힌 도둑이 증인대질차 끌려오자 스님이 말했다. "이 사람은 나한테서 훔쳐간 거 없소. 내가 용돈 좀 줬더니 인사까지 잘하고 갔지요." 그 후 형기를 마친 도둑은 곧장 스님의 제자가 되어 몇 년 뒤에 대각에 이르렀다.

번안:성휴 스님

월드 불심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❷

佛心으로 인종 편견 극복한 불제자

PGA 챔피언 등극에 일부 백인 사회 발끈

"스포츠에 증오감 끌어들이지 말아야"

그는 나와 적이라는 대립을 벗어난 중도를 조용히 설하고, 또한 내가 천사가 되고자 남을 악마로 만드는 극단, 여기는 천당이고 거기는 지옥이란 양분법적인 궤변을 넌지시 밀쳐내는 대 법문을 펼친 것이다.

타이거 우즈는 8세에 국제옵티미스트 청소년골프대회에서 첫 우승한 이래 15세 때까지 무려 6연승한 후 16세에 프로에 입문, 1996년부터 본격적인 프로 골퍼가 됐다.

이듬해 그는 매스터즈에서 12샷이란 경이적 기록으로 우승, 21세에 공식기록상 세계최연소 최우수골퍼가 됐다. 그런데 특히 그가 2000년 PGA 에서 우승하자, 골프가 거의 국기인 미국, 좀 더 정확하게 일부 백인 사회는 은근히 발끈했다.

그들은 골프를 우리가 바둑을 보듯 치열한 두뇌싸움으로 여기는 터라, 유색인 청년의 챔피언 등극은 눈알이 뒤집힐 노릇이었다. 골프라면 잭 니클로스, 아놀드 파머 같은 백인들의 파티가 아닌가? 근데 도대체 이게 웬 웃기는 꼴이람? 그들은 마치 마구간에서 처박혀 살아야 할 깜둥이 노예가 백인 나리님 안방으로 기어든 양 온갖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인종갈등은 미식축구도 마찬가지라서 얼마 전까지도 팀의 작전 참모 격인 쿼터백을 흑인이 맡는 경우는 가히 톱뉴스 감이었다. 이는 유색인이면 그저 튼튼한 네 다리나 쓰지, 무슨 두뇌를 쓰겠냐는 식의 비열한 작태며, 이른바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 같잖은 종교적 독선이자 얼빠진 '선민의식'의 본색이다.

또 다른 실례를 보자. 테니스도 백인귀족 스포츠라 해서 유색인종에 대한 눈에 안 보이는 차단막이 있었는데 70~80년대에 대사건이 터졌다. 이본느 굴라공이라는 호주 원주민 아가씨가 윔블던 타이틀 두 번을 포함,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14회나 휩쓴 것이다.

떠돌이 양털깎기 원주민의 딸이 윔블던 챔피언이라니…, 일부 선민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테니스코트에 출입이 금지되어 담장 밖에서 숨어보던 야만인 계집 주제에…, 그들은 거의 집단히스테리에 이르렀다. 한 때 그들의 눈에 '복음의 은총을 못 받은 야만인'들은 캥거루는커녕 주머니들쥐만도 못한 하등동물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들은 선민들이 옮겨온 질병과 착취, 그리고 1800년경부터 1930년대까지 자행된 그자들의 대량살육으로 약 90%가 멸종됐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www.sheppardsoftware.com-Australian Aborigines).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단기 집중학살이라면, 그들의 원주민 학살은 일세기를 훌쩍 넘긴 장기 반복적 인간사냥이되, 전자의 만행은 너무 잘 알려지고, 후자의 잔학행위는 너무 덮어져 왔다는 차이뿐이다.

그래저래 발레나 오페라, 그리고 스키, 수영 등에서 유색인종, 특히 아프리카계를 찾아보기란 그다지 쉽지 않다. 게다가 상당수 백인관중들이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유색인 선수들을 비아냥대는 건 기본인 즉, 타이거 우즈라고 예외일까?

앞서 언급했듯, '불자는 스포츠에 증오감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담긴 깊은 속뜻이 뭘까? 그 야비함이 오죽하면 미국 프로야구에 애써 입문한 박찬호 선수가 경기 중 이단옆차기를 내질렀겠는가? 참고 참는다, 그런데도 줄곧 건드리면 박치기로 턱이든 뭐든 그대로 받아버린다. 이것이 곧 한국인 특유의 투혼이자, 우리나라가 온갖 역사적 시련에도 아직껏 살아남은 이유다.

또한 IMF사태로 전 국민이 진창을 헤맬 때 박세리 선수는 물에 빠진 공을 찾아 마치 미꾸라지 잡으러 늪에 들어가듯 대뜸 바지단을 걷어붙였다. 그녀를 시골 장터에 잘못 나타난 촌닭을 보듯 내리깔려던 그들은 그 멋진 투혼에 기가 죽고, 외국 언론도 한국이 그녀처럼 과감히 IMF 진창에서 벗어나리라 격찬했다. 바로 이런 걸 일러, 손 좀 봐준다(I will teach you)고 하는바, 그들은 한국 스포츠의 간판스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던져 후배 선수들이 이국땅에서 못 볼꼴을 안 보도록 미리 본때를 보여준 선구자다.

박찬호의 옆차기, 박세리의 미꾸라지 잡이…, 그 모습대로 기념동상을 세워줄만한 일대쾌거가 아니던가?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하나있으니, 스포츠와 기업은 물론 종교 간에도 페어플레이란 위선적인 말장난이 아닌 깨끗한 상호실천일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불제자 타이거 우즈의 담담한 평상심에 대해 일부 선민들은 겉으론 짐짓 태연한 체하면서도 속으론 진짜 왕 짜증이 날는지도 모를 일이다.(계속)

성휴 스님

싱가포르에 불교박물관 설립

불교관련 개인 소장품의 종합전시장인 싱가포르의 네이수에탕은 11월 10일 국제 규모의 불교박물관의 설립을 위한 1억 싱가포르 달러의 기금조성을 완료, 2100년도 개관을 목표로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금년 114세 된 중국 사천성의 한 라마가 기증한 희귀소장품들을 포함, 중국 당조의 촛대 및 명조의 승복과 옥제 와불 등 각종 불교유품 및 금은동 보석공예품이 종파나 지역에 무관하게 전시될 동 박물관의 설립기획은 전후 불교문화재 복원 및 예술품수집에 매진해 온 운위텅에 의해 추진됐다. **출처 : 아시아 뉴스 채널**

런던서 비구니스님 수계식

11월 8일 런던불교센터에서는 두 비구니스님의 수계식이 거행됐다.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에서 담마다신 스님의 제자인 줄리 랜킨은 팔리어로 풍요로운 연꽃가족을 뜻하는 카말리니라는 법명을 받았다.

또한 스리바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다이애너 클리프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연꽃처럼 피어나라는 뜻인 카말라시디를 법명으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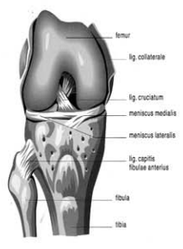
출처 : 아미타 트러스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8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듦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쇠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써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 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中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권 한의학박사는"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로 가능하며 중증(中症),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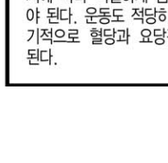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22-중-1901호 〈광고〉

당뇨병 한방(韓方)으로 치료한다.

당뇨병을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는 중정한의원 왕중권 원장



중정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경희대 외래교수)

당뇨병 아시죠?

이것은 한의학에서 소갈증이라 한다. 주로 입이 마르며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소변을 수도 없이 자주 보는 병이다. 한의학에서 약 2300년 전에 당뇨병의 임상 특징인 삼다일소(三多一小)증상으로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소변보고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기록되어있다. 또 소갈 병 환자는 오래되면 귀도 잘못 듣고 눈도 잘 안보이게 된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이 당뇨병의 합병증들이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원인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절제한 식생활 그리고 정신적 과로 유전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상소(上消), 중소(中消),하소(下消) 세 가지 유형을 나누면서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급성으로 오는 당뇨병은 한의학으로 치료가 잘 된다. 시간이 오래 경과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치료보다 당뇨로 오는 합병증 치료에 비중을 두며 장기적으로 한의학 치료와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임상에서 이미 많은 효과를 보았다. 당뇨병은 하나의 만성질환 이므로 짧은 시일 내에 어떤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고 음식에 있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된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며 정기적으로 혈당과 요당검사를 받아야 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처방과 평형침법

중정한의원에서 처방한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을 복용하면서 평형침법 치료를 받고 혈당강하제 혹은 인슐린을 줄여 나간다. 공복시 혈당 100~200 환자도 일반적으로 4~8주의 치료로 효과를 확인할수 있다.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증상에 맞는 병행치료가 가능하다.

'왕 원장의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의 당뇨치료기전'

당뇨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다. 그래서 죽지 않는 암이라고도 한다. 당뇨병 자체는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제일 심각한 것은 고지방 혈증으로 오는 합병증들이다. 중풍 뇌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맥경화, 폐쇄성 혈관 염, 심근경색, 간경화, 백내장 등 이러한 합병증 들이 원인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은 간장과 신장,비장 삼초기능의 균형과 인체 내의 기혈과 음양의 평형을 조절해주므로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은 인슐린 의존 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을 병행하여 치료한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복용을 하여도 기존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 투여 중단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치료로 당뇨가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당뇨치료를 위한 환약 복용으로 고지혈증도 치료되면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평형침법과 왕 원장의 차요법으로 병행하여 치료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악업은 苦果, 선업은 樂果를 알았다면
지극한 참회로 죄업 소멸해야

三者 若人受得戒已 不能堅心護持 輕重諸戒多所毁犯 依小乘敎門 卽無懺悔四重之法 若依大乘敎門 猶可滅除

여기에서는 삼품인 가운데서 하품인이 지계하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 하품인은 계율을 받고나서 일체 계품에 있어서 끝까지 견고한 마음으로 보호하고 지니지를 못한다. 하품인은 무거운 죄나 가벼운 죄를 논할 것 없이 파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치 사람이 머리가 잘리면 결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

가령 소승교문을 의지한다면 무거운 죄는 참회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두고 "천불이 출세해도 참회법이 통하지 않는다" 고 한다.

그러나 대승교법을 의지한다면 무거운 죄라도 참회할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승법문이야말로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故經云佛告有二種健人一者不作諸惡二者作已能悔

이 문제를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법엔 두 종류의 건강한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종일토록 신령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일체 악업을 짓지 않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세간에서 첫 번째로 건강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파계를 하고 나서도 능히 참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평소에 모든 악업을 지었다 해도 지은 뒤에 자기의 과오를 회개하고 자책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개혁하여 다시는 새로운 죄업을 짓지 않는 경우인데 이도 역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선근에 맹렬하고 지혜력이 강건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끝내는 깨달음을 증득한다. 그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 이들 두 종류의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夫欲懺悔者 須具十法 助成其懺

가령 모든 악업을 지은 사람이 참회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열 가지 법을 구족하게 갖추어 참회의 공부를 보조하고 성취해야만 한다.

▫ 一者明信因果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인과응보는 실낱만큼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밝혀 악업의 원인은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고, 선한 종자는 즐거움의 과보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는 흔히 세속에서 말하는 콩 심은 곳에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서 팥을 거두는 경우와도 같다.

▫ 二者生重怖畏

두 번째는 악업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악업의 결과를 불러들여 결국은 지옥으로 타락하여 극도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크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내어 모골이 송연해져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깊은 연못가에서 있는 듯이 하거나 또는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해야 한다' 고 한 경우이다. 악업의 원인이야말로 지극히 두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극도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행해야만 한다.

▫ 三者深起慚愧

세 번째는 죄업을 지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깊이 일으켜야 한다.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함은 자기와 타인에게 모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는 계를 파할 만큼 근기가 하열함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모든 훌륭한 사람은 계율을 잘 지음으로서 청정하게 해탈한 훌륭한 모습에 이미 도달하였는데 자신은 아직 그렇지 못함을 참회해야만 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석가부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성불했으며 나는 어찌하여 장구한 세월동안 중생으로 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여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이 돼야만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통렬하게 고치게 된다.

▫ 四者求滅罪方法 所謂大乘輕重明諸行法應當如法修行

네 번째는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만 하는데 반드시 어디에서나 항상 자기 죄업을 소멸할 방법을 구해야만 한다. 어떤 법이 죄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소멸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대승경전에 밝힌 '모든 참회를 향하는 법을 법답게 수행해야만 한다' 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 五者發露先罪

다섯 번째는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업을 숨기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야만 한다. 가령 과거에 지었던 모든 악업을 자신이 알거나 모르거나 혹은 유심으로 했거나 무심하게 행했던 이러한 등의 지은 죄업을 삼보를 마주하거나 혹은 대선지식을 마주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내고 애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참회할 수 있다면 그 죄업은 즉시 소멸하겠지만 자기의 죄업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둔다면 그 죄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럴 경우 그 죄업의 뿌리는 더더욱 견고하게 맺혀 참회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

▫ 六者斷相續心

여섯 번째는 죄업이 상속하는 마음을 끊어야만 하는데 가령 죄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삼보 전에 참회하고 나서도 그 죄업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상속하면서 악업 짓는 일을 단절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비록 참회했다 할지라도 전혀 이익이 없다. 앞으로 상속해서 일어날 죄업을 절단하기에 힘이 들면 그때그때의 인연 따라서 지난 죄업을 소멸하고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아야만 된다. 때문에 참회하고 나서 새롭게 상속하는 죄업의 마음을 반드시 단절해야만 한다.

▫ 七者起護法心

일곱 번째는 법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불법을 호위하겠다는 생각을 발기해야만 한다. 가령 자기가 불법을 받들면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게 되고 또 타인이 불법을 공경하면 타인도 함께 불법을 보호하게 해야만 한다. 가령 자신이나 타인 모두가 불법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면 복을 얻고 죄를 소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법을 보호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만 한다.

▫ 八者發大誓願 度脫衆生

여덟 번째로는 커다란 서원을 일으켜야 하는데 즉 사홍서원을 발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이없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리라. 끝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으리라.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우오리라.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성취하리라' 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바로 자리이타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제도하면서 아상과 인상 또는 상대방과 나라는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상대방의 괴로움은 바로 나의 괴로움이므로 급히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즐거움은 바로 나의 즐거움이므로 재빨리 그와 함께 즐거워해주어야 된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바로 자기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되며 상대방에게 안락함을 부여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사홍서원으로 자리이타를 병진하는 큰 덕목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행해야만 중생을 구제한다는 서원을 실제적으로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서원' 이라 함은 맹세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서 그 마음을 실천하려해야만 하며 원력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을 경책하면서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만 광대한 서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역시 죄업마저 소멸할 수 있다. 서원의 궁극적 목적은 끝내 이고득락을 자리이타로 성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번뇌의 종류-진심②

2) 경계진(境界瞋)

중생들은 타인인 유정들에게 진심(瞋心)을 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계까지도 진심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경계진' 이라고 합니다. 경계진은 '유정진' 의 또 다른 변형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처해있는 환경, 즉 살고 있는 집과 다니는 직장,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소유했던 물건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가령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벌하게 되면 그 국가 사람들만 정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국가의 모든 시설물마저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유정진이 극도로 성대하여 끝내는 경계진에까지 이른 것인데, 그 때문에 유정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의 경계까지 원망이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증오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3) 견진(見瞋)

견진은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견해 이외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자기와는 다른 타인의 견해는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종교 간의 전쟁이나 문벌 간의 치열한 투쟁이 모두 이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견진도 역시 유정진 가운데서 그 작용이 특징적으로 다르게 드러난 측면만을 따로 구별해서 말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견진은 앞서 '탐심' 가운데서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열거했던 '견탐', 즉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과 서로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견탐과 견진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견해만을 옳다고 방임(放任)하고 이를 모든 시비의 기준으로 삼는 지극히 아집적이고 감상적인 자기만의 논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항상 올바른 진리를 정당하게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세간의 모든 시비가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로 통일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만남 멋진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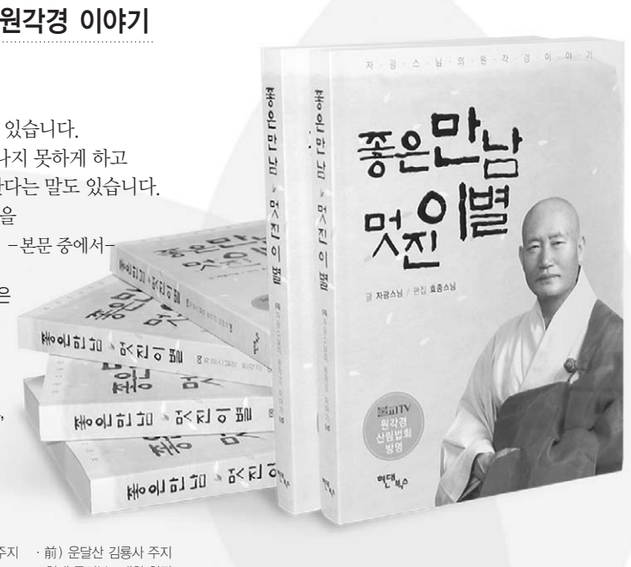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정가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희양산 봉암사 주지 · 前) 운달산 김룡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룡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증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북스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노래방기기 설치

추천상품

베스트상품

SOUNDART REINFORCEMENT SYSTEM

CHS 스피커

영상음향기기

휴대용 충전식 유 · 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투원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정현 스님 (화림원 주지)

선지식을 찾아서 정현

‘날마다 좋은 날’ 이 부처님 삶이지요

바람이 불자, 노란 비가 하염없이 주르르 떨어진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행나무가 흘뿌리는 노란 비를 맞으면서 산길을 걸었다. 태화산 자락에 토굴을 짓고서 10년 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현 스님을 만났다. 화림원 입구에는 문수동자상이 있는데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라는 글귀가 큼직하게 새겨져 있다. 정현 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이란 부처의 날이요, 여여한 날’이라고 한다.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날임을 강조하였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 가능성은 내 속에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신은 존재한다는 말은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존재한다고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인정하면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을 근원으로 하여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선공부 마음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수승해지면 자기 속의 부처를 볼 수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하지요.”

수행의 방편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스님이시기에 스님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좋은 날’이 화두이다. 그래서인지 스님의 얼굴은 맑고 환하다. ‘장님은 아니지만 장님처럼,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처럼, 귀머거리는 아니지만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냥 아무 일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는 것이 날마다 좋은 날을 사는 비결이란다.

정현 스님은 참으로 우연히 산문에 들게 되었다. 십대 후반에는 철학과 문학에 심취해 있었다. 그때는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수양을 위해서 친구와 함께 화엄사 탑전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금오 스님의 법문을 듣고서는 ‘승려가 되어야 만이 참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출가하였는데, 그때가 18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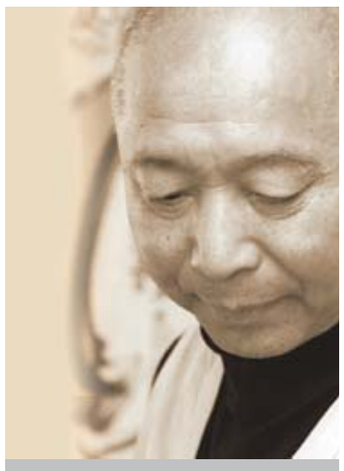
“전강 스님으로부터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전강 스님은 낮에는 절 살림하고 농사짓고 채전 가꾸는데 온 정성을 바치기에 저 분이 정말로 공부한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강 스님은 초저녁에 잠깐 한 두 시간 눈을 붙이고 새벽 내내 공부하셨어요. 밀행공부를 많이 하신 것이지요. 새벽 예불이 끝나면 제자들에게 꼭 1시간씩 법문을 해주셨어요. 일년 365일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주셨으니 우리나라에서 법문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현 스님이 용주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미국 선교사가 <부모은중경>이 새겨진 목판을 탁본하는 것을 보았다. 외국인들이 변상도 찍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 것인데도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스님은 전국을 돌면서 경판을 찍었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탁본하기도 하였다. 정현 스님이 미국에 가서 포교를 하게 된 계기도 우리의 목판을 미국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다. LA한국 문화원과 하와이 연방정부청사에서 판화전시를 열기도 했지만, 스님의 기대만큼 미국인들은 한국판화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저런 연유로 스님은 그림을 하게 되었다.

정현 스님은 10년 전부터 ‘날마다 좋은 날’ 그림 그려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누어 준 그림 숫자는 8만장인데 스님은 1차적으로 10만장 나누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회모임이나 개인이 그림을 청하는 곳이 있으면 나누어 준다.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까 싶어서 내 그림을 받으려면 108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삼천 배를 해야 했는데, 나는 도력도 없거니와 자비심이 부족해서 108배만 하라고 해요.”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스러운 지구촌이 되어야 그곳에 살고 있는 중생 하나하나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스님의 철학이다. 그래서 정현 스님의 그림에는 전 인류가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발원하는 간절한 원이 담겨 있다.



장님처럼…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내 그림에는 얼굴만 있어요. 얼굴은 바로 나여.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지만, 얼굴은 내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볼 때 보는 놈이, 들을 때 듣는 놈이 바로 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까치소리가 바로 나이고, 종소리가 나인데 그것을 몰라요.”

정현 스님의 그림에는 전설의 새인 공명조와 물고기가 등장한다. 머리가 두 개인 공명조는 부처님 설법에도 나오는 새인데 이상적인 새이면서도 어리석은 새이다. 머리 하나가 잠든 사이 다른 머리가 맛있는 과일을 탐하여 혼자 먹어 버렸다. 그것을 알게 된 다른 머리가 불만을 품고는 독풀을 먹고 죽어버렸다는 새이다. 결국은 어리석음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현 스님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문수동자는 원래 사자를 타고 있지만, 정현 스님의 그림에는 소를 타고 있다. 소를 타고 있는 문수는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는 미완성의 문수 즉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또 문수동자의 머리는 노랗고 빨간색으로 채색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스님의 선시 중 ‘소유의 노예’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경책이 된다.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다/가진 것이 많으니 돌보아야 할 것이 많다// 집을 돌보아야 하고/ 땅을 돌보아야 하고/ 자가용을 돌보아야 하고/ 애완견을 돌보아야 하고/ 지갑을 돌보아야 한다// 이처럼 소유의 끈에 묶이어 스스로 노예의 길을 걷는다// 이들에겐 마침내 죽음이 자유를 알려온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보았자,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바람처럼 가야만 한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혜안이 아닐까 싶다. 날마다 좋은 날로 사는 것이 바로 혜안이 열리는 길이요, 부처의 삶을 사는 길임에 틀림없다.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다. 거위들은 꽥꽥 소리를 내지르면서 스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정현 스님은 구례 화엄사에서 전강 대선사를 은사로 득도. 부산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화상으로 구족계 수지. 인천 용화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방에서 십오안거 성만. 1980년에 도미하여 LA 오렌지 카운티 정혜사 주지, 오리건 포트랜드 보광사 주지. 캘리포니아 금강선원 선원장 역임. 1996년부터 화림원에 칩거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날마다 좋은 날 우담바라’전, ‘날마다 좋은 날 염화미소’전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SHC 삼환종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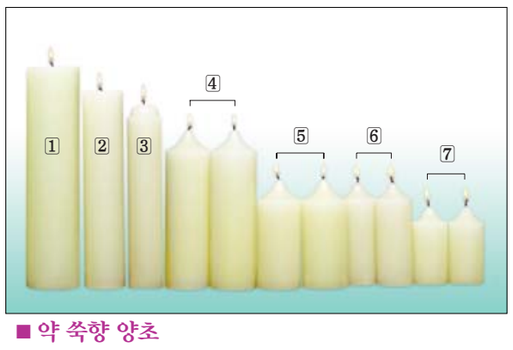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Cm × 29Cm
2 돈타레 5.6φCm × 27Cm
3 밀 대 4.7φCm × 25Cm
4 1호 5.9φCm × 20Cm
5 2호 5.9φCm × 14Cm
6 3호 4.7φCm × 13Cm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포교는 불교의 미래…군포교에 더 큰 관심을”

데스크 초대석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훈련소에서 먹은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불자가 됐습니다.”

프로야구 인기스타 서재응의 고백이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얘기로 시작해 군대얘기로 끝난다는 말도 있다. 젊은 시절 군에서 접하는 모든 상황들이 인생에 중요한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훈련소에서 만나는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잠시 몸과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혹은 초코파이와 맛난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 정도일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훈련소나 부대에서 불교와 인연 맺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군포교가 중요한 것은, 군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인생에서 육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면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군포교 최전방에 군법사가 있고 그들은 조계종 특별교구인 군종교구에 속해 있다. 군종교구를 총괄하는 군종교구장은 일면 스님이다. 군포교를 위해서라면 밤과 낮,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뛰어 가는 일면 스님이 군종교구장에 취임한지도 2년이 흘렀다. 11월 29일 열리는 제39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준비로 분주한 일면 스님을 만났다.



수계 장병 1년새 4만명 증가·군포교 체계적 틀 마련 ‘성과’
논산 훈련소에 5천여명 수용 가능한 대형법당 건립 ‘목표’

–군승활동이 내년이면 40년을 맞습니다. 현재 군승의 활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군승 활동은 1968년 5명의 군법사를 파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137명의 군법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육군 97명, 해군 18명, 공군 22명인데, 좀 부족한 수치입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전체 장병 수와 불자 수를 감안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 아니지만 육군의 경우 많이 부족합니다. 400개가 넘는 법당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죠. 200명 정도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군 전체에서 불자의 비율이 높아져야 군승 정원도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의 포교활동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군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군법사는 군인이기도 하고 승려이기도 합니다. 수행과 전법의 사명과 국방의 사명을 동시에 짊어진 신분이지요. 군에서는 정신전력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장병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종교적인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군법사는 장병들의 인격지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서 각종 법회, 위문활동과 선도활동, 군사찰 건립, 각종 의식진행, 교육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군법사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없나요?

포교에 대한 원력과 신념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군법사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기는 힘듭니다. 군인과 성직자를 겸하는 신분이 갖는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군이라는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종단 지원이 있어야 하고 전역 후 신분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복무기간 단축 등 정부차원의 정책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군종교구가 출범하고 초대 교구장에 취임하신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가 많겠지만 특히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교구장 개인이 한 일이야 이리저리 뛰어 다닌 것 밖에 없지만, 군종교구가 설치되고 많은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군법사들의 활동과 군포교의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계한 장병 수가 작년에 비해 4만 명 증가했습니다.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군사찰 건립과 쾌적한 종교 환경 조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간 개별적인 원력으로 진행되어 온 군포교 활동들을 군종교구를 중심으로 전환시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군종교구에서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재정문제입니다. 재원의 뒷받침 없이는 군포교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종교구 출범 직후부터 ‘만인동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8억여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군법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군종교구를 꾸려가기에는 예산 부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재정문제는 ‘급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입니다. 군포교의 중요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포교일 뿐입니다. 대상이 장병들이고 공간이 군대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모든 스님이나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포교원력으로 군포교를 바라본다면 어려울 것도 꺼릴 것도 없습니다.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는 생각이 있다면 군포교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군에서는 수 백 명 수 천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불교에 귀의시킬 수 있으니까요.

–군법사가 아닌 스님이나 포교사가 특정 군부대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법회를 주관하고 장병들과 교류할 수 있는 ‘민간인 성직자 제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군종교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스님은 군법당을 아주 열심히 돌봐주고 있습니다. 포병 6여단 범음사 호택 스님은 700여 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위문과 법회를 하며 불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또 5기갑 철갑사 덕현 스님과 102여단 일출사 백거 스님, 과학화훈련단 호국응봉사 수진 스님도 정기적으로 군법당을 관리하며 탁월한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종교구에서는 현재 스님과 포교사들의 정기적인 군포교 활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군법당의 주지나 포교사로 공식 임명할 계획입니다.

–군종교구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군포교 현장을 들여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도 교구장을 맡고 있는 동안은 논산훈련소에 대형 법당을 건립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최소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법당이 필요합니다. 몇 년 후부터는 군의 모든 훈련소가 논산으로 통합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대형 법당이 꼭 필요하지요. 이미 가톨릭계에서는 대형 성당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용지가 충분하니까 불교계도 원력을 모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군내의 불자 수가 많아야 군법사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훈련소에서의 포교는 군내 불교활동의 근간이 됩니다. 훈련소에서 선택한 종교가 평생의 종교가 되고 그로부터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는 점을 불자들이 인식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 사진=박재완 기자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가로5cm 폭2cm 줄길이15cm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


관촉사 아랫마을 사암동.


대웅보전.


사하촌 가정집 마당에 모셔진 비로자나불.


'은진미륵'으로 불리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5 반야산 관촉사

나를 내려 놓는 길

돌 솟아난다는 소문 들은 임금 "그자리에 부처님 모셔라"

주민 반대 교회 못들어와… "정부차원 각종 시설 갖춰야"

논산 들판에서 새가 잠깐 높이 나는 것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나즈막한 반야산 위에 관촉사가 앉아 있다. 심산유곡에 있는 절집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 사하촌 식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해탈문을 지나 반야교에 올라서니 수많은 계단이 놓여 있다. 숨을 할딱이며 오르는 내게 무겁게 지고 사는 세상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일러준다.

관촉사는 고려 광종 19년 창건됐다. 중국의 지안이라는 명승이 절에 세워진 석조 미륵상을 보고 '촛불을 보는 것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촉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산에서 나물을 캐던 아주머니가 아이 우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바위가 솟아나더란다. 아주머니는 집에 가서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위는 나라 현감한테 이야기를 해 그 말이 돌고 돌아 광종 귀에 들어갔다. 왕은 그 당시 걸승인 혜명 대사를 시켜서 부처님의 계시니 부처님을 세우라고 명을 내렸다. 혜명 대사는 자리는 좋은데 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연산의 화강암을 가져다가 미륵보살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 후 논산평야에는 석공들의 돌 쪼는 소리가 40여년이나 지속되었다.

혜명 대사는 조각을 마치고 석재를 어떻게 올릴까 고민하며 표진강을 서성이는데 두 동자승이 부처님놀이를 하고 있었다. 동자들은 석불 도막 셋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다음 밑 부분 도막을 놓고 그 도막에 모래를 쌓았다. 모래위로 가운데 부분을 굴려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모래를 쌓아놓고 머리 부분을 굴려 올려놓았다. 아주 쉽게 석불이 서는 것을 보고 혜명 대사는 그 지혜에 놀랐다. 대사는 동자승들이 불사를 도우러 온 문수보살의 화신이라 믿고 절 하고 일어났는데 동자승들은 사라지고 없었단다. 중생을 도와주는 문수보살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지 모른다. 미륵불이 은진미륵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은진현에 있다하여 얻어진 이름이란다.

미륵보살은 반야성 벌판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 대한 희망을 생각하며 세우지 않았나 싶다. 관촉사 아랫마을 시암동에서 유영식 통장을 만났다. 사하촌은 절집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관촉사를 감싸 안고 있다. 98가구 283명이 살고 있는 아담한 마을이다. 주로 절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산다. 겨울철이라 관광객 발길이 끊긴 탓인지 간판만 내걸어 놓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 마을 발전을 위한 통장님 생각을 물었다.

"마을과 관촉사가 연계하여 개발하면 모를까 우리마을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문 안의 민가들도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지요.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아서 개인적으로는 개발도 불가능합니다. 사하촌 전체를 이주시켜서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갖춰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날에는 절집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경기가 좋았다고 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절집으로 인해 먹고 살았는데 사진을 찍어 주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지금은 부여를 경유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단다. 삼사순례와 강경젓갈시장에 들렀다 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오래 머무르지 않아 장사는 되지 않는단다 .

사하촌은 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과 마을안길 포장을 깨끗하게 하여 단정하였다. 마을은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고려 때 주변에 넓은 표진강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오백년 묵은 나무와 그 당시 배를 묶어 두었던 바위가 있다. 탑정호가 생기면서 물길이 막혀 표진강 물길은 사라졌지만 강경과 공주로 연결되는 강가 나루터가 있어서 마을의 문화는 융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장님은 옛날 은진고을에서 가장 잘사는 마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때 관촉사에는 마을에 가족을 두고 사는 대처승 나인창 주지스님이 있었다. 조계종에서 파견한 비구승과 대처승이 서로 절집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 사하촌 사람들은 엎어 맞기도 했단다.

결국 대처승이 밀려나고 조계종으로 편입되었다. 마을과 절집이 크게 연계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지만 대처승이 머무를 때 불쌍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학교도 보내주고 구제를 많이 했단다. 그런 후덕함으로 사람을 보살피며 공덕이 쌓였음인지 마을사람들도 덩달아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부처님이 돌봐주어서 그런지 우리 마을에는 월남에 나가서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지요."

사하촌 사람들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랫마을에 교회가 들어 왔을 법한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 배 바위 주변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반대해서 교회가 들어오지 못했단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자 가정집 마당에 충남유형문화재 제88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관촉사보다 더 오래된 대운정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미륵불과 비로자나불이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어머니 불상이라고 한다. 추정하기로는 절집이 사라지고 땅이 개인에게 팔리면서 불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하다. 원래 불상은 집 밖 텃밭에 있었는데 비가 와서 지반이 약해 쓰러지면서 마당에 모시게 되었단다. 불상 앞 재단에는 정성스럽게 촛불과 꽃 공양이 올려져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번뇌와 더불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상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논산=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논산알리기 나선 '토박이'

충남문화관광해설사 유병숙



논산에는 13명의 해설사가 있다. 그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문화재를 지키러 나온다. 어떤 인연으로 해설사를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유병숙 해설사(사진)는 고향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들려주었다.

"나는 논산에서 태어나서 논산에서 자랐는데 결혼해서 외지에 나가 살았지요.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서울에서 친구들이 내려오면 안내할 곳이 없었어요. '논산 사람이면 논산에 대해 알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건양대학교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을 신청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해설사 3년 차인 그녀는 건양대와 청주대에서 80시간 교육을 받고 해마다 4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는다. 그녀에게 역사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이란다.

"엄마를 훌륭한 해설사로 만들기 위함인지 아이들이 역사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아이들과 실력을 겨루다보면 반도 맞추지 못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모자라는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도서관 단골손님이 되었지요."

해설사를 하면서부터 논산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에게서 마음을 적시는 향기가 났다.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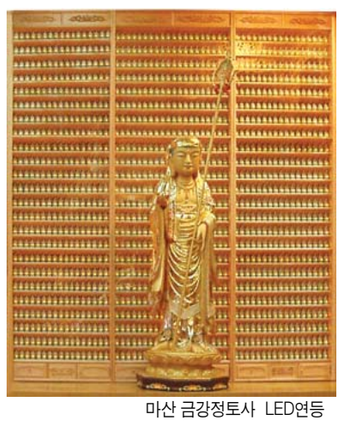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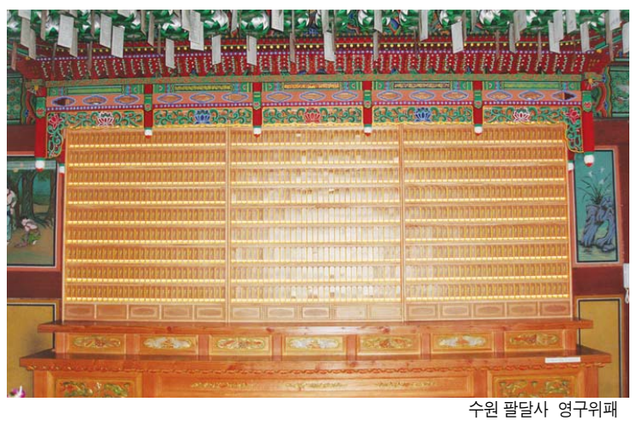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은평구립도서관에서는
11월 30일 오후 2시 선정고등학교 강당에서 '2008년 대입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 대학별고사 대비전략에 대해 집중 설명하는 이번 설명회는 입시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입시전문가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이사를 강사로 초빙한다. (02)385-1671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우학 스님 찬불동요 부처님 노래'를 CD와 테이프로 발매했다. 총 41곡을 담고 있으며 우학 스님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의식집과 우학 스님 말씀 등도 함께 담겨 있다. 구입 문의는 한국불교대학 불교음악연구소에서 받고 있다. (053)474-8228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센터 주최로 청소년들의 진로의식 함양과 적극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한 '진로탐색 엑스포'를 11월 28~30일 개최한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며, 인천관내 중 · 고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진로탐색관 · 진로정보관 · 직업체험관 등의 전시와 전문가와의 만남, 부대행사 등이 마련된다. (032)432-0717~20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한국과 터키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터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양탄자 타고 터키 가기'를 12월 9일까지 진행한다. 전시 관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공휴일 휴관)며, 터키 문화 사진전 · 미술 작품전 · 도서전, 공예품전 · 체험전 등을 즐길 수 있다. (02)3451-0800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는
김해문화의전당 개관 2주년 기념공연으로 12월 7~8일 오후 7시 30분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준비된다. 연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공연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과 한국최고발레무용수들의 기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055)320-123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51로 연락주세요


인터넷중독으로 상담 받는 학생의 모습. 사진제공=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인터넷보다 나만의 티셔츠 만드는게 더 재밌어요." 사진제공=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컴퓨터, 휴대폰 이제 그만!



어린이 · 청소년 매체중독

청소년 휴대폰 · 인터넷 중독성 심각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

#1. 휴대전화 중독
기연이(15 · 가명)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는 날이 없다. 같은 교실 친구에게도 수업시간, 쉬는시간을 가리지 않고 문자를 보낸다. 문자 내용은 "야, 뭐해" "응ㅋㅋㅋ" 등 대부분 매우 짧은 단문 형태. 하루에 쓰는 문자만도 100건이 넘는다.

#2. 인터넷 중독인 아이
상범이 부모님은 요즘 상범이(14 · 가명) 때문에 걱정이다. 아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보기 힘들기 때문. 상범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 전원부터 켠다. 온라인 게임과 채팅에 푹 빠졌다. 식구들과 대화가 끊긴지도 오래다.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범이는 인터넷 세계 속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자신이 무척 만족스럽다.

위의 예를 보면서 '뜨끔' 했는가. 휴대전화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가.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가.

혹시 그렇다면 겁먹지 말고 가까운 심리상담실을 찾아보자. "휴대폰 좀 좋아하고 컴퓨터 좀 쓰는 게 뭐 어때"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정보통신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스스로 휴대전화중독이라 답했다고 한다. 1개월간 쓰는 문자가 1000건 이상이라는 답변도 38%나 됐다.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놀이 · 여가 문화가 부족한 학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외부세계를 보여주는 매개체가 휴대전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보다 더 큰 중독성 매체가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도구 컴퓨터, 인터넷이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중독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06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4%이다. 이는 고(高)위험군 2.1%에 잠재위험군 11.9%를 포함한 수치다.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이선영 상담실장은 인터넷 중독의 경우 "초등생은 하루 2시간 이상, 중 · 고생은 4시간 이상 게임하는 날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이런 경우 반드시 상담을 받으라 권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가 중요한데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힘든 시기라 본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의 경우 힘든 일이 생길 경우 현실도피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빠지기 쉽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미디어중독에 빠질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

만약 스스로 휴대전화 · 인터넷중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02-795-2000)의 문을 두드려보자. 상담원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도 있다.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에서 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집단 상담. 다양한 예술치료를 병행하며 인터넷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행동들을 제시해준다. 대안행동은 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사진활용 내 미래 이야기', '티셔츠에 그림 그리기' 등이다.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에서는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11월 30일에는 학부모 대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12월 8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평에서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가족캠프를 실시한다.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e-미디어 다이어트 운동(youth.go.kr/event/diet/main.asp)'을 전개하고 있다. 매달 둘째 토요일을 'e-미디어 다이어트의 날'로 정해 지역별로 가족 걷기대회,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선영 실장은 "컴퓨터는 반드시 아이 방이 아닌 거실에 설치해 가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중독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인터넷중독 간단 자가진단법

- 밥을 먹지 않고 밤새 인터넷을 한다.
- 인터넷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잠을 잔다.
-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늘 인터넷에 관한 생각들 뿐이다.
-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 줄이고 싶으나 자제하기 힘들다
- 인터넷을 하다 약속시간에 늦은 적이 여러 번 있다.
- 인터넷 사용으로 가족들과 마찰이 있다.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 가끔 현실과 사이버공간이 구분 안 될 때가 있다.
-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기분이 좋고 흥미진진하며 자유로워지는 느낌이다.

(자료제공: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불청련 청소년 및 인근병원 간호사들 혜명양로원 방문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랑 같이 놀아요!"

경기도 혜명양로원이 11월 11일 유난히 환하게 빛났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현성, 이하 불청련) 소속 '그린비' 청소년 7명과 예본안과 간호사 10명이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린비 청소년들과 간호사들의 방문은 불청련 '작은 나눔, 큰 기쁨'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불청련은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작은사랑 실천운동을 전개시키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방문도 약속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주 일요일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계획이다.

이날은 서울 소솔암 주지 혜문 스님도 청소년 · 간호사들과 같이 방문했다. 혜문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떡과 과일 등을 공양하고 주방용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스님이 직접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기도 했다.

그린비 조용호 회장(동대부고 2)은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같이 맞아주셔서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웠다"며 다음에도 꼭 봉사활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불청련은 사무실을 종로구 낙원동 141번지 내인빌딩 802호으로 이전했다. (02)735-8165


"할아버지,할머니! 함께 춤춰요." 그린비 청소년과 간호사들이 어르신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발,마춤형 제작

방한용부츠
보아털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5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 무 명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전주 상운각 063)274-6639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신 수 비 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인생은 좋은 것? 나쁜 것?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겨울이네요. 수능시험도 끝났으니 이제 입시생들은 입학원서를 들고 동분서주하겠군요. 내년에 수험생이 되는 학생들은 이번 겨울이 아주 새로운 각오의 시간이 되어야 할거구요. 학생들에게 생활계획표를 잘 짜고 실천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계획표가 촘촘하지 못하고 '어레미' 같으면 생활도 '어레미논'처럼 메마르기 십상이니까요.

신소리 : 상대편의 말을 슬쩍 받아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구경꾼들은 신소리를 해대며 웃었다.)<하근찬, 야호>

수멍 : 논에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하여 둑이나 방축 따위의 밑으로 뚫어 놓은 구멍.

어레미 : 바닥의 구멍이 굵은 체.(구멍이 굵은 어레미로부터 가는 체까지 이삼십 개는 돼 이는 체를 쳇바퀴에 달린 고리로 둥글게 이어서…)<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어레미논 : 물이 괴어 있지 못하고 금방 흘러 내려가 버리는 경사진 곳의 논.

희떱다 :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두 손 털고 나서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마당에 번연히 갚지 못할 것을 갚을 듯이 희떠운 소리만 한다면…)<염상섭, 무화과>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모파상 作 '여자의 일생'

모파상의 대표작 <여자의 일생>은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꿈과 희망에 찬 수도원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결혼에 의한 환멸, 남편의 배반과 죽음, 자식에 대한 실망 등 현실과의 접촉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멸을 맛보는 한 여인의 일생이 노르망디의 고원(高原)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소명(昭明)하게 그려져 있지요.

선량하고 낭만적인 남작 부부의 외딸인 잔느는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청순한 몸으로 부모가 정해준 이웃 청년 쥴리앙 라마르와 결혼한다. 남편은 겉보기와는 달리 금전과 정욕에만 관심을 갖는 인간이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꿈꾸던 잔느의 꿈은 깨진다. 신혼여행에서는 육체를 통한 사랑도 있었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부터는 침실도 따로 따로 갖게 되었다. 남편이 하녀 로잘리에게 손을 대어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이 무렵이다.

잔느는 자기가 낳은 아들 폴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다. 남편은 프르빌 자작 부인과 목장의 이동마차에서 밀회를 즐기다가 프르빌 자작이 마차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죽는다. 그 후에 잔느는 폴에게 모든 애정을 쏟지만, 폴은 방탕아가 되어 엽색과 낭비를 일삼는다. 급기야는 어느 여자와 도망쳐 버린다. 부친 장례식에서 의식을 잃은 잔느는 땅도 집도 다 팔고 어설픈 새 집으로 옮긴다.

폴에 대한 사랑, 아들을 빼앗은 아들의 정부에 대한 질투에 시달리던 잔느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찾으려고 파리에 갔다가 돌아온지 얼마 안 되어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아들의 정부가 딸을 낳고 죽어가지만 유모를 댈 돈도 없다는 것이었다. 하녀 로잘리가 파리에 가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 여자는 죽고 폴은 내일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손녀를 안고 마차를 탄 늙은 잔느의 몸에 어린것의 열이 스며온다. 그녀는 갑자기 무한한 감동에 사로잡힌다.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
사실적 · 객관적인 묘사 주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으로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작품에는 확실히 줄거리의 진전에 있어서 필연성이나 일관성의 결여 등 몇몇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읽은 뒤에 받는 깊은 감동은 이것이 여자의 일생을 묘사한 수많은 작품 중에서 걸작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에요. 작가는 다소 심리적인 수법을 원용해 가면서 불행과 비참으로 기울어져 가는 잔느의 생애를 리얼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읽고 난 뒤에 우리가 통절히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 고립이라는 것이죠.

말미에 가서 주인공이 오랜 불행과 비참에서 일거에 구제되고 광명을 찾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녀인 로잘리가 한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군요"라는 말은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해답 구실을 하고 있어요. 독자들도 이 대목에 이르러 비로소 이 작품이 주는 침울한 인상에서 해방되고 구제된 듯 한 기분이 들죠. 아마 작가 자신도 이런 결말을 줌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려고 한 것이겠지만요. 인간 관찰가로서의 그의 통찰력 있는 눈이 포착한 인간의 모습은 또 다른 것이었죠. 즉 코르시카 여행에서 잔느가 처음으로 진실한 부부애를 깨닫기 전 작가가 그녀에게 고백시키고 있는 "두 사람의 인간이 영혼까지, 마음 속 깊이까지 완전히 합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도저히 구제될 수 없는 고독한 인간이었죠. 이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현상이란 대단히 위험스런 일이라는 가설을 증명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활이라는 피치 못할 숙명적 과제를 수놓는 많은 만남들, 외로움과 고독, 이별과 죽음, 배신 등등의 장신구들을 모파상은 특유의 섬세하고 유려한 문체로 풀어내 보이고 있어요.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일, 한 여인의 생활을 그려내 보임으로써 그는 인간의 생에 내포된 철학적 문제의 버거움으로 독자를 짓누르고 있네요.

그 청순한 잔느가 힘없는 노파로 그 쇠약을 더해감에 따라 점점 더 생각이 줄어들고 힘없는 관조만이 남게 됨을 소설을 읽으며 느껴보세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저는 외모도 별로고 집에 돈도 없어요. 친구들을 보면 다들 저보다 잘난 것 같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요. 왜 저 혼자만 이렇게 못난 것일까요?(ID: 슬픈여자)

친구에게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의 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겠어요?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은 무엇이나 들어줄 수 있는 '신'이었답니다. 여인이 무엇을 파느냐고 묻자, 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 먹었지요. 여인이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라고 하자 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지요."

여인이 사고 싶어했던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또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열매로 맺을 사람은 신이 아니라 자기자신입니다. 제가 보기에 친구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는 아직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자신의 행위 즉, 씨앗에 의해서 행복과 평화, 지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열매 혹은 불행, 어리석음, 두려움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금화사 어린이청소년 지도법사 효장 스님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옴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 옴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특별할인가격 79,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옴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옴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발아치 보강 기능
• 체중 분산기능
• 충격 흡수기능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라꾸라꾸 접이식 침대
• 강한 내구성 • 80°등받이 각도 • 공간활용 • 쉽고 편한 이동성

라꾸라꾸 접이식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적인 접이식침대와는 달리 60 ℃를 넘나드는 온열기능과 등받이의 각도 또한 80 까지 6단계로 조절되는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라꾸라꾸의 명성에 더욱 걸맞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상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



간단하고 편리한 접이식 침대의 대명사!
작은방, 원룸, 오피스텔, 학생용, 하숙방, 경비실, 현장, 병원, 야외용으로 최고입니다.

활용성과 경제적인면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이제품은 매트의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에 간편하게 접어서 이동할 수 있어 여행시나 낚시등 야외, 콘도에서도 사용빈도가 높다고 한다. 주문시에는 완전조립하여 배송하며 평생 A/S는 물론 물세탁이 가능한 전용커버를 증정한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 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구입문의 : 080-788-7878
농협 935-12-355423(박정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혜암 스님(4)

영산, 어떤 것이 화두입니까

혜암, 봄날에 닭이 우느니라

영산, 어떤 것이 禪입니까

혜암, 신령스런 거북이가 날개를 펴느니라

영산(靈山) 스님이 하루는 수덕사로 혜암(惠菴, 1886~1985) 조실스님을 찾아왔다.

-문:어떤 것이 화두입니까?

-답:봄날에 닭이 우느니라.

-문:어떤 것이 선(禪)입니까?

-답:신령스런 거북이가 날개를 펴느니라.

-문:어떤 것이 성인(聖人)의 말입니까?

-답:옛 부처(古佛)가 지나간지 오래니라.

-문:어떤 것이 사구(死句)이며, 어떤 것이 활구(活句)입니까?

-답:벌써 죽었느니라.

영산 스님은 절하고 물러갔다.

<벽암록>에 '청풍은 땅을 두루 도니 무슨 한계가 있으랴(靑風匝地有何極)' 하는 구절이 있다. 청풍은 걸림이 없고 한계가 없어서 한정도, 차별도 없이 누구의 창문에도 불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수행자는 진리의 암호인 화두를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찾고 구하지만, 진리는 '봄날 아침에 닭이 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자명해서 누구의 눈이나 귀에 뜨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실상(實相)을 보고 듣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로지 자아로부터의 인식, 즉 자기 본위의 소견인 아견(我見) 때문에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극락은 십만억토(十萬億土)의 피안에 있다'고 하지만, 분별 · 망상을 여읜 무분별지(無分別智)로 보면 극락은 바로 눈 앞, 최단거리에 있다. 경봉 스님의 "눈을 떠~ 들어서 보마 다 아는기라!" 하신 말씀처럼, '목격도존(目擊道存)'인 것이다.

이처럼 '신령스런 거북이가 날개를 펴는' 진공묘유(眞空妙有)한 세계, 즉 진여실상의 세계는 언제 어디서나 천기(天機)를 누설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를 알 도리가 없다. 수행자가 위에서 '화두나 선(禪)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의 문을 여는 암호나 열쇠를 찾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인 셈이다.

장졸수재(張拙秀才) 선사는 "광명이 고요히 온 법계에 두루 비춰, 성현과 범부중생이 한 집을 이루었네(光明寂照遍河沙 凡聖合靈共一家)"라고 노래한 바 있다. 이 광명이나 청풍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루 불어오고 비치고 있기에 성인이나 범부라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영산 스님의 질문처럼 굳이 '성인의 말'을 따로 찾는다면 이미 분별심에 떨어진 것이다. 사구와 활구 즉, 죽은 말과 깨달음의 말을 분별하는 질문 역시, 이미 중생심에 떨어진 죽은 말에 불과한 것이다.

진리는 '닭 우는 소리' 처럼 자명

我見 때문에 실상 바로보지 못해

이와 같이,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相)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 하여 부처라고 하기(離一切諸相卽名諸佛)' 때문이다. 혜암 스님은 성인이니 범부니, 사구니 활구니 하는 상(相) 즉,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이미 십만 팔 천리나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스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알아내려는 성성(惺惺)히 깨어있는 의심으로 '돌이켜 보면(廻光返照)' 된다. 방법이라 하여 따로 찾게 되면 결국 분별심만 늘어나게 되지만 '다만 의심하는 곳'에서는 일체가 그대로 소멸되고 만다"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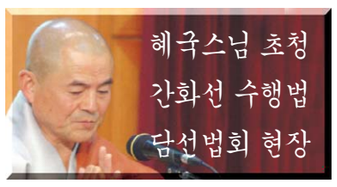
번뇌·망상 비워내고 '無心의 경지'로…

"염기념멸(念起念滅)을 위지생사(謂之生死)니 당생사지제(當生死之際)에 부진력제기화두(復盡力提起話頭)니라……나무아미타불."

11월 18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주최한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담선법회'에 500여 사부대중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삼귀의와 포교원장 인사말에 이어 이어 청법가가 끝나자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인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사진)이 나옹 선사의 화두참구법을 게송으로 읊으며 '법의 문(法門)'을 연다.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이름 하여 생사(生死)라 하니, 이러한 생사에 당하여서 다시금 힘을 다하여 화두를 들지어다. 화두가 순일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하나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하는 곳을 이름 하여 고요함(寂)이라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無記)라 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있는 것을 이름 하여 신령(靈)하다 하니, 이러히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무너짐도 잡되지도 않아서 이와 같이 공을 들이면 며칠 못가 이루어지리라."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설법과 문답을 통해 혜국 스님은 때론 자상하게, 때론 역설적으로, 때론 고함을 지르며 재가자들의 마음밭(心地)에 법의 비가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법문의 요지와 문답 내용을 요약한다.



법문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가 <원오심요(圓悟心要)>에서 윤상인(倫上人)에게 주는 편지 글을 들어 법문을 시작하겠다.

"어느 것이라도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후학을 살리는 말씀이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이 파안대소한 염화미소(拈華微笑) 이후, 조사선이 전해져 온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똑같은 부처임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다. 꽃 한 송이 든 것은 수미산이 좁쌀 속에 들어가는 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자리를 바로 일러 준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구라는 별에 참선법을 남겨주신 것은 인간 최상의 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알음알이와 분별심을 내어 그 도리를 알려고 하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질 뿐이다.

가섭과 같은 조사스님들은 말 한 마디에 곧바로 깨달았건만 지금 수행자들은 법문을 듣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지금 관문을 뚫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마음에 집착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벗어나서 무심한 경지에 이르기만 하면 모든 망령된 생각과 더럽혀진 습기가 다 없어지고 지견과 알음알이의 장애가 모두 사라질 것인데,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남전(南泉) 스님은 '평상시의 마음이 도(平常心是道)'라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일으켜 평상(平常)하기를 기다린다면 벌써 어긋나버린다."

요즘 사람들은 수미산이 좁쌀 속에 들어가는 도리를 말하면 이해가 안 간다며, 구름 잡는 소리라고만 한다. 그러나 조사스님들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밝혀 온 것은 크나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바로 허공성을 체득하지 못하는 건 마음과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참선에서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 저 허공성을 제대로 못 보면 시 · 공간이 끊어진 자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세상 만물을 먹여 살리는 이치를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생각이 움직인 것을 마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찻그릇처럼 비워진 무심이 본래 마음이다. 빈 그릇, 허공성에는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번뇌 · 망상을 비워버리면 텅빈 그릇, 무심경계가 된다. 무심경지에 이르면 망념과 습기가 없어진다. 다른 종교는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과일로 인해 인류에게는 원죄(原罪)가 있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심경지에 이르면 백천만억 겁(劫)에 지은 업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고 본다. 지옥도, 극락도, 인간세상도 내가 만든다. 내가 지은 업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화두참선을 해야 한다.

내가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7개월 동안 장좌불와를 했다고 소문이 났지만, 정작 제대로 공부 맛을 본 것은 2개월 남짓이었다. 나머지 기간은 실체 없는 번뇌 · 망상과 처절한 싸움을 했다. 번뇌 · 망상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과거생 동안 지은 허깨비 같은 업의 소산임을 알고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참다운 무심에 들 것인가. 한 방울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낙동강, 섬진강, 백마강이 바다로 들어가면 이름조차 없어진다. 허공에서는 모든 게 하나이다. 진실하지 못하고 하심하지 못하는 아상(我相)을 가진 내가 참나로 돌아갈 때가 화두 드는 순간이다. 번뇌 · 망상은 내가 걸어온 길이다.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예쁘다 밉다 하는 관념으로 지은 것이 번뇌 · 망상이다. 평상심이든 깨달음이든, 그 무엇이든 생각을 일으켜 구하거나 바라면 어긋나고 만다. 한 생각 일으킨 망상을 지우려면 모르는 곳,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한 것이 무심에서 나온, 실상을 곧바로 일러준 말이다. 이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왜, 뜰 앞의 잣나무라 했을까?" 하고 화두를 들게 되는 것이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화두를 드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 주최 '간화선 수행법에 따른 담선법회'가 열린 직지사 만덕전은 선수행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문답

문:근기와 수준에 따라 좋고 나쁜 화두가 있습니까?

-좋고 나쁜 화두란 따로 없다. 각자의 성질과 업에 따라 적합한 화두가 있을 뿐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무자(無字)' 화두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화두를 들 것이다. 이 몸뚱이가 참나가 아님을 알고 참나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발심이 될 때 선지식을 찾아가면, 근기와 인연에 맞는 화두를 간택 받을 것이다.

문:1년 전부터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었는데, 잘 안됩니다. 어떻게 화두를 챙겨야 할까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의문이 길어져 잘 안 되는 수가 있다. 만공 스님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화두를 들라고 한 적이 있다.

문:바람이 잠잠해지면 파도가 쉬게 된다 하셨는데, 어떻게 바람을 잠잠하게 합니까?

-바람은 욕망이자 업이다. 내 몸속에서 바라는 바를 화두로 바꿔야 한다. 파도는 망상의 세계요, 바다는 참 마음의 세계다. 욕망이 멎어야 파도가 쉬게 된다. 그러나 망상인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자 보리이다. 그 놈이 바로 부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문:모든 화두의 목표는 같은가요?

-1700공안은 같다 다르다,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직접 깨달아서 맛을 봐야 안다. 화두의 본래 장치는 마찬가지이지만, 같다 다르다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김성우 객원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발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RYN Walking(린 워킹)이란??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걸음걸이를 편하게 걷는 방식으로 뒷굽을 45도 둥굴게 만든워킹 신발입니다. 린 신발을 신고걷게되면 굽은척추가 펴지며,허리디스크, 관절염,발목관절,평발,다이어트,당뇨로 혈액순환이 안되는분,등에효과가 큽니다.
미국,유럽 6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린 ryn 국내 1400여개 대리점에디서든 구매가 가능합니다.


남·여공용 캐쥬얼 블랙 스포츠 198,000원(225~285mm)
남·여공용 캐쥬얼 가죽 드림 198,000원(225~285mm)
여성화 그레이 198,000원(225~255mm)
여성화 레드 198,000원(225~255mm)

RYN 원종점만의 특별한 서비스
RYN 원종점에서는 특별히 체형교정사가 신체균정으로 체형 교정 및 氣순환운동(뒷목저림, 오십견, 만성피로, 오장육부강화, 불면증, 만성두통,목디스크등에 효과)
전통手氣요법시술을 신발 구입시 1회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종점에서 백세환을 판매합니다
▪ 백세환 이란 : 국내 토종약초로 부작용이 전혀없는 약재로 만들었습니다. 당뇨환자 및 오장육부가 약한환자위,장,간 등에 염증이나 혈액순환이안되는분 만성피로, 변비등 각종약의부작용으로 속이 안좋으신분에게 좋으며 우리나라 산에나오는 천연약재로 몸의부작용이 전혀 없는 복용하기 편한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 1달분 15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1-213192 최미희

RYN Walking 효과
* 허리가 편한신발 ryn
* 관절이편한신발ryn
* 굽은척추가펴지는 신발 ryn
* 당뇨환자에게 운동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돕는신발 ryn
* 평발 ,발불균형환자도 신으면 편안한신발 ryn
* 신고걸을수록 건강해지는 보약신발ryn


RYN워킹모습 곧은 자세, 무릎 곧음
일반워킹모습 허리굽은 자세, 무릎굽힘 자세

(주) RYN 코리아
부천 원종점 032)676-4906
핸드폰 016-703-4906 이병철팀장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 '인생 도화지'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㊵ 달라진 내 모습 비결은 '감사'

감사를 몰랐던 마음

"수업 시간에 감사한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난후 달라진 저의 모습입니다"라고 대학생 J양이 해준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감사함의 중요성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는 평소에 남에게 감사함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우선 생각해 보니 나를 낳아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조차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다. 그 동안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시는 것, 아침마다 깨워주시는 것, 청소와 빨래해주시는 것 등을 모두 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 아버지께서 돈 벌어 오시는 것, 학비를 대주시는 것도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기 실천을 해 보니 부모님이 해 주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딸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나를 위해 20년을 희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수업시간 감사한 마음 배우고 난 후
감사하는 내모습에 많은 변화 느껴

부모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매일 밤늦게 들어가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셨다. 너무 늦으면 밤에 아버지가 '지금 어디니, 언제 들어오니' 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곤 하셨다.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문득 아이고 죄송해라.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드려야겠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저 지금 학교에서 출발해요, 한 시간 반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하고 문자를 보내드렸다. 아버지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하고 답을 해 주셨다. 그렇게 계속하니 아버지께서 "우리 딸이 달라졌네" 하면서 좋아하셨다.

나는 그 동안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냥 말없이 수저만 들었었다. 어느 날 아침에 용기를 내어 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하고 말해 보았다. 어머니는 조금 놀라신 눈치셨지만 "그래, 맛있게 먹자"라고 대답해 주셨다. 조금 쑥스러웠지만 기쁘기도 했다.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전히 너무 어색했다. 그동안 살면서 부모님과 필요한 말 이외의 대화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늦게 공부하고 온다.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가 하루 세 마디도 안 되는 정도였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 한 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어색해서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마음의 입력을 바꾸면

그래서 문자를 이용하기로 했다. 드디어 하루는 귀가 전에 "엄마, 아빠. 항상 걱정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잘하는 딸이 될게요" 하고 문자를 보냈다. 보낼까 말까하고 한참 고민하고 보냈는데 막상 보내고 나니 왠지 모를 후회도 되고 너무 떨렸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괜히 했나보다' 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데 엄마가 답장을 보내셨다. "그래 우리 딸 요즘 많이 잘하고 있어. 엄마도 더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마"라는 내용이었다. 그 문자를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 후로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를 아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몰랐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들과 주위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다. 내가 숨 쉬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파랗고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이 있는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친구, 교수님 등 주위에 감사할 분들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고 싶다. 내가 좀 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사실 주위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단지 내가 마음을 바꾸고 실천한 것뿐인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입력이 바뀌면 인생의 출력이 바뀐다'는 마음의 법칙이란 것인가 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앵게시판

●조계사 '상생하는 너와 나, 삼보일배 구법순례'=서울 조계사가 12월 14일 오대산 상원사로 '상생하는 너와 나, 삼보일배 구법순례'를 떠난다. "삼보일배 구법순례는 궁극적으로 타인을 위하고 자신을 낮추기 위한 수행정진"이라고 조계사 측은 설명한다. 조계사에서 마련한 삼보일배 구법정진을 통해 내 안의 불성을 발견하는 구법여행을 떠나보자. 오전 6시 30분 조계사 일주문 앞 출발. 동참비는 3만원이다. (02)732-2187

●월정사 동지기도=평창 월정사가 12월 22일 동지기도를 봉행한다. 적광전에서 봉행될 동지기도의 동참금은 1만원이다. 월정사는 최근 건립하고 있는 선원 삼성각 불사에의 동참도 기다린다. (033)332-6661~2

●불교영어도서관 청안 스님 영어법문=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불교영어도서관에서 청안 스님(헝가리 원광사 주지)이 특별 한국법문에 나선다. 'One Mind-One Chance:일심 즉방문' 주제의 법문은 11월 28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2월 3일 '운명과 자유의지', 5일 '마음과도'로 이어진다. 12월 1일 오후 5시에는 스리랑카 아상가 틸라카라트네 교수(연세대 사회학과)의 초기불교강좌 'The Basic Teaching of Early Buddhism' '현대삶에 적용한 부처님 가르침' 강의가 진행된다. (02)730-0173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양산 통도사가 53일간 53선지식과 함께 벌이는 화엄법석이 대중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주는 11월 28일 평상스님(前 금산사 주지)-현수품2, 29일 종광 스님(기림사 주지)-승수미산정품 외, 30일 지현 스님(송광사 율원장)-범행품, 초발심공덕품, 12월 1일 덕민 스님(불국사 강주)-명법품 외, 2일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10행품, 3일 광우 스님(통도사 강사)-10무진장품 외, 4일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도솔궁중게찬품 등의 법석이 이어진다. (055)382-7182

●해동용궁사 11월 성지순례=부산 해동용궁사가 11월 29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인 영월 법흥사와 보덕사 성지순례를 떠난다. 보덕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절로 단종과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전 6시 30분 부산역 아리랑관광호텔 옆에서 집결해 출발한다. (051)722-7744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7>

행동주의와 불교-5

행동주의 상담 기법 가운데 '조성(shaping)'은 스키너의 학습 이론인 '조작적 조건형성'을 응용한 것이다. 복잡한 행동 목표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그 행동에 접근하는 모든 행동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각 소단계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다. 내담자의 여러 행동 중 상담자가 바라는 행동에 대해서만 강화를 주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강화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둘기 두 마리가 탁구를 치게 훈련시킬 수 있다. 훈련의 최종 목표인 '비둘기의 탁구치기'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흰색 줄을 가로 그어 놓고 한쪽 비둘기가 주둥이로 탁구공을 굴려 넘기면 맞은편 비둘기가 받아 넘기는 형태라고 치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탁구공을 쪼는 행동, 공을 옆으로 혹은 상하로 미는 행동, 밀어내되 흰색 줄을 넘기는 행동 등 비둘기가 탁구대 위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몇 개의 소단계로 구분한다.

조성은 스키너의 학습 이론
내담자 의지 반영되지 않아

훈련자는 스키너 박스에 탁구공과 같은 색, 같은 크기의 창문과 같은 장치를 비둘기의 주둥이 높이에 마련한다. 그리고 비둘기가 창문을 주둥이로 쪼면 먹이 그릇에 콩알이 나오게 해 놓는다. 이를 통해 비둘기는 창문을 쪼는 행동을 강화 받게 된다. 이 행동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쪼는 것만으로는 콩이 나오지 않게 하고, 밀어야 콩이 나오게끔 한다. 즉 쪼는 반응은 소거시키고 미는 반응을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흰색 줄을 넘겨야 비로소 콩이 나오게 한다. 이렇게 되면 미는 반응은 소거되고 길게 선을 넘기는 반응이 강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최후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소단계를 순차적, 점진적으로 달성하여 전체의 원하는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조성은 동물 훈련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상담 기법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12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는 학생이 있다고 하자. 이 학생이 하루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그 목표 행동에 이르기 위한 많은 소단계를 설정한다. 첫 번째로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두 번째로는 공부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며, 세 번째로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네 번째로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게 하며, 다음으로는 30분 동안 공부하게 하고, 이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으로 늘려 나간다. 이렇게 행동이 습득되기까지 계속 강화를 주는 것이다. 강화물로는 동물과 달리 1차적 강화물인 음식뿐만 아니라, 2차적 강화물인 돈, 사회적 강화물인 인정과 칭찬 등을 동원한다.

위와 같은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상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담자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동물 훈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인 내담자 역시 '학습되는' 피동적 존재이지, 자신의 의지를 발현하여 '학습하는' 능동적 존재가 아니다. 목표 설정도 상담자가 하고, 방법 설계도 상담자가 하며, 훈련 시행도 상담자가 한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이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가는 '대상'일 뿐이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업을 지어가고 그 업의 결과인 과보 역시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는 불교의 인과 사상과 정반대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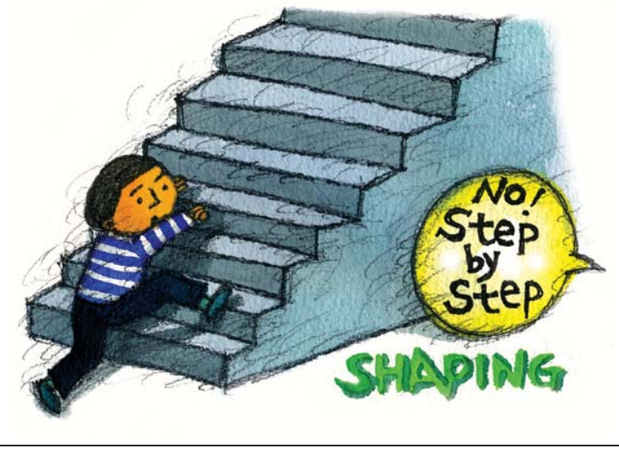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석청은 빵에다 발라먹는 일반 꿀이 아닙니다



네팔산 석청은
수백년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꿀"을 말하며 깊은 산의 절벽이나 바위틈에서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왕벌이 만들어 내는 야생꿀이다. 네팔과 티벳의 접경지역인 해발 3500-40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벌이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사나운 벌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한다. 고질병 치료, 강장식품이며 세포생성, 노폐물 제거등 명약으로 알려져 네팔왕국에서 국가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답례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 급 처 : 네팔왕실-국립히말라야 석청연구소
국내보급처 :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군경스포츠연맹

석청의 효능은?

석청에는 일반 토종꿀에 비해 비타민, 토코페롤, 칼슘, 게르마늄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과당, 포도당, 칼륨, 아미노산, 무기질 등 70여 가지의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런 이유로 꼭 약용이라는 부분을 떠나 일반 강장식품으로도 복용할 수 있다. 또한 석청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생리작용이 원활해져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허열이 제거되고, 눈에 띄게 건강이 회복된다. 네팔 왕실 산하의 '히말라야 석청 연구소'에 따르면 석청은 현대인의 불치병인 암, 만성신경통, 혈액순환 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중풍, 야맹증, 간염, 두통,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복용 사례에도 불치병인 암, 몇 년째 어깨가 결렸던 견비통, 만성신경통, 치질, 변비가 석청을 복용한 후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석청은 일반 꿀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및 빈혈 예방, 피로회복, 불면증 해소, 숙취, 기침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00년 이상 된 석청은 네팔 내에서도 구경하기조차 힘이듭니다. 아마 한국의 심심산골에서 몇 백년 된 산삼을 찾는 일에 버금가는 희귀성이 있을것입니다.
가격 또한 엄청나서 이런 석청을 발견하면 빠랑게가 사는 고산족 마음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만 워낙 귀한 꿀이라 네팔 전역에서 1년에 한 두번 발견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네팔에서는 참석청을 구하기 힘듭니다. 참석청은 1kg에 250만원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취급하는 석청은 등외급입니다.

※ 아래의 보급 석청은 참석청입니다.

● 서울 02)3436-7845 ● 중부 031)634-3519 ● 대구/경북 054)464-4735 ● 부산/경남 051)782-9386
문의 010-2039-5288, 010-5031-1355, 010-9015-9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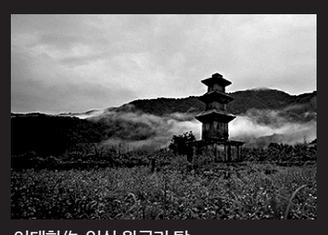
석청보급가액 중 일부는 네팔 불우아동들을 돕기 위해 적립됩니다.
석청 3병 이상 구입시 석청 채집 CD 1장을 보내드립니다.

불교문화재 역사 한눈에

2色 사진展


정해창作 근대서울의 모습.


이태한作 탑파.


이태한作 익산 왕궁리 탑.

렌즈에 담은 불교문화의 美

정해창 사진展 '벽의예찬…'

일민미술관서 내년 2월 3일까지

지금처럼 비디오가 없었던 시대에 사진은 예술이자 하나의 역사다. 사진과 역사와 예술이 한데서 만나는 사진전 두 개가 열린다. 모두 빛바랜 흑백 사진이지만 단순한 감상 차원을 넘어 한국 불교문화재의 역사와 사진사를 연구해 볼 만한 작품이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내년 2월 3일까지 열리는 정해창 탄생 100주년 기념 '벽(癖)의 예찬, 근대인 정해창을 말하다'가 바로 그것이다. 정해창(1907~1968)은 불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범상치 않은 사진작가이자 근대 전방위적 예인이었다. 1929년 국내 최초로 예술사진 개인전을 열었던 그는 그림과 전각을 했고 불교미술 연구에도 매진해 불교미술이론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눠 1부에서는 1929년부터 1939년까지 그가 찍은 사진 500여점 중 일부를 골라 소개한다. 그의 사진은 근대기록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인물화, 풍속화, 산수화, 화조영모화 등 전통회화의 양식을 응용한 사진을 주로 찍었고 자신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겼다. 그가 직접 인화한 빈티지 사진 120여점이 전시된다.

2부에서는 근대 전각의 양대 산맥이던 오세창과 김태석을 사사한 그가 1941년 화신백화점에서 '서도전각전'을 열면서 서예가와 전각가로 활동했던 시기의 작품들을 보여준다.

또 그가 1953~1957년 전국을 답사하면서 촬영한 불교미술 관련 사진 2483점이 수록된 불교미술사진첩 5권도 국내 최초로 발굴해 소개한다. (02)2020-2055

이태한 사진展 '일어서는 침묵…'

김영섭사진화랑서 12월 1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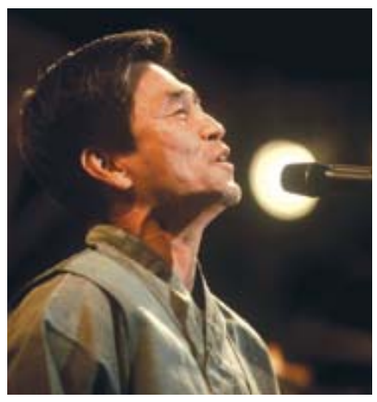
12월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김영섭사진화랑에서 열리는 '일어서는 침묵-한국의 탑파'도 사진과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수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15년 동안 탑 사진만 고집해 온 이태한 여주대 교수. 탑의 의미와 미학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별도로 불교미술을 공부했을 정도다.

그는 탑을 클로즈업해 탑 자체에만 매달렸던 기존 사진작가들과 달리 사진에 과감하게 풍경을 끌어들였다. 탑의 배경을 이루는 주변 풍경과의 조화는 화면을 충만하게 한다.

그 풍경 덕분에 탑의 역사도 함께 느껴진다. 익산 왕궁리 석탑(국보 제289호)을 찍은 사진을 보면 석탑 앞의 억새들이 세월의 무게를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건 1000년 세월을 건너온 역사의 흔적이다. 그 흔적은 풍경과 어울리면서 회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예술의 경지로 올라섰다. 우리 전통 석탑과 그 주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하는 전시다. (02)733-6331

김주일 기자



소리꾼 장사익 전국투어

우리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사진)이 전국 투어에 나선다. 지난 6월 미국에서도 호평을 얻은 장사익의 '사람이 그리워서' 공연이 12월 4일 창원 성산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안양문예회관(12월 14일), 김해 문화의전당(25일), 성남아트센터(29~30일) 등 네 곳에서 연이어 열린다.

'사람이 그리워서' 공연은 정겨운 시골장 풍경을 노래한 5집 음반의 타이틀곡인 '시골장' 중에 나왔던 가사 '사람이 그리워 시골장은 서더라'의 대목에서 착안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들에서는 그의 대표곡 '찔레꽃', '허허바다'와 5집 음반에 담긴 '시골장', '황혼길' 등이 음성공양 된다. (02)396-0514.

불자 산악음악인 신현대 솔로데뷔 20주년 기념공연

불자산악음악인으로 잘 알려진 가수 신현대(51)가 솔로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신현대는 11월 29 · 30일 양일간 서울 안국동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현대 산노래 콘서트'를 연다. 신현대는 가수로는 세계 최초로 마테호른과 돌로미테, 엘부르즈를 차례로 등정한 산악음악인으로 유명하며 지난 1988년 '난 바람 넌 눈물'로 데뷔해 '보고픈 그대 얼굴' '그래 잊자' 등을 히트시켰다.

신현대는 이번 공연에서 '설악가' '아득가' '설악아 잘 있거라' 등 대표적인 산 노래들과 창작 산 노래인 '인수봉' '즐거운 산행길' '산행가'를 열창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희준, 이현조씨 등 산악인들을 추모하는 작은 무대도 마련된다. (02)2011-1994

탕카 속 '신비로운 여신들' 만난다

화정박물관 '티베트의 여성보살전' 내년 4월 27일까지

티베트 불교미술에서는 다양한 여신들이 자주 등장한다.

티베트 여신들은 장수(長壽)나 재운(財運)을 주관하기도 하고 수호신이나 구원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티베트의 대표적인 여성보살로 유명한 '타라'는 관음보살의 배우자로 간주돼 즐겨 표현됐다.

티베트 불교그림인 '탕카' 컬렉션으로 유명한 서울 평창동 화정박물관이 티베트 여신들을 주인공으로 한 탕카만을 모아 '산 위의 여신들-티베트의 여성보살전'을 열고 있다.

내년 4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화정박물관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소장품 대공개 전시의 두 번째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백색타라'다. 면본 채색을 한 이 작품은 무병식재(無病息災)와 연면장수(延命長壽)


바스다라


백색타라

등과 관련이 있다. 보통 티베트에는 백색과 녹색의 두 타라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백색타라를 선보인다.

부와 재보(財寶)의 상징인 '바스다라' 여신도 벽에 걸린다. 대중적으로 널리 인기 있는 여신 '바스다라'는 티베트 사원 벽화와 스투파 옆면 등에서 자주 목격된다. 이외에도 관음보살, 밴딴보살도 함께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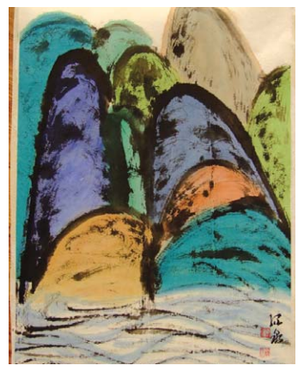
'탕카'란 일반적으로 티베트의 불교회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면직물에 광물성 안료와 금니(金泥, 금가루를 아교에 갠 물감)로 그리는 탕카는 다른 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티베트 특유의 불교미술이다. 탕카로 그려낸 티베트 불교의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채색기법은 세계적으로도 독창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전시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 차례의 연속된 탕카 특별전인 '탕카의 예술 Art of Thangka' 전의 두 번째 전시이다.

화정박물관 학예실 백은경씨는 "한국 불교미술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지만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여신'은 대중적이고 친숙한 주제이다"며 "이번 전시 기획을 통해 티베트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75-0122

김주일 기자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㉗



보리암-한려수도를 비단처럼 깔고 있는 금산 38경의 명승에 자리한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 경내에는 원효가 쌓았다는 3층 석탑과 이성계가 머무르며 조선건국의 염원을 빌었다는 기도처가 오롯이 보존되어 있다.

금산 보리암

-장인성 시인

참, 눈부시다
보리암 발 끝에 반달처럼 걸려있는
한려수도 한자락
눈이 부셔 눈을 감고 바다를 내려본다.

바다위에 드러누운
보리암 삼십팔경,
불법(佛法)에 드는 길이
참, 눈부시다.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정가 ~~90,000원~~ → 특가판매 60,000원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메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전화 02)737-0695 / 02)2004-8237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예금주:(주)에이치비엠씨



나라는 욕심이 없으면 싱그럽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한번 이런 점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전에 나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3년 동안을, 거리로 다니는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국수를 서로 사 먹으면서 한 3년 그렇게 쫓아다녀 봤습니다. 낮에는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저녁나절이 되면 그 사람네들을 한번 검토해 본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얻어오고 훔쳐가지고 오지 않으면 막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양냥이뼈가 어그러지도록 매 맞는 애를 봤습니다. 그 추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지고 들어가면 되나 하고 어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혹혹 불면서 깡통을 옆에 놓고 돈을 세는 걸 봤습니다. 돈을 세어서 얼마는 다른 데 넣고서 고거 몇백 원 남는 것을 입이라도 축이려고 주머니에다 넣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새끼들이 남의 새끼입니까? 언제 내 새끼가 될는지, 언제 내 부모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아니겠으며 어느 아픔인들 내 아픔 아닌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나는 걔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전체 벌레까지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춥고 배고파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죽어서 딴 모습으로 가면 시궁창도 돼지우리도 좋은 집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욕심이 꽉 찼으니 볏짚단도 금으로 보일 수밖에. 볏짚단도 금으로 보이고, 누렇게 마른 풀들도 금으로 방석을 해놓은 건 줄 알아! 그러니 좋아서 그리로 들어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고로 눈이 어둡고, 그릇된 행을 저질러서요. 똑바른 밝은 눈을 갖는다면, 한마음의 청눈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겁니다.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요다음 또 쳇바퀴 돌듯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 또 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 몇 바퀴나 돌아왔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 드릴까요? 잘 생각하세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그 고기 한 점을 보고서 고기로 보았습니다. 한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생(四生)의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생의 그릇 즉, 소 한 마리로 보았다 이 소립니다. 소 한 마리로 보이니까,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면 사생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생각 하나에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기 한 점이. 그래서 그 고기 한 점을 딱 보는 순간에 소로 몇 바퀴나 돌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로만 몇 바퀴 돈 게 아닙니다. 짐승으로 얼마나 돌았으며, 얼마나 쫓고 쫓기고 먹혀왔으며, 이렇게 돌아왔는가 하는 걸 한 눈에, 한 찰나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 입에다, 보는 순간 벌써 자기는 요리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탁 해치워 버린 겁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치워버렸으나 자기가 됐더랍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소 한 마리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았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선 안 됩니다. 소 한 마리를 다 먹고 보니까 자기가 돼버려. 자기가 됐으니깐 두드러지지도 않았지? 자기가 또 거기서 소 한 마리를 꺼내니깐, 소를 꺼내도 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으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를 넣었는데 사람으로 생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꺼냈어도 소의 사생이 들은 그릇이나 사람의 그릇이나 똑같이 그 사생은 마찬가지나, 차원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짐승이라는 거하고는 달라. 소라 하면 새끼를 두 마리도 낳고 세 마리도 낳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드물어!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아, 90% 100% 다. 그렇지만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로 낳는 사람도 있긴 있지.

내가 나라는 습성, 각각! 한마음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이치를 모르고 각각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낳죠? 알도 많이 낳고 새끼들도 많이 낳고, 이런 거는 벌써 내 마음 속에 흐르는 피의 그 생명들이 내가 나라고 하고 싸우면서 서로 나오거든. 서로 나와! 양보심이 없어! 양보심이 없으니깐 그냥 나올 수밖에. 다섯도 좋고 넷도 좋고 열도 좋아.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 양보성이야.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리다' 하는 양보성이 있어. 그래서 불성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독특한 생명이다 이거야. 고등생명이다 이거야. 고등동물이다 이거지. 생명은 다 마찬가지지만 차원이 말이야.

내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네, 말을. 사방팔방으로 길이 있어서 이리로도 들어갔다가 저리로도 들어갔다가 이러거든, 그냥. 그러니 하하하, 양해하시고 깊이 잘 들어주세요. 그 뜻만 알면 되니깐요. 나는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기웃거리면서 얘길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골목 골목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전력에 바로 전부 가설이 돼 있으니깐요. 그걸 법망이라고 한답니다. 이 공중의 법망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들으세요. 어느 골목을 들어갔었는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그래서 생명 자체가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생각을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의해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에 얽히고설킨 게 그냥 몰락 벗어지는 겁니다. 벗어지느냐, 더 지지하게 짊어지고 다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놓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원통합니까? 이 몸뚱이가 공(空)해서 한 찰나에 살다가 한 찰나에 구름이 흩어지듯 흩어지는 몸뚱이,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욕심 때문에. 나라는 욕심이 없다면 싱그럽게 사실 수 있을 텐데, 한 찰나찰나 사람이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고, 넓게 일할 수 있고 지혜의 샘물은 골목 골목에서, 그 샘물이 말입니다, 솟아 흐르듯이 좋은데 말입니다, 싱싱하고 좋은데. 이걸 모르시고선 자꾸 몸 하나에 끄달리니 전체에 끄달릴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겁니까? 여러분 몸속에 수만 생명이 들어 있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피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살 속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움죽거리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제일이라고 할까요? 그 중생들이 다 받쳐줘서 내가 이렇게, 부처가 떡 눈, 코가 의젓하게 달리고, 손발이 턱 있어서 평발을 해가지곤 턱 딛고 다니면서, 그래 내가 제일이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그렇게 딛고 다니게 해드리는데 상구보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화중생은 모르고요?

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이것이, 내가 태어난 태초고, 나로 태어난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화두지 남한테 '무(無)'자 화두를 받는다, '이 뭣고?' 화두를 받는다 해서 실과를 익게 할 수 있을까요? 남한테서 따온 실과는 무르익지 못합니다. 딴 나무에서 따온 실과이기 때문에, 제 나무에서 익지 못한 실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고 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썩습니다. 내 나무에서, 잘났든 못났든 내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야 만 가지 맛이 납니다. 만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 도리를 아신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의 법을 그대로 쓰시고, 유의 법이 둘이 아니게끔 쓰시는 까닭에 이름 해서 보살이라고 하고 이름 해서 법신(法身)이라고 하고, 이름 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도 차분하게 못했지만, 앵커리지에 처음에 가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도 급급하고 여유가 없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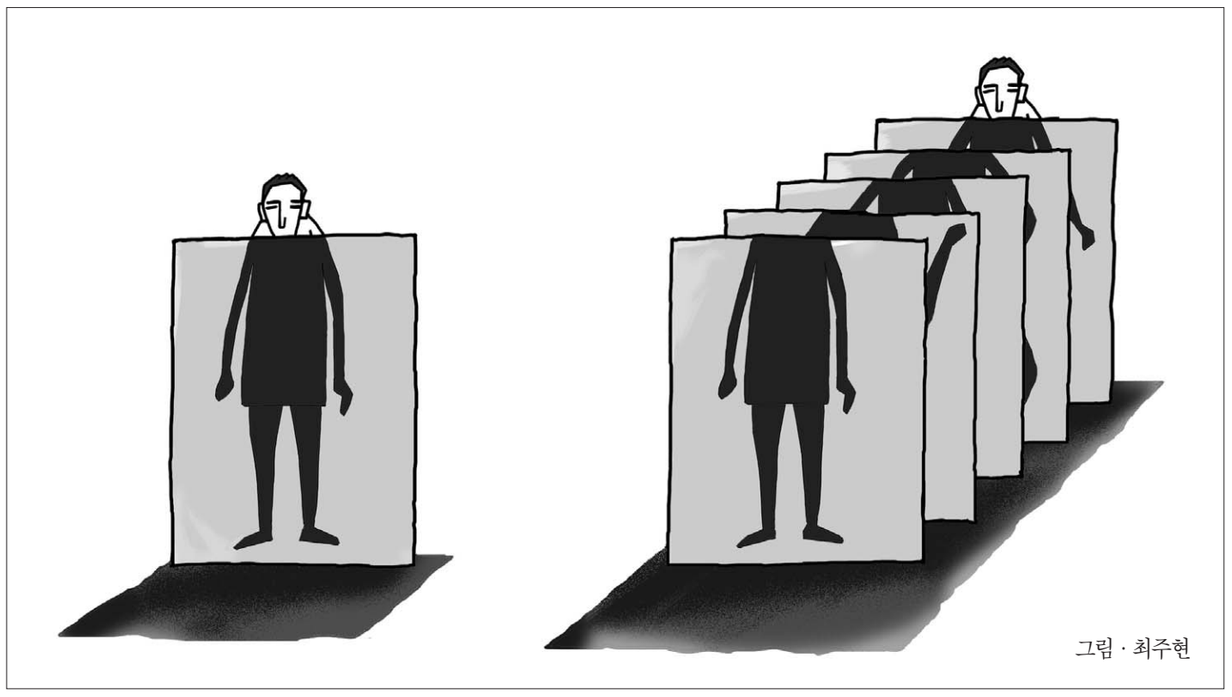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놀라운 건강법! 氣血순환법 강좌

www.chgg.co.kr

고혈압,동맥경화 걱정없다.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만성두통, 수족냉증,
불면증, 우울증, 하지정맥류, 생리통을 氣血순환법으로 날린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5일이면 OK!

진통제 없이는 살수 없는 수십년된 만성두통 5일이면 쾌유!
5일안에 쾌유되지 않으면 수련회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 氣血순환법은 –

도가에서 수천년간 비전되어온 수련법으로써 몸 안에 최대한의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숨이 차지 않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피를 맑게하여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지방지회 모집중※

– 氣血순환법강좌 안내 –

5일 코스(12시간 완성)
오전반 : 10시 ~ 12시 30분(월~금)
오후반 : 14시 ~ 16시 30분(월~금)

1993년 창립
천일의학기공 본회: 02)3436-3206~7

천일의학기공을 만나는 날은 횡재하는 날입니다.

– 창립 15주년 특별이벤트 –

수련회원에 가입하시면
○정화기 무료 증정!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놀라운 반지!
강력하고도 놀라운 「태양에너지」반지를 증정!

북한에서는 이 반지를 빛삼(빛의 산삼)반지라고 부르며 사향보다도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과학영화를 통해 소개한 ○정화기!

《메스컴보도》
MBC통일전망대, KBS일요스페셜, 연합뉴스, 문화일보, 조선닷컴, 동아닷컴, 내일신문, 한국경제신문 보도

※반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손쉽게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에 뜻은 있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먼저 회원에 가입하시고 반지를 받아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 수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회원증 발급)

※전화로 신청하시면 반지나 팔찌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지방지회 ☞ 영등포지회 : 02)3662-9088 제주지회 : 064)742-6467 수원지회 : 031)298-1777 영주지회 : 054)637-9810 부산진구지회 : 051)553-3113 부산연제구지회 : 051)758-8275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놓지 못하십니까!

☞19면에서 계속

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하루 종일 나갔다가 아침에 퇴근을 하고, 부부가 다 밥벌이를 하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나갔으면 저녁에 들어와서 같이 오순도순 애들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들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러니 내가 보기는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네들은 이럭하고도 살고 싶소? 아니, 산다고 하오? 바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편안하오?" 하니까 "편안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부지간에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것도 살맛나는 살림인가?" 내가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니 어떡합니까? 내가 아침에 밤일을 하러 나오면 남편은 낮에 나가니 일 주일에 두 번 만나기 어렵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다가도 낮에 같이 일을 나갈 수도 있고 밤에 또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이렇답니다. 그러니 참, 나는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촌놈이 돼서 그런지.

애들도 그냥 한국말을 하는데 반말을 해요, 아예 반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외국말이 반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말이 반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중 웃음) 그저 모두 반말이에요. 모두 한국말을 하면서도 반말을 해요. 외국 사람이라면 그건 그렇다고 보지만 아, 이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렇게 반말을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지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본위를 따라서 지조가 있어야지 그렇게 지조가 없어서 쓰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지조가 없느냐고 합디다. 그래서 아니, 늙은이를 봐도 '이랬어 저랬어' 하고 애를 봐도 '이랬어 저랬어' 하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런 지조가 없는 사람이 어딨느냐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지조 없는 사람 난 못 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려면 스님이 오래 계셔주셔야 될 겁니다, 이러는 거라. (대중 웃음) 아니, 스님이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을 가르칩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 사람이 거짓말 보태서요, 100명입니다. 그럼 50명이죠? 하하하. (대중 웃음)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외국 사람이 몇 명도 어려울 텐데 한 50명이 왔다고 합디다. 모두 합해서 그저 한 60명, 70명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영어는 잘하는데 말입니다. 불교 용어를 모르니까 내 말을 받아서 통역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쉽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요, 글쎄. 어렵게나 뭐 말합니까, 어디? 내가 본래 그렇게 거드름피우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쉽죠. 아, 그랬는데 통역을 해주지 못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옆의 사람한테 나는 그냥 한국 사람만 듣게 할 테니 너는 책을 읽고 종이에 써가지고 영어로 해라, 그랬죠. 아, 그럭할 수밖에 없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잠깐 하고 나왔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나는 키가 작고 외국 사람들은 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또. (대중 웃음) 아,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어깨에도 차지 않는 겁니다. (대중 웃음) 하하하. 한편으로는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마는 그래도 조그마한 고추가 매운, 톡 쏘는 기운이 있으니 너 맛 좀 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아, 키스를 하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하하하. 아, 이 머리가 빡빡 깎였으니까 키스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대중 웃음) 머리가 있으니 걱정입니까? 그냥 내려다보고 키스하면 됐지. 하하하. 참, 우스운 일이 많죠? 허허허. 그래서 이 머리는 피하고 미국 여자들하고는 여기 이마에다가 했죠, 할 수 없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속에서 웃음이 나고 한편으로는 참, 종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뭐 키 큰 사람 부럽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네들도 키 작은 거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대중 웃음) 역시 피차에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그러고 나와서 음식점에 갔습니다. 아, 그런데 음식점에 데리고 간 한국 사람더러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은 우리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음식점 주인이 미국 사람인데 당신 조카들이냐고 그러거든요. (대중 웃음) 아, 이거 또 낭패 아닙니까? 거기는 머리를 깎은 사람이 없으니까. 승려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볼 땐 그럴 수밖에요. 아, 조카들이 한국에서 왔느냐고,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이가 또, 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님네들을 모르니까요. 듣고선 우리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우스워 죽겠다고 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말입니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 허허허, 얼마나 우습습니까. '야, 머리를 깎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조카들인 줄 알았구나!' 하하하.

그럭하고 한 가지 또 우스운 게 뭐냐 하면, '혜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미국 닥터 '웨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침에는 6시부터 6시 반까지 좌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각 6시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좌선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싶어 돌아다보니까 글쎄,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쪽 뻗고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서는 앉았습니다. 그 긴 다리를 쭉 뻗고요. (대중 웃음) 아휴 참, 그 꼴이라니 그거 참 볼 만하더군요.

그렇지만 몸뚱이는 그렇게 뻗었다 할지라도 뻗은 사이가 없고, 마음이 아리땁고 그렇게 알려고 애를 써주는 그 마음씨가 고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선 싱긋이 웃고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참, 좋았습니다. 왜 기뻤느냐? 비록 다리가 아파서 구부릴 수가 없어서 뻗었으나 마음으로서는 내가 꼭 저 법을 배워야겠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를 갖다 주는데 찻잔을 이렇게 보면서 먹고선 (양 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보이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뒤를 이렇게 손을 (오른손으로 똥을 누듯이 보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더니, 먹고 싸는 걸 (오른손 주먹으로 입을 짚어 보이신 후, 똥을 누듯이 보이시고)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대중 웃음) 하하하. 그래 먹고 싸는 걸 알았으니 그쯤 알렸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인간은 먹고 싸는 거다. 하하하. (대중 웃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만물, 일체가 다 먹고 싸는 거다. 그러니 여기다가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싸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하!" (양 손으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이러면서 아주 스님네들이 좋다고 이러면서, "하!" (양 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보이시며) 이러면서, 이러면서 (오른손으로 똥을 싸듯이 보이시며), 하하하. 그리고 그 큰 몸에 과일을 아침 여섯 시면 꼭 서너 개씩 담아서 들고 옵니다, 꽃도 들고 오고.

내년에는 한국에 나온다고 합디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몇이나, 대여섯 사람 올는지 몰라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랬지 어떡합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한국 구경했느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통역을 들이대서, 한국 구경 했냐니까 "나는 한국 구경 한 번도 못 했다." 그래요. 이 자리에 나서 이 자리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낫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 왔지 않느냐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깐 그렇다고요, 우스워 죽겠다고. 그리고 거기 설산을 구경시켜 주는데, 우리 저 앞산 보여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것도 좋다고요, 아이구, 넓기는 하지만 그것도 좋다고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냥 환희심이 나서 구경시키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 다음에 한국에 오면 너 설악산 한번 구경해 봐라. 네가 놀라서 자빠질 거다.' 속으로 이러고 했죠. (대중 웃음)

그리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있는데 어느 스님이 초청을 해서 그 절에 가서 설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스님이시니까는 공안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 주장자가 기다란 게 있습디다. 법상이 이렇게 얕은데, 거기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굳이 큰스님이 거기 올라가셔야 된다고 올라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크지를 않아서 다행이지마는, 적으니깐 다행이죠. 책상 같은데 올라가기에는. 하하하. (대중 웃음) 그래 덩그머니 홀랑 올라앉아서 하하하, 그 기다란, 나보다 더 큰 주장자를 가지고 한 번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보이시며) 내리쳤죠. 하하하. 치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도량에서 스님들이 사는데,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항상 소를 가져가 논을 갈아줬는데 아, 몸이 아파서 논을 갈지 못한다고 통지가 왔으니, 너 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쟁기를 메고 논을 갈아야겠다." 하고 주지 스님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요?" 그러거든.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제자를 한 명 보냈더니만 아, 제자가 가서 영 소를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래 나중에 빈손으로 왔기에 물었더니 "오다가 하도 배가 고파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선, 네 기둥을 박고 네 다리를 매가지고선 홀딱 다 구워 먹었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까.

구워 먹고서는 절에 어슬렁어슬렁 왔으니까. "그래서요?" 구워 먹고 오니까는, 소는 안 가져오고 여태 뭐하고 있다가 이제 오느냐고 그러는 바람에, 올 때 하도 배가 고파서 동네 사람 모아놓고 다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워 먹었느냐?' 그래서 풀 갖다가 모아놓고선 구워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기둥을 박고 네 발을 매고선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선 구워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사형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이구, 이제는 큰일났다' 고…. 응? 그래, "동네에서 소 구워 먹었다고 소문이 나면 고을에서 그냥 발칵 소문이 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냥 막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뛰니까, 또 사형이 하나 있다 하는 소리가 '아, 좀 이르면 어떤가?'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 그럼 좀 더디면 어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스님이라면 뭐라고 말씀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한 그 분이 그냥 아무 소리가, 그냥 고개를 숙여 보이시며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여러분 중에서 거기의, 그 도량의 스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소 구워먹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또, 구워먹었다는 놈은 누구고 좀 이르면 어떠냐고 했고, 좀 더디면 어떠냐고 했으니 그건 무슨 까닭이냔 말입니다. 그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즉 말하자면 은사 스님으로 거기 계셨더라면 뭐라고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야단을 쳤을까요? 어떠한 말을 했을까,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무슨 연고입니까?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칠까요?

뚜바른 밝은 눈을 갖는다면, 한마음의 청눈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겁니다!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 창립 제16주년 기념법회 및 제6회 연말결산 노래자랑·축하공연

초대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댁내에 불보살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대한불자가수회 회원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 음성포교사로 봉사 해온지 어느덧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불자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대한불자가수회 창립 제16주년기념법회 및 제6회 연말결산 노래자랑·축하공연'**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1(2007)년 11월 일
대한불자가수회 회장 雲峰 김흥국 합장

- 행사안내 -

◆ **일 시** : 불기 2551년(2007)년 11월 30일(금) 오후 1시~5시
◆ **장 소** :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 **행 사 명** : 제1부-창립제16주년기념대법회(1시)
제2부-제6회 연말결산 노래자랑(2시30분)
제3부-축하공연(3시30분)
◆ **주 최** : 대한불자가수회
◆ **후 원** : 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교계신문사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출구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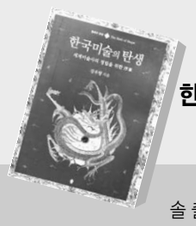
대한불자가수회 임원 및 회원

총 재 : 혜 총 큰스님
회 장 : 운봉 김흥국
고 문 : 명국환 금사향 남강수 김활선
자문위원 : 남 진 현 철 김세레나 문주란 진송남 이태원 이은하 김국환 박일준 이자연
특별자문위원 : 여운계 선우용녀 전원주 나문희 고두심 서우림 엄앵란 김용숙 송 해 권귀옥 배일집 임희준 이상벽 김병조 오재미 황영조 박지성 김남일 이동국 설기현
특별회원 : 정수라 이승철 이선희 조항조 엄정화 김민종 소찬휘 옥주현 장윤정 성시경 김종국 윤 상
부 회 장 : 현 당 오은정 유지나
감 사 : 최석준 남궁옥분
기획실장 : 이한규
사무국장 : 선선호
섭외부장 : 서상억 **홍보부장** : 김혜연 **조직부장** : 전승희
포교부장 : 이현주 **봉사부장** : 왕소연 **문화부장** : 강달님
회 원 : 임부희 나운하 박희진 오현숙 혜림이 정해진 박경진 서정현 표동이 정윤희 오나영 박정현 공영진 한미정 김귀식 춘향이 문명하 고시아 김나영 장현주 장미소 우연화 김다현 여 연 이창규 윤사월 이혜란 정도원 허 송 外 불자인기가수 300여명

대한불자가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1층
☎ 02)713-2905~6, FAX 02)713-2906, 011-730-2242(선선호국장), 011-573-0108(이한규 실장)



'영기문'으로 새로 쓰는 미술사



한국미술의 탄생

강우방 지음
솔 출판사 펴냄|9만원



어느 미술사가의 편지

강우방 지음
솔 출판사 펴냄|4만원

#새로운 조형언어의 발견

영기(靈氣). 신령스러운 기운이라는 말이다. '영기'라는 단어가 한국미술사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진원지는 강우방 前 이화여대 초빙교수(사진)다. 강 교수는 고구려고분벽화의 난해한 무늬들을 30년 이상 들여다보았고 석굴암 부처님을 10년 이상 관찰했다. 수많은 도상에 직접 채색을 해 보며 손과 마음으로 무늬를 이해했고 사찰을 비롯한 수많은 옛 건축물을 살피고 사진 찍으며 문양과 구조와 거기에 깃든 정신을 훈습했다.

누구보다 실물조사에 정성을 들이고 긴 세월을 바친 강 교수는 조형언어(造形言語) 읽기에 남다른 눈(慧眼)을 얻으며 미술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영기다. 강 교수는 '영기'라는 코드로 한국과 아시아 나아가 세계 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것이다.

강 교수가 최근 펴낸 <한국미술의 탄생>은 우리 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역작으로 꼽힌다. 책의 제목에 '탄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부터 눈길을 끈다. 강교수는 책의 첫머리에서 "이 책의 이름을 '한국미술의 탄생'이라고 한 것은 한국미술의 기원을 선사시대부터 다룬 것이 아니라 한국미술의 참모습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확신하기에 붙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기무늬 연구로써 한국미술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은 비밀

강 교수는 영기무늬의 기원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았다. 벽화를 가득 채운 문양들을 영기문(靈氣文, 신령스런 기운을 표현한 무늬)으로 읽어낸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비밀처럼 들어차 있던 그 영기문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맥을 이어 오고 있음을 파악했다. 놀랍게도 그 영기문은 불상의 광배, 사리장엄구, 건축 등에 고르게 적용되어 오늘까지 살아있는 우리의 조형언어였던 것이다.

불상의 광배에 나타나는 문양을 흔히 '화염문(火焰文)' 즉 불꽃문양이라고 일러왔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 높은 위신력을 상징하는 광배에 불꽃이 타오르는 문양이 가득하다는 것, 따져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깊은 통찰 없이 관습적으로 써 온 불꽃문양을 강 교수는 영기문이라는 조형언어로 대치시켰다. 신라의 기와편 등에 새겨진 문양을 '귀면(鬼面)문양'이라고 여겨왔지만 '용면(龍面)문양'이라고 주장해 차츰 학계를 수긍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총 27장으로 구성된 <한국미술의 탄생>은 우선 무늬연구의 중요성과 방법들이 소개된다. 무늬는 미술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생(化生)을 이야기한다. 연화화생 운기화생 영기화생 등의 개념과 동양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고구려고분 벽화의 영기문들을 분석하여 그 필연적 전개과정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몸에서 발산되는 영기무늬도 이야기하고 각 시대별 주요 유물들이 갖는 영기문의 특징과 의미 등을 살피며 최종적으로 영기와 영기문을 통해 세계미술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근거를 보여준다.

#날마다 발견하는 새로운 세상

강 교수가 <한국미술의 탄생>과 함께 내놓은 <어느 미술사가의 편지>는 그의 예술론이다. '영기론'이라는 화두를 품고 미술사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강 교수의 인식론 문예론 문화비판 감성론 등 매일 매일의 기록이다.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홈페이지(www.kangwoobang.or.kr)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들을 골라 묶은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조차 영기문이라는 틀로 사물을 대하는 강 교수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 설명

불교적 사고 출발점 제시



참불교론

군맹서진 지음
구담 펴냄|1만8000원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이 세상의 참된 이치인 진리를 발견한 부처님의 설법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참불교론>이 나왔다.

서울 서원사 주지 서진 스님이 저술한 <참불교론>은 세 가지 테마가 중심이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스님은 종교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불교적 사고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찾아낸다.

서진 스님은 "금생에 살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라. 삶에 염불을 실천해 그 인생에 항상 참된 행복이 흐르고 있다면 실패도 좌절도 괴로움도 두렵지 않다"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면 그곳이 바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이라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한다.

강지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성철	장경각
5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7	마음을 맑게 하는 부처님 말씀 108	혜자	휴먼앤북스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내 마음을 치다	윤창화	동숭동
10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저자의 진한 인간애가 곳곳 담겨

삶 속 얽힌 단상들 부드러운 필체로 풀어



그 남자의 연못

정순인 지음
교음사 펴냄|1만원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정순인씨가 붓가는 대로 쓴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그 남자의 연못>이다. 이 책은 자연과 삶 속에 얽힌 단상들을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 필체로 잔잔하게 풀어내려갔다. 그 속에는 불교적인 정서들이 많이 내포돼 있다.

가령 이렇다. 저자에게는 도반이 있다. 함께 절에 다니는 70세 노인이다. 저자와 같이 절에 가면 그 노파를 어머니로 보는 이들이 많을 정도다. 그 도반은 17년전 조카가 태어날 때 병원 도우미로 와서 저자와 인연을 맺었다. 그에 이끌려 암자를 처음 방문하게 됐고, 이후 기도처나 관광지 사찰을 함께 가 108배를 같이 하는 진짜(?) 도반이 됐다.

저자는 그래서 수행도 잘되고 행복하다고 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은 수행의 절반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부처님 말씀을 꺼내 보이며 소중한 인간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책속에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변의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자의 진한 인간애가 곳곳에 담겨져 있어 부쩍 추워지는 요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 준다.

김주일 기자

남녀노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우화 61편

재치와 해학,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



보는 것마다 당신

이현주 옮기고 씀
샨티 펴냄|1만원

인도 어느 마을 한 노인은 날마다 낡은 냄비에 담긴 진흙탕 물을 막대기로 휘저은 뒤 그 바닥에서 금덩이를 꺼내곤 했다. 하루는 호기심 많은 청년 하나가 어떻게 그런 요술을 부리는 지 물었다. 노인이 대답하길, 보통 냄비에 아무데나 있는 진흙을 샘물에 넣어 젓다보면 바닥에 묵직한 금덩어리가 뭉쳐진다고 가르쳐준다. 청년은 계속 가르쳐준 대로 해보는데 금덩이는 고사하고 손톱만한 금 조각 하나 생기질 않았다.

청년이 노인에게 다시 묻자 그 노인은 "아주 중요한 걸 자네에게 일러주지 않았구먼. 물을 휘젓는 동안 절대로 금덩어리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걸세" 〈본문중에서〉

이 책에는 이렇게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우화 61편이 들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재치와 해학,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들로, 동화작가이기도 한 이현주 목사가 찾아낸 우화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기도문의 틀에 담아 해석해내고 있다. 불교를 좋아하는 이현주 목사의 글들은 명상서적을 읽는 것처럼 읽고 난 뒤 긴 여운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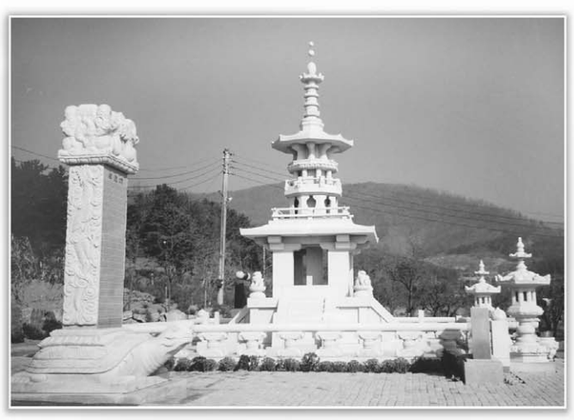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38-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석불,목불,동불,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왕목불상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금강역사석조물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제현사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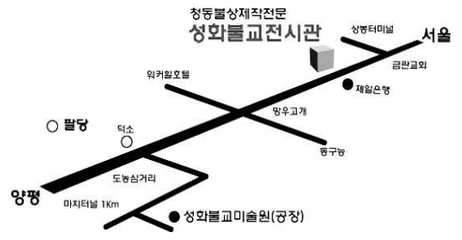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21. 배휴, 어디 계시오

배휴는 당시 제 이름을 잊었는데
裵相當時忘却名
스님이 불러주어 다시 성성해졌네
被人喚着又惺惺
포태에 생기지 않은 날에는
不知未具胞胎日
누가 감히 성령을 건성으로 대충 말하랴
誰敢塗糊此性靈 –불인원

황벽과 배휴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배휴의 무심으로 자성본원에 활연계회하는 이야기와 배휴가 깨친 이야기를 읽고 마하반야바라밀본지(摩訶般若波羅密本地)를 가름해보자.

어느 날 배상국이 들어왔다가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붙어 있는 게 무엇이오?"

"큰스님들의 초상입니다."

"초상들은 볼 만한데 큰스님들은 어디에 계시오?"

하니 원주가 말을 못하거늘, 배상국이 또 물었다. "여기에 선승은 없소?"

"예, 희운이라는 수좌가 있는데, 아마 선승 같습니다."

이에 배상국이 선사를 불러서 다시 물었다. "초상은 볼만한데, 큰스님은 어디에 계시오?"

선사가 "상공!"하고 불렀다.

배상공이 대답하자 선사가 말했다.

"어디에 계시오(在甚麼處)?"

이에 배상공이 말끝에 깨달았다(言下領旨). (<선문염송>, 권10 393칙 '形儀')

황벽이 불렀다. 배휴를 불렀다. 허공을 불렀다. 자성본원을 불렀다.

"자, 어디 계시오(在甚麼處)?"

> 오랜 관습과 합리에 의해 청정한 이름 망각한 배휴
> 황벽의 '어디 계시오?' 다그침이 본성 다시 일깨워

정말 어디에 계시오. 한 번 다그침에 배휴가 무심인 일심, 자성본원에 몰록 합일된다. 이것을 <선문염송>에는 단지 언하영지(言下領旨), 말 아래 종지에 닿았다. 영회하다로 가볍게 적고 있다.

이것은 바로 가벼울 대로 가벼워져 아무런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으니 자성본원, 무상대도, 본래면목, 일심무심이다.

앞의 게송, 1행은 오랜 관습과 합리에 의해 자성본원에 두터운 딱지가 앉아 갈무리 되어, 본래 청정한 이름을 망각하고 살아감을 말하고, 2행은 황벽이 존상의 이름에 배휴라 부른 것은 일체만물의 본래 이름을 부른 것. 곧 단말마의 진언인, '배휴'하고 부르니 이미 자성본원에 계합된 배휴는 단번에 이 도리를 간파한다.

앞의 선화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자성을 견성한 배휴의 성능은 가히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어서 번뇌망상의 사슬에 포박당할 이유가 없다. 본래 '배휴'나 '우리'나 '그대'나 '나'나 알고 있는 본래의 참 얼굴을 한 번 본 뒤에는 잊혀지지 않으니, 그렇다. 한 번 깨침은 다시 망각되지 않으니, 그나 나나 그대나 오직 모를 뿐이다.

그래서 2행에서 '불러주어서 다시 성성해졌네'라 한 것은 다시 한 번 본성을 깨우쳐 주어서, '다시 성성해졌다(又惺惺)'라고 불인원이 읊은 것은 노파심임을 알 수 있다. 3행과 4행에서 "포태에 생기지 않은 날에는(不知未具胞胎日)/누가 감히 성령을 건성으로 대충 말하랴(誰敢塗糊此性靈)"라고 노래한 것은 '어머니 배속에 '그대'나 '나'나 생겨지지 않은, 자성본원이니, 바로 기독(基督)이 말씀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의 앞이다. 이러할진대 '누가 있어 이 소식에 감히 입을 뗄 수 있을까보냐.' 이 자리는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도, 천하의 선지식도 입을 때지 못하니, 석가모니도 "말 있음(有言)도 묻지 않고 말없음(無言)도 묻지 않습니다(<선문염송>권1 16칙 '양구')" 하는 '외도의 질문에 침묵(良久)'하였고, 달마도 양무제의 질문에 '모르오(不識)'(<벽암록>1칙 '확연무성')라 했을 뿐이다.

뒷날 천동각이 위의 선화를 들어(拈) 방문한 손에게 '배상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한 후, 양구했다가 자답했다.

앉아서 자주 술 권한다고 이상히 생각말게莫怪坐來頻勸酒
헤어진 뒤 그대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일세自從別後見君稀

착어 : 만나는 곳마다 그, 내가없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㉑

열애
신달자|민음사, 2007| 값 7000원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도 '수행'

1943년 경남 거창 출생인 신달자 시인의 열두 번째 시집 <열애>에도 불교적 상상력이 풍부하다. 시집의 첫 시 '소'에서 "사나운 소"는 시인 자신이다. 이런 자신이 지금은 늙어서 살이 늘어지고 졸린 눈을 끔뻑이는, 죽음이 가까운 운명에 처해있다.

포장마차를 암자에 비유한 절창인 '저 거리의 암자'는 2007년도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도시노동자들은 포장마차에서 "잡다한 번뇌를 싣고 내리고/ 구슬픈 노래를 잔마다 채우고/ 빗된 농담도 잔으로 나눈다." 포장마차에서 "거리의 어둠이 짙을수록/ 진탕으로 울화가 짙은 사내들이/ 해고된 직장을 마시고 단칸방의 갈증을 마신다." 시행에서 "젓가락으로 집던 산 낙지가 상 위에 떨어져/ 온 몸으로 문자를" 쓴다는 감각적 묘사가 탁월하다. 시인은 "비워진 소주병이 놓인 플라스틱 작은 상이 휘청"거리는 이곳을 "한 채의 묵묵한 암자"로 비유한다.

조금씩 비워지는
잘 익은 포장마차는 한 채의 묵묵한 암자입니다
새벽이 오면
포장마차 주인은 밤새 지은 암자를 거둬냅니다
손님이나 주인 모두 하룻밤의 수행이 끝났습니다
잠을 설치며 속을 졸이던 대모산의 조바심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암자를 가슴으로 옮기는 데
속을 후려치는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금강경 한 페이지가 겨우 넘어갑니다.

– '저 거리의 암자' 부분

시 '여명'에서는 밝아가는 새벽의 모습을 "점점 사라지는 옷자락이 허공을 닦는" 것으로 묘사되며, "새벽을 데려오는 일에/ 몸을 구부리는 예불이 삼천 배로 지나갔다"고 한다.

시인은 '범종친다'에서 어떤 한계로 상징되는 '벽'을 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범종을 치는 것으로 비유한다. 여기서 벽은 여성이 갖는 "맺힌" 무엇을 상징한다.

화자는 결국 맺힌 무엇인 고비를 넘기 위해 차라리 벽과 눕는 것을 배워야겠다고 한다. '사막의 성찬'에서 화자는 속초 바다와 저녁 겸상을 하면 밥상에 바다의 속사정이 올라오고, 설악산과 저녁 겸상을 하면 밥상에 구구절절한 산 속의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백담사와 저녁 겸상을 했더니 상이 비었다고 한다. 기발한 상상이다.

'사리'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몸"에 사리를 두 개쯤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다. 물론 하나는 몸을 태웠을 때 생성되는 사리이겠고, 시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사리는 태우면 사라지는 '눈'인 것이다.

'천 년 느티나무'는 내소사 대웅전 앞에 있는 느티니무인데, 이는 "내소사 앞들의 부처"와 "내 어머니 부처"로 비유한다. 대구 영천 거조암 오백나한을 구경한 경험을 시로 구성한 '운수좋은 날'은 화자와 나한, 그리고 나와 M 시인 사이의 대화식 구성을 통해 재미를 준다. 봄날 부석사 여행에서 얻은 감흥을 진술한 '부석사'에서는 "부석사를 본 것이 아니고/ 내내 나를 보았다"는 인식에 이른다.

시 '만해사'는 실제 인물인 무산 스님의 인상을 시화하고 있다. 시인은 봄날에 피는 개나리꽃을 순금으로 만든 아기부처로 비유하기도 한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㉑유점사 식해김치

요사이 널리 알려진 가자미식해, 섭조개식해 등등이 사찰에서 먼저 전해 내려와 발전된 음식이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사찰, 특히 산중 깊이 위치하고 있는 사찰의 겨울은 너무나 춥고 깁니다. 하지만 동안거를 나는 대중스님들은 겨울 내내 비타민 섭취를 위해 야채를 먹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는 역시 김치가 최고로 꼽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더 다양한 김치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북한의 사찰김치는 담백하고 시원한 맛으로, 한 번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워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찰서 식혜 요리 즐겨 애용
추운 날씨에 몸에 열 내는 보양식

그중에서도 식해는 남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입니다. 배추식해김치, 우엉식해, 더덕식해, 연근도라지식해, 청각파래식해 등 다양한 식해를 북한의 사찰에서는 담가 먹어왔고, 그 맛 또한 독특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 북한 사찰의 식해음식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배추식해김치입니다. 이맘때쯤 담아서 겨울 내내 먹는 음식으로 영양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몸에 열을 내게 하는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배추식해김치는 북한 유점사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배추식해김치

재료 : 배추, 무, 메조, 도라지, 더덕, 우엉, 연근, 고춧가루, 통깨, 생강, 엿기름, 새송이버섯, 소금

만드는 법

① 무, 도라지, 더덕, 우엉, 연근, 새송이버섯을 중간 정도의 채로 썰어서 고춧가루로 버무려 놓는다.
② 메주는 3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담가서 푹 불린 다음 소쿠리에 건져서 찜통에 넣고 푹 무르게 쪄서 식힌다.
③ 생강은 다져놓는다.
④ 엿기름은 채로 쳐서 가루를 받아둔다.
⑤ 무, 더덕, 도라지 등 채 썰어서 고춧가루에 버무린 것과 식혀놓았던 메주 엿기름 소금 생강즙을 넣고 버무린다.
⑥ 소금에 절여 놓았던 배추를 건져서 어느 정도 물을 빼고 배추포기 사이사이에 버무려 두었던 식해를 넣어서 김치를 담는다. 항아리에 넣어서 발효시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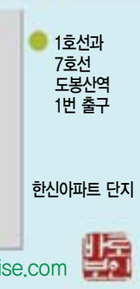
거사선(禪)의 리더들 ⑨
– 대원 문재현 거사 편의 기사를 정정합니다

2007년 11월 21일(수요일)자 현대불교신문의 기사
〈 거사선(禪)의 리더들 ⑨ – 대원 문재현 거사 〉 편의 16면 하단의
대원 선사님의 공안 법문 내용에 대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아난 존자가 가섭 존자에게 질문했다.
"석가세존께서 가섭 존자에게 금란가사를 전한 일 이외에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자 가섭은 "아난이여!"라고 불렀다.
아난이 "예." 라고 대답하니, 가섭은 "문 앞의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라고 말했다. 여기서 가섭이 "아난이여!"라고 부른 것은 바로 들어 보이는 도리건만 아난이 알아차리지 못하므로, "문 앞의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라고 하여 재차 들어 보였다고 대원 거사는 법문하였다.
그러나, 용성 선사와 전강 선사의 선문답에서 용성 선사가 전강 선사에게 "어떤 것이 제일구냐?"하고 물었을 때 전강 선사가 "예?" 라고 한 것은 아난이 "예."라고 대답한 것과는 달리, 제일구를 곧바로 들어 보인 답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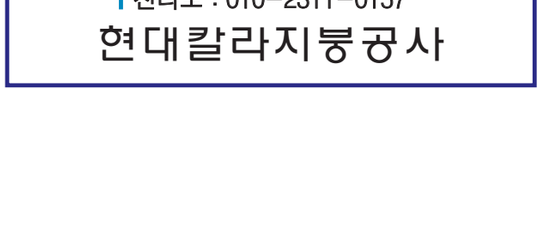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법문집 〈 영원한현실 〉 26, 29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선가귀감 12월 법회
일시 : 12월 2일(日) 오전 11시
장소 : 서울 도봉 선원
전화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장례에서 이장, 택일, 제사까지
확 트이는 風水 꽉 잡히는 地理

풍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책!
이 한 권으로 풍수는 끝난다!!

제 1 장 풍수風水의 의의意義
제 2 장 풍수의 기초 이론基礎 理論
제 3 장 용세론龍勢論
제 4 장 혈장론穴場論
제 5 장 사격론砂格論
제 6 장 수세론水勢論
제 7 장 좌향론坐向論
제 8 장 형국론形局論
제 9 장 구층 나경 사용법九層 羅經 使用法
제 10 장 발복發福 추산법 推算法
제 11 장 장랙론葬擇論

풍수책의 결정판

저자 정판성 박사

쉬운 문장, 많은 그림, 현대적 용어로 설명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풍수 책!

사람들이 풍수를 배워서 명당에 묘를 쓰고 집터를 잡아 행운을 얻게 하는 잡술서가 아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많은 이론들을 제시했으므로 별도로 다른 풍수서적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랄 뿐이다.



청학출판사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신국판 752쪽
값 30,000원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달라진 내용 꼼꼼히 챙겨 '稅테크' 하세요

2007년 연말정산 가이드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신입사원 이정석(가명 27세)씨. 올해 초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매월 얼마되지 않은 월급에서 빠지는 공제항목을 보면서도 '그냥 내는 돈인가 보다' 하고 무덤덤했던 그다. 선배 직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에 궁금증이 커진 이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 돈의 정체와 그것을 돌려받을 궁리를 하게 됐다. 조금만 노력하면 세테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
성형수술·보약비용도 공제 혜택
증빙서류 인터넷으로 한번에 OK

일단 작년까지 알고 있던 연말정산 상식은 잊자.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지만 나라살림 형편에 따라 해마다 바뀌는 세법이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다. 올해 바뀐 부분을 꼼꼼이 살핀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돈도 커질 것이다.

올해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성형수술 및 보약값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됐다. 반면에 작년까지 가능했던 의료비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이중공제 혜택이 폐지되는 등 변화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성형수술·보약비 공제혜택 등 '신설'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50만원, 3명은 연150만원, 4명이면 연2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의 기본공제액(500만원)에 15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는다.

성형수술·보약비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미용성형수술 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성형수술은 물론 보철, 스케일링 등 치과치료비,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된다. 또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값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늘었다. 작년까지는 취학전 아동이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을 다닐 때 공제받지 못했다. 올해는 체육시설 학원비가 포함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시 납부한 수업료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는 '폐지' =올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를 대신해서 근로자 가족이 1명일 경우 100만원, 2명일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독신가구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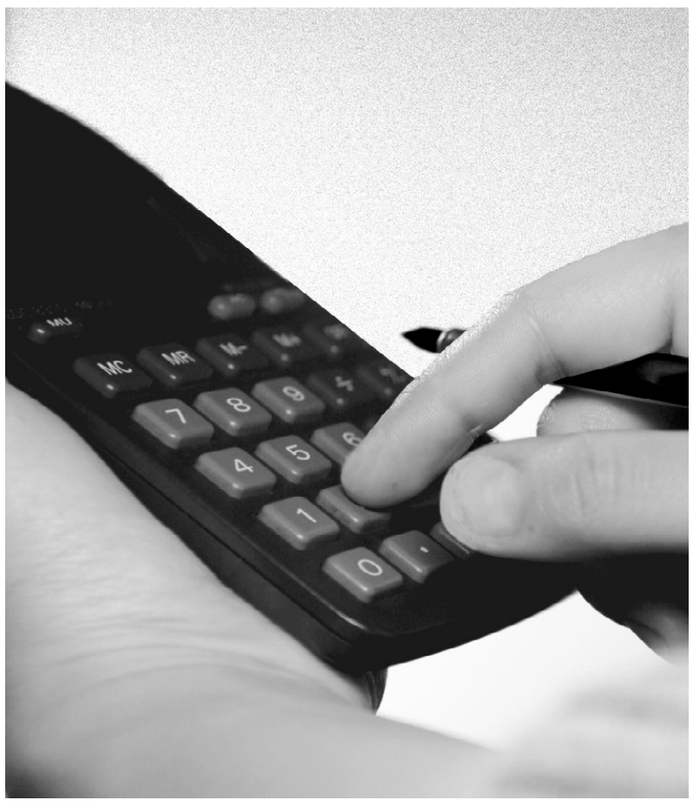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작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던 의료비 지출액의 혜택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낙심은 말자.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신고자 중 88%가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작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혼인 및 장례비 공제대상은 '변경' =작년까지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서 11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이내에서 10만원까지만 돌려받는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부모의 장례나 혼인 등에도 사유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남자 60세, 여자 55세의 경우에만 장례비 인정이 됐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시 '주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최고 12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환수되니 주의해야 한다.

조동섭 기자



2007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자녀 1명: 없음, 2명: 연 50만원, 3명: 연 150만원, 4명: 연 250만원)
- 미용성형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의 의료비 공제 추가
- 취학전 아동의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통한 교육비 공제 추가
- 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비용 공제 추가
- 혼인 및 장례 공제 요건을 20세 초과자 혼인 및 남자 60세(여자55세) 미만의 장례자로 확대
- 정치 기부금 10만원 이내에서 전액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대상 제외

❖ 연말정산은 무엇?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을 '간이세액표'에 의해 미리 떼어간 공제금액(갑근세)을 연말 기준으로 정산해 초과 징수된 것은 돌려주고 적게 징수된 부분은 걷어가는 절차다. 근로자는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 돼 납부한 갑근세액은 회사가 보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된다. 반면에 실제 부담할 세액은 개인이 각종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과납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게 된다. 이미 지출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라 근로자에게는 13번째 월급으로도 불린다.

❖ 연말정산은 누가?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주된 대상이다.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 등도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말정산은 어떻게?

근로자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은 직접 챙겨 회사(사업주)에 제출해야 한다. 예전에는 일일이 서류들을 챙겨야 했다. 요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인터넷 서비스(www.yesone.go.kr)면 쉽게 해결된다. 이곳에서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얻으면 가족 모두의 증빙서류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은 언제?

연말정산은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한다. 때문에 12월 말까지 혹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자별로 확정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과납한 것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추가징수하게 된다.

❖ 연말정산은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이 낸 것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연말정산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연봉이 3800만원인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면 100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됐을 때 18만7000원 정도를 더 돌려 받는다.



건강 칼럼 column

11. 고혈압

갑자기 추워진 요즘, 겨울은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벽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치솟기 때문이다. 또한 혈압뿐 아니라 혈액이 진해지고 지질(脂質) 함량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혈관과 말초동맥이 좁아지면서 혈관 저항이 높아지는 등 혈압 상승과 더불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 위험도 더 높다.

고혈압 환자에게 아침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은 아침에 상승하는데, 여기에 차가운 바깥 날씨를 만나면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물론 노인이나 일반인들도 겨울철에는 혈압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일수록 체중조절 신경써야
새벽시간 피해 적당한 실내운동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30%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되지만, 환자의 약 3분의 1은 자신의 혈압이 높은 것을 모르고 지낸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Hg,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보통 정상 혈압은 140(수축기)~90(확장기) mmHg(기압 단위) 이하를 말한다. 그런데 정상 혈압인 사람도 온도가 1도 내려 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1.3mmHg 정도 올라가고 확장기 혈압은 0.6mmHg 정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온이 10도만 내려가도 혈압은 13mmHg나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겨울철 고혈압의 합병증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여름철에 비해 30% 정도 증가한다.

고혈압환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체중조절이다. 정상체중보다 20% 정도 체중이 더 나가면 고혈압의 발생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므로 고혈압 환자의 체중조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고혈압 약제에 대한 효과도 증가하므로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겨울철에는 특별히 체중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적당한 운동은 체중조절과 더불어 혈압을 낮추고 심폐 기능을 개선시킨다. 또한 고지혈증을 막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추운 겨울철에는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만큼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실내에서 체조나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새벽 찬바람에 노출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응급상태가 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며 하는 운동은 피하고 따뜻한 햇볕이 나는 낮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후 운동에 들어가는 게 좋다.

외출할 때는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번거롭더라도 한 겹 더 챙겨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밤에는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것보다 얇고 가벼우며 보온성이 좋은 이불을 여러 겹으로 겹쳐 덮는 것이 좋다. 또한 이불 속과 방안의 온도 차가 적도록 난방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은 식사요법 등을 통해 평소에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염분 섭취를 줄이고,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식사요법으로는 현미와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장기조절의 부조화에서 오는 고혈압의 한방치료를 위해서는 각 증세에 따라 각각 처방을 달리한다. 먼저 신경 증상으로 인한 고혈압에는 시호가용골모려탕을 쓰고, 위장병이 있어서 발병한데에는 반하사심탕을 쓴다. 그리고 갈비뼈 밑이 단단하고 눌러서 아프거나 답답한 증상으로 고혈압이 생긴 경우에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이나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처방한다. 그 외 기능저하로 인한 고혈압의 경우 보제 및 열성 약제로 처방하는데 다른 병증과 달리 고혈압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처방토록 하며 이와 함께 식이요법과 평소 규칙적인 생활습관, 적당한 운동 등으로 사전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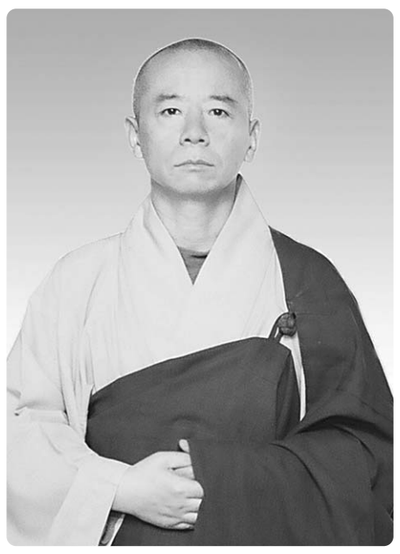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大韓佛教 曹溪宗 臨濟禪院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지상의 인간세상 굽어보는 '하늘의 제왕'

불화 속의 명장면 (37)

제석천도(상)



그림2 : 제석천의 얼굴.

일본 교토국립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한국불화 중에 참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존상의 불화가 한 점 있다.(그림1) 작품 속의 존상은 높은 보관을 쓰고 여러 겹의 옷을 현란하게 겹쳐 입고 있다.

아름다운 보관 한가운데에는 세 개 구슬이 삼각 모양을 이룬 마니보주가 불꽃을 일으키며 빛난다. 손에 든 지물과 앉은 자세, 옷 장식 등은 기존에 흔히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모양새이다. 한 눈에 어떤 부처님인지 보살님인지 좀처럼 가늠키 힘들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품의 탁월한 아름다움과 우수성이다. 화려한 장식성과 더불어 영롱한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깃들어 있다.

이 작품은 본래 교토에 있는 사찰 세이타쿠인(聖澤院) 소장의 작품으로, 그 뛰어난 작품성으로 일본 메이지시대 때에 한 때 일본 국보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국보로 지정되었을 당시에 이 작품은 중국 원나라 것으로, 작품 이름은 마리지천(摩利支天)으로 판명됐었다. 또 '국화'라는 일본 저명 미술사학자에는 가마쿠라시대 후기의 일본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논고가 국보 지정 이후 연달아 실린바 있다.

해외에서 발견되는 우리나라 작품들은 특히 그 작품성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제 주소를 못 찾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우수한 작품이라 하면 무조건 중국 작품이거나 다음으로 일본 작품이라는 문화적 패권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우월감으로 인한 사대주의가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팽배하여, 중국 것과 일본 것은 단지 인상 판단(학자들의 감식안에만 의존하는 유물 판별 방법)만으로도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면, 한국 것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참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구구절절 논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작품성이 탁월한 걸작일 경우에는, 외국 학자들의 '어째서 이것이 한국 것이냐'라는 반신반의 질문 공세를 피할 수 없다.

그러던 것이 일본에서 점차적으로 한국 고려불화의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수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해외 타지의 여기저기에서 다른 나라의 이름을 쓰고 있던 우리 작품들이 제 주소를 찾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떠한 근거에서 한국 불화인가. 또 작품 속에 보이는 특이한 도상학적 근거들은 과연 이 존상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 주는가. 우선 자세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여러 겹으로 겹쳐 입어 자칫 난해하게도 보이는 존상의 옷이다. 겉에 걸친 천의(天衣)는 어깨 자락이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밖으로 뻗어 있고, 또 그 밑으로는 새 깃털인지 부드러운 풀인지 층층이 그 가닥이 좌우로 뻗었다.

옷의 품이 얼마나 큰지 손이 나온 소매 자락을 보면 그 통이 무릎을 지나 발아래까지 흘러 떨어지고 있다. 붉은 치마 아랫단 밑으로는 부챗살 접듯 접어 한층 볼륨감을 낸 안감 치마가 프릴 장식처럼 부풀어 나왔고 그 밑으로 발이 나온 부분은 그 자락이 들려 끝단이 반전되어 있다. 그 외 붉은 리본 매듭 자락, 영락 장식, 보석 장신구 등으로 치장을 더했다.

그런데 옷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양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지물 역시 낯설다. 둥근 타원형의 부채는 좀처럼 보지 못했던 물건이다. 부채는 공작 깃털과 부드러운 하얀 솜털로 장식되었고 그 부채 안에는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붉은 해와 흰 달이 눈에 띄는데 이 해와 달은 산꼭대기에 있는 궁전을 빙빙 돌고 있는 모습으로, 무언가 매우 신비로운 느낌을 풍긴다.

이상의 특징이외에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이채로운 것은 존상의 자세이다. 존상은 정면을 응시하며 왕좌에 걸터앉아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연화대좌에 앉거나 혹은 서있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자세가 아니라, 마치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정면 의좌상(依座像)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왕좌 역시 보통 호사스러운 것이 아니다.

등받이 양쪽으로는 금 용머리 장식이 돌출되어 나왔다.(그림3) 벌어진 용의 입에는 붉은 구슬 장식이 줄줄이 엮여 있다. 의자 팔걸이 부분에는 금 봉황머리 장식을 했다. 보통 왕실용 의좌에는 용이나 봉황, 둘 중 하나만 장식되는데 이 의자에는 용과 봉황이 모두 있다. 이렇게 과도하다시피한 화려한 장식 탓인지 이 존상은 언뜻 보기에 매우 여성적으로 보이나, 다가가 보면 그 원만한 얼굴은 위엄스럽고도 근엄하기 짝이 없다.(그림2)

이 작품이 한국 작품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학자들 사이에 소문이 이미 나 있었으나, 이 존상이 고려시대의 '제석천'이라고 구체적으로 논증된 것은 극히 최근 일이고 이는 한 일본 학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제석천은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천신(天神) 중 하나인데, 이 제석천은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 꼭대기에 선견성(善見城)이라는 궁전에 살고 있다. 이 제석천이 거주하는 수미산 위의 하늘 공간을 도리천(또는 33천)이라 한다. 그리고 아래로는 사천왕이 거주하는 사천왕천이 있다. 사천왕은 아래의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관찰하여, 위의 제석천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석천은 도리천에서 지상 세계를 굽어보며 사람들의 선악을 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도리천은 인간세상 위에 있는 하늘이고, 여기를 다스리는 제석천은 하늘님인 것이다. 그래서 제석천은 하늘의 제왕 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천제(天帝), 천주(天主), 혹은 천제석(天帝釋)으로도 불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할아버지인 환인을 석제환인이라 하여 하늘의 주인인 제석천과 동일시하여 섬기기도 하였다. 이 제석천의 존재를 이해하면 우리의 전통적 우주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계속>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뛰어난 작품성으로 日메이지시대 국보로 지정

최근 들어 일본학자가 고려시대 작품으로 논증



그림1 : 조선초기 제석천도, 일본 교토 세이타쿠인 소장



그림3 : 용머리 장식, 제석천의 왕좌,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원인이 있습니다"

*** 관세음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천도재) 전문 기도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잦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교
- 1998년 7月 24日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탱화 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가내길상 "수묵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 김병룡)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5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수련이 편안하고 회복이 간편한
선관단식
www.zenfast.com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5)834-1115
016-849-3858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남합천
055)932-5706
016-9506-5706

역학개인지도
중국 청나라시대 황실비법으로 전해 내려온 비전비학인
마음 용신법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인연법을 공개한다.
족집게를 원하는자! 인연자는 오라!
본 인연법을 깨우치면 운을 바꾸는 법을 알수가 있다.
(역학인, 일반인, 스님, 보살님)
TEL 053)472-5354
H·P 010-6780-7716

보살선방
(1인1실-방1,주방,거실,욕실
부부실-방2,주방,거실,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며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 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불광대학
053)656-6766

감정치료 자격증 통신반
남녀노소, 학력무관 6개월과정
신분증사본, 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건강진단서
041)544-4441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룡리 245-4
(사)마사지,미용 찜질의료

역학개인지도 숙식제공
사주명리 관상학 구성학
풍수 음양택 성명학 최면학
빙의 전생 영가 치유 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출장법문 영가천도
017-322-4625
043)833-462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 승무작법
010-2570-3847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214-05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거제)
010-8813-6867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면담 후 결정
010-3188-510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천년고찰 부처골 상선불 복원불사에 미륵대불 모셔줄 인연을 찾습니다
010-4518-3978
(상선불 선원)

큰 법력으로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및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무불 합장
011-854-8107

부처님께 출가하여 스님이 되실 분 여(女) 행자님을 기다립니다
(45세 이하)
경북 조용한 비구니 사찰임
011-810-9957

산사에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소렌토(4륜) 중고 파실분
여명스님 합장
031)771-123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60대 초반)
월보시금 100만원
052)227-082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사찰거주가능한 분)
051)508-4509

함께 절을 운영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011-9429-578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초반)
010-4528-980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금불사(충북청원)
043)297-8728
016-428-8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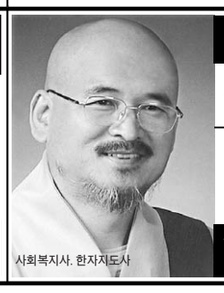
정법수행도량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전스님 필요
하시면 전화주십시오
054)433-6315
010-4520-6787

시주님 찾습니다
산촌토굴방에서 정진하는 사문입니다. 불사(법당,요사채)시주하실 분과 불법승 삼보님께 시봉하면서 지내실 시주보살님은 연락바랍니다
011-486-1275

소납은 서상수계한 66세의 비구입니다.
보임과 만행에서 나와 가사를
펴고자하나 무일푼입니다.
경봉대종사의 진본 필묵으로 화답할것인 즉
신심있는 단월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2317-0379 조응당 석보각 합장

역 학 공 부
●사 주 초 급 : 월요일 18:30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易) 정통 命理學 (學
四柱 비법완성
命理를 완성코저 하는 분
"전문가 양성"
정통교재-命理學 비전, 命理學 비결
각권 30,000원
인천 明陽 명리학당
연락처 : 032)330-4684, 032)503-4684

효사 육임복변집
▷ 250만원(매일 한권씩 전 60권) ◁
육임공부를 하지 않아도 온 시간, 전화한 시간으로만 아래 내용들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왜 왔는가?
- 어떤 정황인가?
-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가?
- 어떤 부정 빌미가 붙어 있는가?
- 누구의 산소에서 어떤 탈이 났는가?
- 시험 · 승진 · 당선 · 취직이 되는가?
- 부귀빈천 여부
- 현재운세, 금년운세, 12년간 운세
- 1년 월별 신수
- 초사
- 육임 직지 요결
- 가정 사정
- 묻는 목적사 항목별 답
- 각 일별, 시간별 길일, 길시, 길방

이상 매일 매시간 마다 그 답이 모두 써져 있어 즉시 사용하게 됩니다.
육임명가 육임나라 (주) 02)993-8680
<최종판> www.taoetmple.net <교환중>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농협은행 170338-56-155880 <김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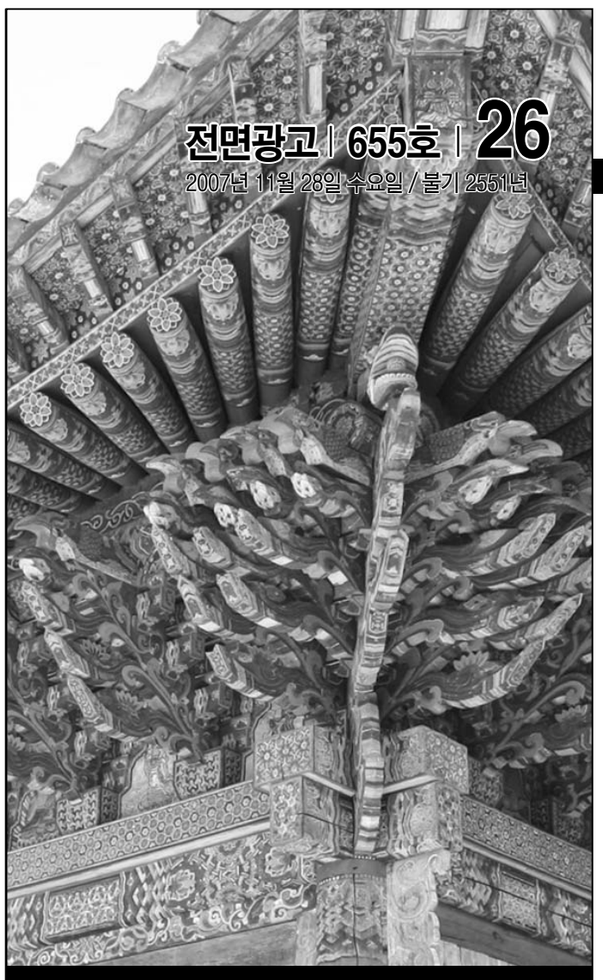
大韓護國佛敎 彌勒禪宗
종도모집안내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종도들을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 총본산 용화사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5-0122(스님), 761-7008
02)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사암침술·맥진강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 과 정 : 기초 ~ 전문가 과정 까지
■ 내 용 : 12경락, 기경, 경근, 사암침법, 장부의 허실 판단, 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임상실습(고질,난치병), 무통무혈요법, 즉효요법, 카이로프라틱
■ 개 강 : 2007. 12. 3(월 · 화반) 14시
12. 7(금 · 토반) 14시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서울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위치 : 서울외곽도시	●위치 : 전남
●법당 : 20평	●법당 : 30평	●법당 : 30평
●요사 : 60평	●요사 : 80평	●요사 : 30평
●부지 : 5,000평	●부지 : 620평	●부지 : 500평
●가액 : 10억	●가액 : 43억	●가액 : 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위치 : 부산 온천장 금정산 자락	●위치 : 의령 정곡
●총평수 : 400평	●대지 : 100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40평	●건물 목조 법당 30평 +10평+15평(3동)
●대종각 ●주차장 10대 가능	●요사 : 30평(공양간)
●동남향 전망 최고(양명함) 완벽한 산세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부산 시청에서 10분 거리	●가액 : 2억8천만원
●가액 : 7억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낙동강이 보이는 사찰 터 28,000평(당 1만원) "급"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위치 : 기장 월내	●위치 : 청송 보현산
●부지 : 7천평	●대지 : 1,000평	●부지 : 1,400평
●법당 : 30평	●법당 : 45평	●법당 : 25평
●요사 : 30평	●요사 : 50평	●요사 : 20평
●가액 : 39억	●가액 : 18억	●가액 : 7억
*도심부근큰가람가능 (법당+대지300평)9억	*교통좋은 근교 신축사찰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사찰컨설팅(양도 양수 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46-2 (자비사)
국제신문사 뒤편 교육대학 바로 옆
● 대지 : 104평, 건평 : 196평
● 지하 : 52평 (주택 및 철학관)
● 1층 : 52평 (주택 및 점포), ● 2층 : 52평 (요사채)
● 3층 : 40평 (법당)
● 삼중스님께서 주석하시는 곳 자비사
● 가액 : 8억 5천 (은행대출 5억 가능)
011-863-3557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사찰(급)안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 30분거리
● 가액 : 가격절충
010-4583-2035
010-3996-2035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 강구 회센타(옆)
● 대지 43평, 건물 40평
● 법당, 요사채, 산신당 총평수 225평
● 계곡 공유부지 200평 계곡있는사찰
● 동해바다가 보이고 강구항과 관광객이 모이는 곳
● 가액 : 9천만원(전세 5천만원)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56-55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총평수 :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2, 방4, 창고, 반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기도처 명당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 국민관광단지내
● 부지 : 토지 500평(대지)
● 건축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산신각, 용신각, 한옥 1채 총 180평 동남향, 최신시설
● 가액 : 8억(임대도 가능) 보증금 1억원, 월 150만원
011-706-7489(향봉)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중심지 산밑
● 대지 : 약 80평
● 건물 : 법당 20평 슬라브
● 요사 40평 슬라브
● 가액 : 2억 6천만원
018-554-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 12억
010-9757-5608
010-2871-5285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임법당
● 대지 : 20평, 건물 20평
● 주위 아파트 지역등산로길
● 가액 : 8천5백만원
● 몸만오시면 됨
(꼭 필요하신 분 절충가능)
018-363-666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시내
● 평수 : 종교용지 438평 법당 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칠성각
● 약수 사용, 심야보일러
● 조계종 비구니 암자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찰
● 조계종 승려 원함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581-6044

토 굴 안 내

● 위치 :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347㎡(약107평)
● 비구니에게 적합
● 가액 : 2천 2백만원
053)942-34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시립미술관 지하철 2번출구앞)
● 평수 : 66평 (법당,방,욕실,공양간,창고) 34평(옥상,잔디,야외법회가능)
● 보증금 5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3천 500만원
● 특징 : 즉시법회가능
010-6353-4299(주지)
010-9288-4199(부전)

포교원안내

● 위치 : 의정부 신곡 2동 경기 제2청사 앞
● 삼성플러스 12층, 단독 83평
● 보증금 5000만원, 월 90원 시설비 2500만원
010-5698-8769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용문
● 대지 : 500평
● 큰방4, 작은방1, 화장실2, 텃밭 450평
● 계곡있고 경치좋음
● 전세 5500만원
010-7158-7316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도동
● 단독 독립주택 임법당 법당, 방, 주방, 화장실 총 30평
● 가액 : 5500만원(절충가)
016-813-740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내당동 (애락원 앞)
● 3층 건물 3층. 법당 40평
● 집기 일체, 바닥은 다다미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6689-595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내
● 1층 재래시장이고 2층은 법당(약 35평)
● 미타 삼존불, 지장전, 신중당, 영가단 등
● 시설 일체 완비
● 현재 법회중, 지장재일, 초하루 관음재일
● 보증금 없음, 월 10만원 (1년 120만원) 답사 후 상의 결정
011-277-80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내
● 법당 : 상 10평, 하 20평 산신각 7층
● 대지 : 약450평 요사채 2동, 창고 1동
● 가액 : 7억5천만원 (현지 답사 후 결정가능)
010-4644-1470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큰 대로변, 부산진 지하철역 부근 시내버스 각 노선 정류장 앞
● 평수 : 약 85평. 4층건물에 2층
● 법당 약20평, 방2, 주방,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약40평
● 위치가 좋아 불교대학, 선원 등
● 약사여래 삼존불 모든시설 완벽,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보증금 2천만원, 월180만원
010-2563-13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011-875-3513

포교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
● 평수 : 총60평(4층 건물중3층)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옥불 2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세절충 시설비 2천만원
● 시설 최상급, 몸만오시면가능 스님 해외 공부로 인해 급 안내함
055)338-1328
011-628-115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 평수 : 72평 (아파트 약4천세대 상가 5층) 분양받았음
● 모든시설 최상급, 산사와 같은 포교원주변 자연경관수려, 교통편리, 주차편리 포교에 원력있는 스님 최상의 조건
● 가액 : 농협융자 3천만원 안고 1억 3천만원
016-9878-128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108후불,신중탱화,감로탱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57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0-2284-073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 약 110평(82평 등기)
● 법당 1(약20평), 요사채 1
● 가액 : 4700만원 (650만원 은행융자)
전세 1천만원, 월25만원
010-4027-2007

부산대사찰안내

● 13억
● 부동산 사절
010-9630-0937

주택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62평(2층)
● 1층 상가 3개, 방1 월70만원 수입있음, 2층 법당
● 8차선 도로 10M 인접 주택가 코너집
● 가액 : 4억2천만원 (융자 6200만원 포함)
031)257-5991
011-753-599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법당 : 65평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에 최고의 시설
● 앞산 아래 무공해 지역이며 전철역에서 5분거리 롯데백화점 근교,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90만원 시설비 5천2백만원
011-9876-338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74-7외 4건
● 평수 : 2,100평
● 가액 : 1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함, 토목 석축 완료
● 풍수적 최고의 명당터
011-9837-8668
061)362-986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덕월동 은혜사
● 대웅전, 삼존불, 약사전, 지장전, 산신각, 영가단
● 전세 1년 9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스님 노환으로 저렴하게 내놓음
061)745-0108
010-8476-1357

사찰납골당 안내

● 위치 : 대구근교 30분거리
● 대지 2500평, 법당 50평
● 가액 : 35억

대구시내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5천~20억
※사찰안내 전문가 친절상담
019-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15번지
● 대구에서 1시간, 진주에서 1시간 창영에서 25분, 부산에서 1시간20분
● 대지 : 약 400평 (현 싯가 평당 30만원상당)
● 건물 : 법당(15평), 목조기와 4불상
● 요사채 30평, 기와 스라브 신축 (평당 300만원 소요)
● 가액 : 2억1천만원 운영하실 분이 없어 안내합니다
011-9329-4241
011-9506-6612

사 찰 중 개

●위치 : 경기	●위치 : 서울
●부지 : 430평	●종교용지 : 300평
●법당 : 35평 목조	●법당 : 25평
●요사 : 90평	●요사 : 60평
●가액 : 9억(급양도)	●가액 : 15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30년 서울도심 포교당

● 서울 중심에서 30여년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인연을 찾습니다
● 4층 건물의 3-4층 (각 6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봉안)
● 보증금, 시설비 포함 4억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7339-8688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포교의 중심지 아파트 밀집지역 (대도로옆, 전철역 입구)
● 평수 : 150평
● 법당, 요사, 주방 등 현대식 최신식 최상급시설 냉,난방 등 일체 시설 완비
● 보증금 1억, 월 200만원 / 시설비 답사후절충
●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011-594-152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동아백화점 근교)
● 건물3층 총60평 (법당 45평, 요사채 15평)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권리금 3천만원 무료양도)
011-815-48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 법당 : 40평(3층 건물중 2층)
● 가액 : 8천만원 (전세 5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중간세도 가능하며 현재 법회중이며 시설은 최상급
053)759-0108
011-506-2282

포교당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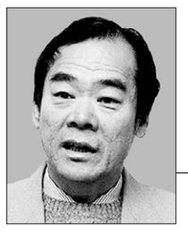
● 위치 : 부산 남구 문현동 포교당 하실분
전화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 시설일체 완비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1)632-8424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 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 사찰규모 완벽함
055)342-6341
011-864-6696

사찰(터)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 905평
● 경천하명당 양쪽 계곡과 큰호수
● 토목완공, 조립식 임법당
● 황토방, 연못, 삼존불, 탱화 무료보시
● 가액 : 1억 4천만원
010-6440-5255



불자 세상보기

이 근 후
이근후열린마음의원

황혼의 사랑

흔히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젊은 사람들의 몫으로 치부된다.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취급되지만 기실 사랑이란 연령에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대상에도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시간에도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공간에도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의 사랑만 부각되는 뜻은 그만큼 사랑이 지니는 표재적인 특성이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갖추고 있는 조건 때문일 것이다. 사랑의 가장 보편적인 뜻은 사전적인 의미일 것이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란 설명이 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몫이 틀림없겠다.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라고도 설명한다. 그렇다면 한 차원 높은 것으로 젊은이들만의 몫은 분명히 아니다. "남을 돕고 이해하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사랑이라고도 했다. 봉사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마음은 아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일"이라고도 한다.

얼마 전 미국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77)의 사연이 보도돼 황혼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7년째 치매를 앓던 남편의 간병을 위해 2005년 7월 종신직 대법관을 사직한 오코너는 남편이 다른 여성(치매환자)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지만 행복해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함께 행복하다"는 말로 심경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황혼의 사랑이 아름답다거나 순애보라고 포장한 것이다.

'황혼의 사랑이 더 아름답다' 란 주제의 이 보도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선 뉴스거리가 될 소재도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그랬으니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엔 아름다운 순애보란 이름을 붙여 보도할 만큼 희귀하다는 뜻일 것이다.

"사랑에는 연령이 없다. 그것은 어느 때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갈파한 말이다. 흔히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묘사되지만 팡세의 말처럼 사랑은 생명력이다. 아주 좁은 의미의 이성적 사랑에서 넓은 우주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자기초월의미를 지닌 생명력의 원천이다. 무엇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 그 생명력만 보아도 행복하다는 오코너 부인의 말에 동감이다.

우리들이 유의해서 보아야 할 쉽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한 부인의 결단, 치매가 걸린 오코너의 병동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본 오코너 부인의 사랑 표현이다. 민감한 감정의 극단을 치닫는 젊은이들의 사랑처럼 증오를 지닐 법도 한 남편의 병동 사랑을 행복해 하는 남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오코너 부인의 사랑 표현이다. 치매가 걸린 오코너의 사랑도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는 그 생명력에 순애보란 포장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사랑과 노년기의 사랑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가가 다를 뿐 그 근원적인 본질은 같다. 파이퍼 박사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는 문화를 원한다면 나이든 이들의 사연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일생을 두고 연령구분 없이 사랑할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사랑을 실천한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력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본다. 나이에 따라서 사랑을 인식하는 내용이나 실천하는 방법 등이 다를 뿐 노년기에는 사랑이 없다거나 사랑이 주책스럽다는 편견은 없어져야할 숙제다.

'종교자유' 칼럼

37. 공공장소 종교행위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시민은 종교오염 없는 쾌적한 공공장소 향유할 권리 있어

공공장소나 공공자산이 특정종교의 선교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 특히 기독교의 무리한 전도활동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즐겨야 할 공공장소마저 많이 오염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덕분에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해오던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자들 중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5인이, 갑자기 교인들이 찾아와 큰 소리로 예배를 보는 것에 대해 "그 종교의 교인이 아니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예배를 강행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경찰서는 '유치인 인성교육' 이라는 명분 아래 매주 수 · 일요일 특정교회의 방문 및 종교의식을 허용해 왔다고 한다. 난처해진 경찰서가 공개적인 예배를 중지하려 하자 교회 사람들이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단위 경찰서 차원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 공지 및 동의 없이 유치인에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유치인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식 참여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기본인데, 폐쇄되고 한정된 공간에서의 종교의식은 특정종교의 종교인이 아니거나 종교의식을 원치 않는 유치인들에게 특정종교의 강요가 되며, 큰 소리로 예배를 보는 경우에는 소음 및 종교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20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는 기본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규정하고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길거리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

그 후 유치장의 공개예배를 중지하라는 경찰청장의 공문이 전국의 일선경찰서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오랫동안 막무가내로 해오던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예배를 시민의 기본권 되찾기 의지로 공식 중단시킨 첫 사례이자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국립대 내의 특정종교 시설도 구설수에 올랐다. 2001년 3월 서울대학교가 20평 정도의 교내 방갈로 시설을 세미나실 명목으로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에 배정한 것이 올해 1월 한국일보에 보도됨으로써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기독인회관' 이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 · 기도 · 종교교육 등 실질적으로 종교활동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전기 · 수도 요금 등 유지비용까지 서울대측이 부담해왔다고 알려져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민원 공문에 서울대측이 당초 배정 목적에 맞게 세미나 공간으로만 사용할 것, 인근 천문대 등 타기관의 연구에 지장을 주는 기도행위 등 금지, 그리고 종교시설로 인식되는 입간판 등 제작 · 설치 금지 등을 약속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수면 밑으로 잠기기는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세미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더 본질적으로는 국립대학 내에 특정종교인들만을 위한 시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

공공개념의 이해수준은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가보다. 하긴 영부인이 되려는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11월 중순 시내 모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교인들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교회를 지으라고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청와대 전체가 교회가 된다. 요즘 오히려 기독교가 역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명박 후보까지 실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일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7월 NGO리서치가 조사한 '종교지도자 설문조사' 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선교행위가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응답이 스님의 경우 절대다수인 97.3%인 반면, 목사는 49.4%, 신부는 53.5%로 절반 정도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불교가 얼마나 이 문제로 시달려왔는지 정신적 혐오감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해 주는 반면에, 기독교는 그리 싫지는 않은 것 같아 묘한 대조를 이룬다.

수년 전 한겨레신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시한 "시내 번화가나 전철역 등 통행이 많은 곳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종교전도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91.4%가 "시민불편, 소음공해니 단속해야"라고 답했고, "종교탄압이므로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종교오염 없는 쾌적한 공공장소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또 청와대나 국립대 같은 상징성 있는 공적 장소가 특정종교인들의 예배장소로 변질되게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서울역 · 전철역 · 공원 · 학교 앞 · 길거리 등에서 자신들의 종교선전을 위해 타인들의 쾌적한 삶을 빼앗는 무례한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불자의 눈

겨울 사찰 화재 주의를

겨울철을 맞아 사찰 화재 예방이 화두로 떠올랐다. 도심에 있건 산에 있건 사찰이 화재 예방에 남다른 관심이 요구되는 것은 성보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사찰의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가 필수다. 최근 낙산사 원통보전과 종루가 복원되는 모습을 보며 사찰의 화재가 얼마나 큰 손실을 주는가를 다시 한 번 절감했다.

해인사는 11월 24일 낙성하는 비로전에 화재예방과 관련 상당히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는 전각답게 열감지 시스템과 재난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와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모신 장경각이 있는 고찰답게 소방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소방장비를 제대로 설비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체로 규모가 큰 전통사찰은 각종 교육과 지원을 통해 소방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그러나 산악지역의 소규모 사찰들은 소방시설을 갖추는데 등한하기 일쑤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마저 무디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종단이 때에 맞춰 관련 공문을 보낸다지만, 실질적인 화재예방 설비를 지원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법당을 비롯한 각 전각의 소방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야 한다. 무엇보다 '불조심' 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이 우선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대선후보 '반쪽 토론회' 유감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11월 21일 이뤄진 후보 토론회는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불교계와 '할 얘기' 가 많은 후보로 꼽힌다. 이회창 후보 역시 급작스런 출마 이후 불교계에 이렇다 할 행보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계는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것을 묻고 그의 속내를 알고 싶었다. 그런데 두 후보가 불참하는 바람에 후보들에게 불교관련 정책을 듣고 보다 견고한 공약을 이끌어 내려는 불교계의 바람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다소 맥이 빠진 가운데서도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성의껏 토론에 임했다. 불교계의 현안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를 보며 유감스러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우선 후보자들이 다 참석하지 않은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불교계나 후보 당사자나 획기적인 공약을 개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안으로 설왕설래되는 사안들에 대한 교과서적인 논리로 일관한 이번 토론은 싱겁기까지 한 느낌이었다.

아직도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는 대선판에서 불자들은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대승적인 눈으로 후보를 살피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탈종공고

● 주 지 : 해 초
● 사찰명 : 용화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2리 665-1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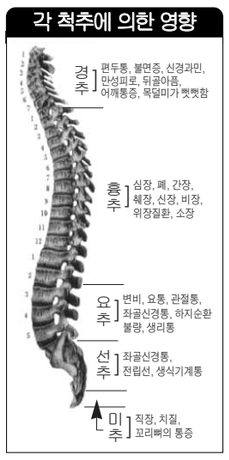
2007년 11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 전 속 성 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7년 12월 11일 부터 (4주간)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 부산연수원 :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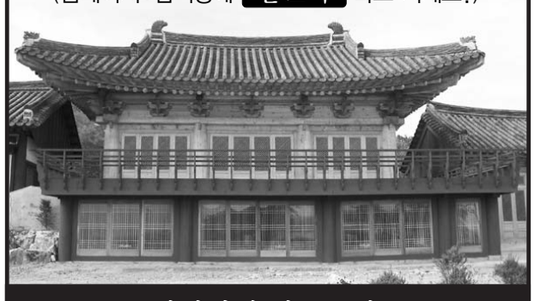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용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황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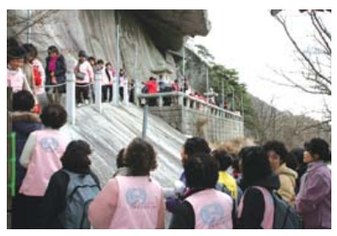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약사여래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중앙승가대총장 종범 스님 법문.


눈썹바위 관음보살상 참배.


보문사 주지 성월 스님의 환영.


15번째 염주알을 받는 '환희'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의 '마음'


MBC '화제집중' 촬영.

관음 · 보현 보살님 자비 실천 따르고 또 따르리!

강화 보문사로 떠난 15번째 기도회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15번째 법회가 강화 보문사에서 봉행됐다.

#승가교육 현장에서 출발 "감동과 보람"

108산사를 찾아 108배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염주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신행모임. 선묵혜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의 열다섯 번 째 염주는 강화 보문사에서 꿰어졌다.

11월 22일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은 잔잔한 감동으로 열다섯 번 째 순례를 시작했다.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여정의 첫발을 뗀 것이다. 오전 7시 30분 중앙승가대 본관은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 30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조계종 승가교육의 산실인 중앙승가대에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은 질서정연하게 4층 대강당에서 학교 소개를 받고 총장 종범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의 정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청담 큰스님의 원력과 수행 정진력을 받들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자 108사찰을 찾아 기도 정진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의 교육은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열어가는 선지식을 기르는 일입니다. 학사와 관련한 모든 일은 바로 승가교육의 '마중물'입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미래의 선지식을 탄생시키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기도처가 아닌 교육기관, 그것도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순례의 첫발을 뗀 회원들은 "말로만 듣던 중앙승가대학을 와 본 것만으로도 감동적인데 학교의 의미와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더욱 보람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화도 외포리 갈매기와 '새우깡 인연'

강화 보문사가 위치한 석모도로 가는 길목, 바다를 건너야 한다.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5분. 이 싱거운 뱃길도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외포리와 석모도를 오가는 배는 대형버스를 열두 대씩 싣고 미끄러지듯 바닷물을 갈랐다. 배가 출발하기 무섭게 수백 마리의 갈매기 떼가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을 향해 날개짓을 하고 회원들은 준비한 새우깡을 던져 주었다. 공중에서 새우깡을 날름날름 받아먹는 갈매기들의 사냥 솜씨에 감탄하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새우깡으로 만난 갈매기지만 회원들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 성불하라"고 기원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은 이제 인연과 공덕이라는 두 단어가 몸에 배었다. 늘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성불의 공덕으로 회향하는 마음이 순례를 거듭할수록 견고해지는 것이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혜자 스님이 늘 강조하는 가르침이 바로 인연과 공덕을 몸에 배이도록 하라는 것이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순례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군부대 초코파이 보시와 농촌사랑 직거래장터, 환경운동 등이 모두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성불의 인연공덕을 지어가려는 실천행인 것이다.

#관음진신 상주도량, 눈썹바위에서 환희를

보문사 극락보전 앞마당에 분홍 연꽃이 3000송이 피었다. 분홍색 조끼를 입은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기도를 시작하면서 연꽃은 향기를 뿜기 시작했고 그 향기는 낙가산을 뒤덮었다. <천수경> 독경과 108참회 그리고 힘차게 석가모니불 정근, 환영사와 법문으로 이어지는 세 시간 동안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의 기도열기는 종각 옆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덜 익은 감들을 완전히 익혀버리는 듯했다. 보문사 주지 성월 스님은 "민족정신의 수호처이고 관음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도량인 보문사 성지를 21세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 장을 열고 있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방문하여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신다니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덕수 강화군수도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의 농촌 사랑하는 마음에 감탄했다"며 원만한 기도 회향을 염원했다. 초코파이 보시를 받은 해병대 제2사단 이경한 군법사는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정성이 깃든 선물에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108산사 기도회의 영원한 간판스타 머루씨와 홍보대사 장미화씨의 선창에 따라 '108산사의 노래'를 신명나게 부르며 기도 법회가 끝났다.

회원들은 눈썹바위 아래 관세음보살님을 참배하며 개인의 소원을 빌고 국운 융창과 인류 평화를 기원했다. 기도동참 낙관과 염주알을 받아든 회원들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강화 순무 약쑥 등 특산품을 구입해 바랑에 넣으며 열다섯 번째의 순례를 여미고 귀갓길에 올랐다.

이날 순례 기도법회의 모든 일정은 MBC의 '화제집중'이 취재했다. 방송은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

강화/글 · 사진=임연태 기자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봉행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대법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제불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 불법을 널리 홍포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종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특히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종단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종단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이에 창종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국 대덕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바 입니다.

■ 일 시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14일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 2동 529번지 쌍청웨딩홀
■ 문 의 : 창종주 054)632-2799 / 011-228-7813
총 무 031)883-1506~7 / 011-338-1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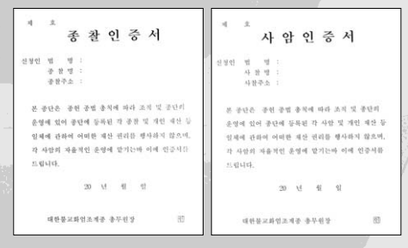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창 종 주 : 혜상
창종위원회위원 : 관도 혜명 금담 혜광 법광 수암 지공 벽암
증명 : 각 종단 종정 예하



교통편 (쌍청웨딩홀 방향)
• 시내버스노선
대전역 : 221, 720, 726, 829
고속터미널 : 640, 103(좌석)
판암주공5단지 하차 : 829
판암주공4단지 하차 : 720, 726, 221, 103(좌석)
판암근린공원 하차 : 640,221,720
• 지하철이용
판암역 3번 출구에서 도보5분거리
• 고속도로(판암 IC에서 2분거리)
서울→청원→신탄→대전→판암IC진입
호남→광주→논산→계룡→서대전(남부순환도로)→무주, 진주지역 대진고속도로 이용 판암 IC진입
※ 대전역을 이용하실분은 동광장을 이용하세요.
쌍청웨딩홀 042)271-1908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행